•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0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0월 29일(음력 10월 1일) 수요일(주간)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나"
14 선지식-묘허 스님



"'금강삼매경' 중국 삼계교도가 편찬"
8 학술-석길암 연구교수



"받아들이는 자세에 행·불행있어"
13 함께가요 강의실-법정 스님



"한솥밥 먹어야 얼굴 알아봐"
18 밥맛나는 세상-전유성의 밥철학

"가족과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님"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 열어 진정한 사회참여 모색

최근 종교편향 사태로 불교의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외침의 이면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궁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인재양성이 교세 확장의 전제조건이며 성불이 지상 불국토 건설의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은 불제자의 본분사인 수행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한다. 교리가 불교의 뼈대라면 수행은 골수와 같다. 수행이 따르지 않는 불교교리는 이념에 그치고, 교리 없는 수행은 외도와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중앙승가대 대학원이 실천 수행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종석)은 10월 21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승가의 실천수행'을 주제로 불교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학원장 종석 스님을 비롯해, 화엄학자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선학자 성본 스님(동국대), 정토학자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밀교학자 김영덕 교수(위덕대)는 각각의 전공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사회참여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불법은 인간사회 보편진리=종석 스님은 기조발제 '불교와 실천수행'에서 "불법은 석가모니불이 설한 법이라는 의미지만, 그 법은 부처님이 설했든 설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의 보편진리"라 말했다. 불법이 생활하는 곳곳에 스며들어 사회를 진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대승불교 이념과 보살도 정신이 쇠태한 것은 수행과 실천이 부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스님의 발언은 '불교연구는 성행하나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불교가 종교라는 틀에 안주해 복지 등 사회참여를 등한시한 것은 결국 수행을 게을리 한 불교계 구성원의 몽매함 때문이다.

#이웃을 받드는 것이 여래를 공경하는 것=<화엄경>에는 항순중생원(恒順衆生願) 즉,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따르고 들어주기로 작정하는 서원이 있다. "중생을 존중하는 것은 여래를 존중하는 것이며,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화엄경> 구절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법당에 봉안한 목불, 철불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임을 뜻한다.

'화엄교학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을 발표한 본각 스님은 "<화엄경>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속에 부처와 보살, 중생이 함께 제불의 덕화를 꽃피우고 실천하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출가자와 재가자,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 화합과 상생, 소통해 화엄세계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법정 스님이 시작한 '맑고 향기롭게'처럼 불교적 수행이 시민운동으로 대중 속에서 호흡해야할 필요성을 엿보인 대목이다.

#좌선주의에서 벗어나 동중선으로 나가야=성본 스님은 '선학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에서 "참된 수행은 앉거나 눕는 형식이 아닌 깨어있는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선지식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같은 성본 스님의 주장은 수행열풍에 출가자들이 솔선수범할 것과 불자들의 주인공적인 삶을 촉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행으로 현실 정토 이뤄야=근현대 선지식인 만공 스님은 현실 정토의 근원으로 참선을 통한 '마음 정토'를 중시했다. 반면에 만해 스님은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해 현실 정토를 이루고자 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예토와 정토가 다르지 않다는 불이법은 수행을 통한 마음 정토와 사회참여로 이루는 현실 정토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태원 스님은 '정토교학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을 통해 수행을 통한 현실정토 구현이 불교의 사회참여 수단임을 강조했다.

#세상을 감로수로 적시는 실천수행 돼야=김영덕 교수는 '밀교교학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에서 "밀교 수행법이 다양한 이유는 중생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초기, 부파, 대승, 밀교로 이어진 불교가 대중적 요구를 수용해 수행법을 변화 · 발전시켰다는 내용으로, 조계종의 간화선 대중화 사업처럼 불교계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수행 트렌드를 선도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화엄경>에는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물에 들어간 사람이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않아 목말라 죽는 것과 같다"고 했다. 불자들의 실천수행만이 치솟는 법열로 삭막한 세상을 감로수로 적시며, 화석화되는 불교에 생기를 불어넣는 길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10월 22일 고려대를 향의 방문한 개운사 비대위 소속 사부대중 200여 명이 고려대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항의해 빗속에서 정진 법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기자

보타사 마애불 보존 분쟁 '잠정 합의'

고려대, 진동계측 등 개운사측 요구 수용

고려대 기숙사 신축 공사로 인한 개운사와 고려대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은 10월 23일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신축중인 고려대 기숙사 공사의 일시중단과 실무진의 상시적 협의에 합의했다.

범해 스님은 "개운사와 고려대는 마애불 인근의 진동계측에 합의하고, 계측 때까지 공사 중단을 합의했다. 이기수 총장은 공사 중인 기숙사 층고의 하향조정과 건물간격을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살필 진동계측은 개운사와 고려대 양측이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이다. 개운사측은 진동계측 결과 고려대 기숙사 공사가 수행환경과 마애불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공사를 전면저지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범해 스님은 "계측 후 결과에 따라 친일 고려대가 민족문화를 말살하려한다는 내용으로 대외홍보에 나서겠다. 이와 함께 불자자녀 고대 진학거부 운동, 서울시청과 성북구청 항의법회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10월 22일 개운사 및 보타사 대중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등으로 구성된 개운사 비대위 200여 명의 고려대 항의방문으로 성사됐다. 개운사 비대위가 고려대 정문 앞 집회 후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총장실이 있는 본관에 이를 때 까지도 고려대측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불교환경연대 법응 스님이 고려대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며 항의서한을 찢자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고 대중들이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초암 스님(보타사 주지)은 우중에 3000배 정진을 해 시위동참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재연재 웰빙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18면

社告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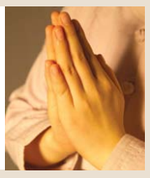
<문화재청 주요 부서에 법보시 신문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에 따라 문화재청 청장실, 차장실, 대변인실,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주요 부서에 본지 703호부터 발송합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게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금강경)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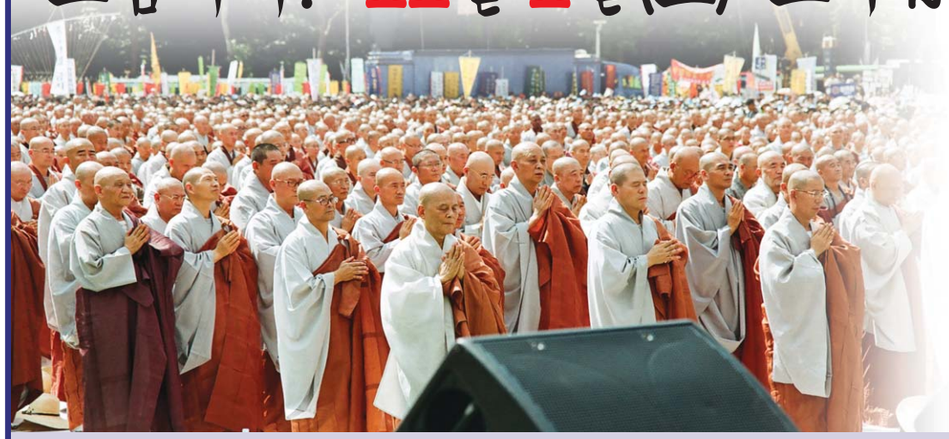
"숲 향산화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종교차별금지 입법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

모입시다! 11월 1일(토) 오후2시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으로 !!



파사현정의 깃발을 높이 든 당신이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불자들의 화합과 단결로 종교평화 만들겠습니다.

종교차별금지 입법 실현!!
성시화 운동 참여 공직자 참회!!

주관 ▮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 봉행위원회 전화 : 053)652-6300 http : //cafe.daum.net/qjaqnfryeh (한글로 '범불교도') 후원 : 농협 150095-52-100693 예금주 : 대경범불교도대책위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소망교도소' 착공을 보며

개신교계가 설립하는 국내 첫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10월 22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첫 삽을 떴다. 비영리인 소망교도소 건립비 300억 원은 개신교 아가페재단이, 연간 운영비용 46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종교자유 침해 문제와 민간에 의한 형벌·징벌권 문제 등을 들어 개신교 민영교도소 도입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가페재단이 공개적으로 밝힌 종교멘토링, 지역교회 연계 취업설계 등이 교정을 하나의 선교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이 아닌, 수감자와 국민을 위한 교정으로 바라본 종교교도소는 다르게 비춰진다. 소망교도소에는 전국 각 교도소에서 희망하는 전과 2범 이하의 수용자 중 잔여형기 1~7년 성인 남성 300~500명이 이소될 예정이다. 수감자 종교를 감안하고, 지원으로 입소된다는 점에서 소내 종교자유 문제보다 불교 등 타종교 수감자의 혜택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불교계 민영교도소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전국 47개 교도소·구치소에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4만 8000여 명이 수용돼 있고, 교도관 1인당 수용자는 3.3명. 외국(평균 1.3~1.7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의 교도소는 인력부족 및 수용과밀 등으로 재범률이 50%를 넘는 '범죄기술전수학교'로 전락한 지 오래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교정사업에 민간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이다.

정부는 민영교도소 도입에서 종교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경비절감을 위한 인권침해 등 일반 민영교도소의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 롤모델 브라질 휴마이타 교도소는 1984년부터 가톨릭이 수탁 운영해 재범률을 4%까지 낮춘 바 있다.

기독교계는 1995년 한기총 산하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를 발족시켰고,1998년 8월 김대중 정부의 민영교도소 정책 발표 직 후 공청회 개최, 토지매입 등 재빠른 행보를 걸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특정단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민영교도소법 제정에 대한 반대 성명만 발표했다. 민영교도소법이 제정되고 사업제안서를 통한 수탁선정이 2001년 12월 21일 기한으로 공표되자 12월 5일 불교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자가 없어 자연적으로 무산됐다.

민영교도소를 통한 수감자 교화와 사회 재적응은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일이다. 포교 분야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또한 일찍 밭가는 농부만이 풍작을 맞을 수 있다. 늦었지만 불교계도 제2 민영교도소 건립을 위해 다시금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문화재 관련 정책·행정 여전히 부실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지적 줄이어

올해초, 숭례문 화재 참사는 문화재 정책 및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문화재 관리·감독을 비롯한 정책 수립, 예산 집행 등 문화재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지적이 나와 제2의 숭례문 참사마저 우려케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월 21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가진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용경 의원(한나라당)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체 국보 309점 가운데 개인 소장품이 86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건희 前 삼성 명예회장이 25점, 삼성문화재단이 12점을 소유해 삼성 측이 전체 국보의 약 12%를 소유하고 있다"며, "국보나 보물의 소유 주체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가 감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한다"고 말했다.

방재시설 및 도난방지 시스템 미비 등 부실한 문화재 관리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허원재 의원(한나라당)은 "문화재청 궁능유적관리소 21개 기관의 소방시설을 점검 결과, 자체 소방살수차를 보유한 곳은 덕수궁이 유일하다"며, "화재재발을 방지키 위해 화재 대비 시스템을 잘 갖추라"고 주문했다.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전남 순천 선암사 보수 사진을 보이며, "선암사 보수공사에 10년간 100억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사후관리 부실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년간 198건 5449점의 문화재를 도난당했으나 이 가운데 47건 2099점만 회수돼 회수율이 38.4%에 그쳤다"며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소장처 323곳 중 도난방지시설이 없는 곳이 71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4~2007년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액에는 불용액(예산을 쓰지 않고 남는 금액)이 4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불용액을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난당한 문화재를 회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굴문화재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40여 년 간 전국의 유적에서 출토돼 국고 귀속이 확정되거나 확정 대상인 발굴 문화재 유물 35만여 점이 국가기관에 넘겨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발굴기관으로부터 인수하지 못한 유물이 15만점에 이른다. 유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유물이 발굴되면 발굴기관이 2년 안에 국가 귀속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조영택 의원(민주당) 등은 업무파악과 관련한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태도를 추궁했다. 안 의원은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테스크포스가 문화재청에 마련돼 있는지를 물었고, 조 의원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문화재청장을 질타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4년간 문화재 전문위원의 활용율이 50%대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 활용률이 50%대로 저조한 것은 문화재청이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17사단 호국연주사 신축법당 낙성법회



육군 17사단 호국연주사(주지법사 덕명) 신축법당 낙성법회가 10월 16일 봉행됐다. 봉불 점안의식, 낙성식, 개원기념법회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17사단장, 행정부사단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전계대화상에 고산 스님 추천

17일 원로회의서…31일 해인사서 대종사 12인 품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성수 대종사 후임으로 고산 대종사(쌍계사 조실·사진)를 전계대화상으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고산 스님은 조만간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전계대화상 임명장을 받아 11월 20일부터 3년간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고산 스님은 혜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48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또 2004년 5월 31일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스님은 쌍계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법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쌍계사에서 조실로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혜정 스님과 선진 스님이 대종사(승랍 40년 이상) 법계 특별전형을 통과해 10월 31일 오전 10시 해인사에서 열리는 품서식에서 대종사 법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법전 종정스님으로부터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는 스님들은 도문 스님, 혜정 스님, 지종 스님, 선진 스님, 명선 스님, 무진장 스님, 월서 스님, 혜승 스님, 정무 스님, 고우 스님, 현해 스님, 법흥 스님이다. 대종사 법계는 조계종 최고의 법계로서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 서열의 기본이다.

김성우 기자

"성철 스님 법문 통해…"

불교인재개발원 백일법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11월 13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교육관에서 '성철 스님에게 불교정법을 배운다' <백일법문> 강좌를 실시한다.

<백일법문>은 1967년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성철 스님이 동안거를 맞아 백일동안 설법한 법문을 정리해 펴낸 책이다.

이번 강좌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원철 스님(前 해인사 강사), 일묵 스님(해인사 백련암) 등이 강의한다. 서명원 신부(서강대 교수)의 특강 '내가 본 성철과 한국불교'도 마련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명, 동참금은 12만원. (02)735-2428

김진성 기자

"적게 쓰고 먹으며 심신 조화 이루자"

인성형 아동·청소년 비만치유 프로 발표회

청소년 비만을 치료하는 신개념 불교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3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비만치유학교 'The Less The More' 프로그램 개발 발표회를 갖는다.

'The Less The More'는 적게 쓰고 적게 먹음으로써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배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사찰음식 식단개발, 다도명상, 숲체험, 요가명상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적 먹거리를 활용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습관 변화와 생태적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발표회에서는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연구소장, 범우 스님(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도명상 강사) 등의 강연과 노숙령 교수(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조승미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의 논평이 진행된다. (02)723-5101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조계종 정기중앙종회 11월 6일 개회

조계종 제179차 중앙종회(종회의장 자승) 정기회가 11월 6~20일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기중앙종회에서는 14대 중앙종회 하반기 종회의장 선출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심의, 종무기관 종정 감사,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 등 종헌종법 제·개정 안건 등을 다룬다.

김성우 기자

'제20회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21~30일 '제20회 포교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분야별로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추천분야는 계층포교(어린이, 청소년 등) 직능포교(군, 경찰 등) 문화체육포교(연예, 스포츠 등) 사회포교(통일, 환경) 매체포교(방송, 인터넷 등)의 5개 분야다. 포교원은 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02)2011-1900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행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이·취임 법회

모시는 글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보전에 축원 드립니다.

민족불교 수호와 정화의 산실인 (재)선학원이 설립 8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립 조사들의 설립 이념을 계승하여 '대중불교의 전개'와 '화합'이라는 제2의 설립정신으로 미래의 (재)선학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에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제16대 이사장 도형 스님 이임식 및 제17대 이사장 법진 스님 취임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동참하시어 법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11월 5일 (음 10. 8) 오전 11시
- 장 소 : 중앙선원 대법당
- 문 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 02)734-9654~6 (재단사무국)

※ 화환이나 꽃다발은 정중히 사양하오며, 당일 후원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10월 2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은 학원정상화를 위한 108배 49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후 한 학생이 학교의 부당한 처사를 토로하다 울먹이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무더기 제적, 왜?

학교 측 vs 교수·학생, 음모와 횡포 주장만 되풀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분규가 10월 20일 학교 측의 미등록 학생 35명에 대한 제적 처분으로 접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서불대는 설립자 덕해 스님 원력으로 2002년 개교했다. 설립 당시부터 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몰고 왔던 서불대가 어쩌다 학생 35명 제적이라는 내홍에 시달리게 됐을까?

◇황윤식 총장 해임이 발단=사건은 6월 13일 이사장 지욱 스님이 당시 황윤식 총장을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덕해 스님 상좌인 지욱 스님은 "황윤식 총장이 일부 교수를 선동해 재단이사회를 전복하고 본교를 매각하려 한다"며 황 총장을 이사직과 총장직에서 모두 해임했다. 해임 사유는 사문서 위조와 직무유기.

7월 13일 교수협의회와 학생회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총장 해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내구성원 갈등에 위협을 느낀 학교 측은 8월 29일 설립자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직도 박탈했다. 하지만 황윤식 총장이 8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18일 총장해임무효가처분신청 법원 판결에서 총장 해임이 무효라는 확인에 새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학내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을 유보했던 학생들은 황 총장의 복귀가 확실시되자 총장 출근일에 한꺼번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황 총장 출근 첫날인 9월 23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윤식 총장을 직위해제 시켰고, 학생들의 등록금 납입 계좌를 막았다.

10월 8일 총장대행이 된 김영란 교수는 휴학을 않는 미등록생의 원칙적인 제적처리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이 불교계 언론 등 외부에 분규 사실을 알리자 14일에는 학내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 등록을 받아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15일 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과 뜻을 같이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제적 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나자 학교측은 휴학 및 조건부 등록을 수용하지 않은 학생 34명에 대한 제적처리를 강행했다. 18일에는 학생회장 문임숙씨의 교내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용역직원을 고용해 학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일 제적통보서를 수령한 학생들은 22일 학원정상화를 위한 108배 기도회 회향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등 법적절차 착수와 교과부 탄원서 접수 및 길거리 퍼포먼스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학교 측 독단에 막힌 소통=학교 측의 파행운영으로 학생은 제적됐고, 학교 행정실 직원 등은 인사조치 됐다. 학교 측에 부당함을 호소한 교수들도 신분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교수협의회 대변인 박성현 교수는 "현 이사장인 지욱 스님은 교무회의에서 공공연하게 '총장도 잘 랐는데 정년보장 교수라고 못 자를 줄 아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얼마 전 교수협의회 소속 두 교수에게 이사회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사직서'를 제안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등록금 계좌를 막은 것은 9월 19일까지 주었던 등록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라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등록거부가 아닌 학내사태 해결에 따른 등록유보였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학교에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된 학생들은 법원에 등록금을 공탁했지만 학교 측은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제적 처분이 끝난 10월 15일 이후에는 제적생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불대 사태 해법은?=교수·학생 등은 학교 측의 강경대응이 현 이사장 지욱 스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사장 지욱 스님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교수들에 의해 선동되고 사주 받아 이사회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 발전계획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 교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해 벌어진 일"이라며, "학생들의 제적을 초래한 책임은 교수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수 13명, 학생 160여 명의 소규모인 서불대는 재단의 제왕적 파행운영이 손쉬운 구조라 지적했다.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전태진 이사, 전형준 법인차장, 김봉회 이사 등 설립자 스님의 동생, 매재 등 속가 친인척과 도진·지욱 스님 등 상좌가 대부분이다. 전문교육자가 아닌 정실인사로 구성된 이사들로 서불대는 설립 초기부터 분규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 진단처럼 서불대 사태는 얽히고 설킨 이사회 구조상 자발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교계사학인 서불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불교계 위상이 하락될 것을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학교 관계자들이 조계종 스님들인 만큼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서불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대구경북대회 11월 1일 두류공원서 봉행

스님 1천명·불자 3만여명 이상 참여키로

11월 1일 오후 2시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당초 야구장에서 변경)에서 봉행되는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범불교도 결의대회'(이하 대구경북대회)에 스님 1000명 등 3만여 불자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대회 봉행위원회는 10월 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지도자 간담회를 열고 대회 주요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대회는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는 식전행사에 이어 2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된다. 대회에서는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 △각종 사회갈등 해소 및 공동체 정신 회복 △범불교 대책위 대구경북지부 출범 △성시화운동 참여 공직자에 대한 거부운동 △불교도들의 화합과 단결 및 호법의지 제고 등을 결의하며, 종교차별을 해소하고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불자행동지침'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관 스님은 "종단과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그릇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여법하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 스님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 상임위원장 원학 스님도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종교편향 행태로 불거진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가와 민족,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호계원장 법등, 직지사 주지 성웅, 동화사 주지 허운,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과 태고종 대구종무원장 경묵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 수혜정사, 법화종 대구종무원장 혜각 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 등 40여 불교 지도자가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지관스님 검찰 고발

친 개신교단체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이 10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의 고발 내용은 국가원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8·27 범불교도대회의 집시법 위반, 2007년 정부 종교지원금 불교계 편중 등이다.

이기영 사무총장은 "불교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2007년 불교계에 지원된 국고 147억 원(문화재관리비 미포함)이 각 종단에서 바르게 쓰여졌는가도 고발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소송이 진행되면 5년간 정부종교지원금 현황과 각 종단의 지원금 영수사항을 증거문서로 요청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은 제2의 새마을운동을 표방하며, 단군상 철거에 앞장선 친 개신교 성향의 단체다. 이기영 사무총장은 범불교도대회 직전인 8월 23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불교계가 오히려 종교편향 특혜를 받고 있다"는 기고문을 실었고, 9월 11일 한국교회언론인회 주최 '제8회 기독언론포럼'에서 불교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대구경북대회 성공 개최, 청년들 힘으로"

대불청 비롯 청년불자들, 대구 중심가 삼보일배

청년불자들이 대구 중심가를 삼보일배로 행진하며 정부의 종교편향 규탄 및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회장 이만희)는 10월 18일 대구역에서 '종교편향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불청 대구지구 회원 80여명을 비롯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운전불자기사연합회 등 불자 150여명이 동참해 종교편향방지법 제정 및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 참여를 촉구했다.

삼보일배는 대구역 사거리에서 반월당 네거리까지 2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삼보일배에 앞서 이만희 회장의 삭발과 결의문 낭독이 거행됐다.

이만희 회장은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참회와 국민 대화합의 길을 열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東大, 24일 '명예의 전당' 개관

발전기금 기부자 기념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를 위한 '동국대학교 명예의 전당'을 10월 24일 개관했다.

동국대 본관 3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은 고액 기부자 성명을 새긴 조형물과 대학의 역사와 비전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전당 벽면에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부자로 나눠 각각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과 함께 4대의 모니터에서는 동국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물이 상시 상영된다.

이선인 대외협력단장은 "기부자들을 특별 예우하고, 동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기획했다"며, "대학의 역사와 비전, 발전 계획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대한불교 조계종 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활인선원 개산개원법회

- 발원자의 뜻에 따라, 부처님 못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비봉산 활인선원
■ 일 시 : 11월 9일 (일요일)
□ 1부 - 부처님 점안식 9시 30분 (증명 : 원로위원 고우큰스님)
□ 2부 - 개산개원법회 10시 30분 (법문 : 원로위원 고우큰스님)
■ 전 화 : ☎ 031) 671-7707, 671-6610
■ 교통편 : · 11월 9일 7시 30분 개산법회일 조계사앞, 강남7호선전철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버스운행
·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죽산행 2, 30분마다 출발. 죽산에서 시내버스10번 4번째정거장 '한평' 하차
· 중부고속 일죽죽산IC에서 10분 거리. 영동고속 양지IC에서 20분. 경부고속 평택안성IC 40분

용인 비봉산 부처님 못자리 활인선원 (活人禪院)

단식과 간화선 삼매체험 수련회

- 용인 비봉산 활인선원 개원기념 7박 8일 집중수행 -

■ 금강단식과 참선의 특징
□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 몸에 끄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 신체적 자극을 통해 외부로 향한 타성을 내면의 세계로 회복하는데 단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뛰어난 수행의 방편이다.
□ 일상의 삶을 통해 접근하는 간화선 수행의 지름길을 찾는다. 7박 8일 동안에 집중으로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다.
□ 화두 참구의 길로 바로 들어간다. - 공부 힘이 생기면 생활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부 힘은 운명과 천성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고의 틀을 헐고 무한자재의 절대근원의 자아를 회복한다.

■ 금강단식과 참선의 효과
□ 체질개선 해독 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 - 1일 최고 3kg 고혈압 당뇨 위장 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치료 예방 절연 등 금단현상 없는 다양한 효과. 예비단식과 보식이 필요 없음.
□ 자아통찰로 운명 천성이 바뀜. 심신개벽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 예비단식 보식이 필요 없고,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카페 참조

뒤탈없는 금강단식으로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금강단식과 참선 접수 안내
□ 접 수 처 : 네이버 카페 '활인선원'에서 접수
□ 대상 및 일정 : 일반인 60세한 (7박 8일)
◆ 1차 → 11월 4일 ~ 11월 11일 ◆ 2차 → 카페 참조 ◆ 매월 수련회 개최 예정
※ 자원봉사 모집 : 수련회 기간중 자원봉사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 회비할인 및 모집인원 : 선착순 55명, 10월 29일까지 등록시 25% 할인 (카페 수련회 안내문 내용 참조)
□ 입금계좌 : 농협 237086-51-088910 (예금주 - 활인선원)
□ 연 락 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비봉산 活人선원 ☎ 031)671-7707, 671-6610

보문사, 석주 스님 추모법회·비 제막식

불교아동문학회 성금모아 추모비 조성



온양 보문사(주지 송운)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석주당 정일 대종사의 4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불교아동문학회(회장 신현득) 회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석주 대종사 추모비 제막식도 함께 봉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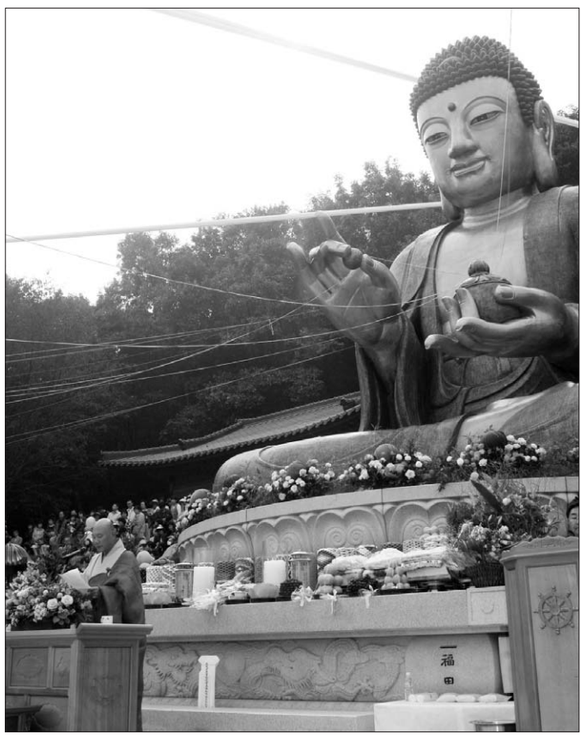
석주(1909~2004 · 사진)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제8대, 15대, 23대)과 선학원 이사장(제 6대, 1961~1964) 등 종단 요직을 역임했다. 어린이 포교에서부터 노인복지, 군포교, 교육불사, 역경사업, 종단행정 등 근현대 한국불교에 그 원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불교포교에 큰 종적을 남겼다.

석주 스님의 어린이 포교 원력으로 발족한 불교아동문학회는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불교아동문학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02)734-9654

김성우 기자

하늘 높이 풍선 날리며 통일기원

파주 약천사 약사여래 점안법회 성황



파주 심학산 약천사(주지 허정 · 사진) 약사여래대불 점안 및 남북통일기원대법회가 10월 19일 오전 11시에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 삼보사 회주 지원 스님, 유화선 파주시장, 신충호 파주시의회 의장 등 불교계와 지역 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참회하고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천사 주지 허정 스님도 "남북통일 기원 약사여래부처님 봉안 기도 공덕으로 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고 인류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참가자 전원이 풍선 날리기를 통해 통일을 기원했다. 저녁 6시부터는 주민화합 산사음악회가 열려 송대관, 원미연, 이광조 등의 유명 가수들이 흥겨운 무대를 장식했다.

임연태 기자

지자체, 고승 선양사업 '눈길'

영덕군 나옹 왕사 사적비 완공-하동군 서산 대사 유적지 복원



영덕군은 10월 21일 창수면 반송정에서 나옹 왕사 사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지자체들이 고승 선양사업을 통한 역사 · 문화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영덕이 낳은 고승-나옹 왕사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10월 21일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소재 반송정 일원에서 나옹 왕사 사적비 제막 및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사적비 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나옹 왕사 사적비는 좌대 포함 47톤 무게에 가로 5.0m, 높이 3.4m, 폭 0.8m 규모로, 풍화에 강한 보령오석으로 제작됐다. 사적비문은 지관 스님이 직접 근찬했으며, 글씨는 향토서예가 초당 이무호 선생이 제작했다.

영덕군은 사적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나옹 왕사가 창건한 장육사 인근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나옹 문화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총 2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기념관, 불미골(생가), 역사전시마당 등 선양사업 ▲3대 화상벽화, 시화전시마당 등 추모사업 ▲호예석벽, 나옹계곡 정비 등 주변시설 확충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경남 하동군(군수 조유행)은 서산 대사 유적지 복원에 나섰다. 현재 경산대 경남문화연구원에 총 5000만원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하동 지역내 서산 대사 유적을 개발해, 역사와 교육, 관광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동지역 내 서산 대사의 유적은 대사가 <선가귀감>을 저술한 화개면 범왕리 내은적암과 대사의 영정이 봉안된 쌍계사, 원통암과 칠불암, 신흥사, 불일암과 불일폭포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동산반야회 26돌기념·안동일 이사장 취임법회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은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동산 26주년 기념 및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초대 故 김재일 이사장의 뒤를 이어 제2대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안동일(사진) 이사장은 1993년 동산불교대학 3회 과정을 졸업하고, 故 김재일 이사장과 함께 전국염불만일회와 붓다클럽을 이끌어 왔다.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중앙협의회 상임의장, 경불련 공동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 붓다클럽 총재를 역임했고, 현재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조계종 법률고문 등을 맡고 있다. (02)732-1206

노덕현 기자

동화사, 東亞 10대 관광명소에

대구시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신라 고찰인 동화사(주지 허운)가 아시아 10대 관광명소로 선정됐다고 10월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팔공산 자락에 들어선 동화사의 예술성과 역사성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셈"이라며 "10대 관광명소 지정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화사 이외의 10대 명소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인도 태희능 등이 선정됐다.

김성우 기자

가람지기 재무관리 4.0 프로 개발완료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사찰 종무전산화 지원의 일환으로 재무관리 3.0버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 프로그램 안정성과 속도 향상, 편리한 사용 환경을 구현한 가람지기 재무관리 4.0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손쉬운 계정과목의 관리 및 검색기능을 강화해 일별, 월별, 연도별 예산 운용 현황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템플스테이 계정과목 및 사찰 회계기능을 추가, 사찰 재무회계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9월부터 조계사, 봉은사, 송광사(완주), 금선사, 통도사에 설치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10월부터 교구본사 및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신청 사찰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2011-1730

김성우 기자

갑사, 영규 대사 추모재와 음악회 봉행



공주 갑사(주지 태진)는 10월 25일 창건 1588주년 기념 개산대재와 영규 대사 추모재를 봉행했다. 일면 스님(조계종 군종교구장), 법용 스님(마곡사 주지), 지송 스님(공주사암연합회장)과 육해공군 군승단장 등 1000여명이 동참한 행사는 괘불(국보 298호)이운으로 시작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삼보조계종 수성 대종사 49재 추모회향법회



대한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10월 16일 칠곡 위봉사에서 '법현당 수성 대종사 49재 추모회향 및 영결식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삼보조계종 스님 300여명과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제6회 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정기연수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안동일)는 10월 18~19일 문경 김용사(주지 해창)에서 제6회 연합포교사 정기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불교(교양)대학 출신 연합포교사 600여명이 참석해 포교 및 신행체험 사례를 발표하고, 108배 참회정진 등 불법홍포의 원을 다졌다. 노덕현 기자

일광종 합동 수륙방생 천도 대법회 봉행



(사)대한불교일광종(총무원장 보혜)은 10월 21일 경기 양평군 문호리 일광사 야외법당에서 합동 수륙방생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임원과 각 종단 지도자 등 7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일광 스님은 "수륙재의 의미를 되새겨 생명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02)2207-7198

참 나를 찾는 구법여행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대법회

대각정사는 참 나를 찾는 구법여행의 첫 출발점으로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큰스님들의 법력과 원력은 하늘도 땅도 감동시킵니다. 법력 넘치는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키워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다겁의 지은 업장을 모두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26월 ~ 2009년 1월 18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각정사 대법당 (해운대 선프라자 825호, 826호)
■ 문의 : (051)731-2300, 731-3104

※ 특별수계법회 :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에 동참하여 1회부터 7회까지 참석한 불자님에게는 큰스님의 증명으로 보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정사
회주 홍교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주지 대풍 범각 합장

【법회 일정】 격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2008. 10. 26 (음 9. 28) 입재	대각정사 주지 대풍 범각 스님
2008. 11. 02 (음 10. 5)	성수 큰스님
2008. 11. 09 (음 10. 12)	백운 큰스님
2008. 11. 23 (음 10. 26)	선래 큰스님
2008. 12. 07 (음 11. 10)	도업 큰스님
2008. 12. 21 (음 11. 24)	홍교 큰스님
2009. 01. 04 (음 12. 9)	지성 큰스님
2009. 01. 18 (음 12. 23)	원종 스님



밝은 미래를 위한 한마음 합소리

수덕사 대웅전 700돌…스님 · 신도 독경 '장엄'

17~19일 수덕사 창건 1409주년 개산대재 봉행

선종본찰에서 법화경 독경대법회 연 까닭?

수덕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 지명(知命) 법사가 창건했으며, 백제 무왕 때 숭제(崇濟) 법사와 혜현(惠現) 스님이 북부 수덕사에 거주하면서 법화삼론(法華三論)을 강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속고승전〉과 〈삼국유사〉의 "혜현 스님이 입적한 후 석실 안에 모셔둔 스님의 유해를 호랑이가 씹어먹었으나 혀만은 남겨두었다"는 기록은 구마라즙 법사가 다비식 이후에도 혀가 타지 않고 남은 이적과 유사하다.

인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불성(佛性)을 확신하고 계발할 것을 설한 〈법화경〉의 가르침은 '본래성불(本來成佛)'을 강조하는 선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수덕사는 '사람이 부처'임을 강고한 〈법화경〉사상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부처 아들(佛子)'로 살아가길 염원하며 이번 법회를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두루한 삼보님께 귀의하오며 광대한 서원을 세우고 이제 〈법화경〉 여래수량품을 독송하옵니다."

산과 들이 옷을 바꿔 입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 국화 100만송이로 도량을 장엄하고, 1000여 스님과 4000여 신도들이 함께 〈법화경〉 '여래수량품'을 독경하는 '야단법석'이 백제불교의 성지 수덕사에서 재현됐다.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는 국보 제49호 대웅전 건립(고려 충렬왕 34년 · 1308) 700주년을 기념, 10월 17~19일 경내에서 기념대법회와 사찰 창건 1409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1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8일 독경대법회와 행사기간 내내 박물관 특별전, 전통건축 미니어쳐 전시회, 만등 점등식, 수덕사와 인연이 깊은 고암 이응로 화백 고택복원 1주년 기념전이 경내 곳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18일 봉행된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 독경대법회는 1000여 스님과 4000여 불자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법화경〉을 독경하며 국태민안과 나라발전을 기원한 장엄한 의식을 연출했다. 독경대법회에 참석한 5000여 독경 대중을 비롯한 1만여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외우며 국 · 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모두 화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염원했다.

〈법화경〉 송경의식에 앞서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법화경〉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아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설하신 경전"이라며 "오늘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독경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덕사 수좌 설정(사진 왼쪽 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 스스로 부처님이란 사실을 믿고 모든 이를 부처로 볼 때 온갖 시비와 갈등이 사라지고 진실한 언행을 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극복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지명 법사께서 산문을 열은 곳(智明法師開門處)/ 빈 덕숭산에 끝나지 않는 광장의 설법이어라(德崇山空廣長舌)/ 종횡자재함을 그 누가 알 것인가(縱橫自在誰能識)/ 한길 신령스런 빛이 고금을 비추더라(靈光一道古今曜)"는 게송을 읊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격려법어를 통해 "선종 본찰에서 천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런 수승한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법회 관계자를 치하하고, "수행자든 세속인이든 편하게 살지 말고 정당한 노력으로 각자가 바라는 모든 일을 성취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대법회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동춘 · 명선 · 정무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대회 봉행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1만여 대중이 참석했다.

글 · 사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현장속으로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 품 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6㎝, 화면크기 : 5㎝×4㎝, 기기두께 : 0.8㎝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범 1부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I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문



안성 활인선원 개원법회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사 조실)은 11월 9일 오전 11시 안성 활인선원(원명선원 중앙연수원) 개원법회서 법문한다. (031)671-7707



제8회 전국 강원 교직자 연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10월 30~31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제8회 전국 승가대학(강원) 교직자 연수'를 실시한다.



2008 환경책 큰잔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0월 24~2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08환경책 큰잔치'를 개최했다.



실천승가회 승려노후복지 세미나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는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승려노후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평화세상 발원 10만등 점등법회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10월 17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10만등 점등법회'와 흥녕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낙산사 빈일루 상량식 봉행

양양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조계종 재무부장)은 10월 18일 빈일루 상량식을 봉행했다. 1888년 건립된 빈일루는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



강원지자체 템플스테이 체험행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10월 24~25일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문체부와 강원지자체 관계자를 초청, 템플스테이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취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진화 스님은 10월 15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장애인 300명 무료급식 및 노래자랑이 개최됐다.



충북광역신도회 김정길 회장

조계종 충북광역신도회 김정길 회장은 10월 15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제4회 의지나눔 운동에 동참

박준 원장(박준 뷰티랩)은 10월 15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4회 의지나눔(Sharewill) 운동'에서 청소년과 장래 상담 등을 펼쳤다.

"산하 570개 사찰 역량 모아 복지불사 나설 터"

선학원 제17대 이사장 법진 스님 11월 5일 취임



"설립정신을 계승해 법인산하 350개 분원과 220개 포교원의 역량을 모아 사회복지사업 등 대사회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5일 서울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재)선학원 제17대 이사장에 취임하는 법진 스님(**사진**)은 "'민족불교 수호'와 '승풍정화'라는 선학원 설립정신을 이어 '대중불교의 전개와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진 스님은 10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하 570개 사찰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뒤, 선학원 규모와 시대이념에 맞는 공익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우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해 재단법인 차원의 다양한 복지불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조계종과 타종단, 이웃종교,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도 마련해 다문화 사회에서 대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2002년 합의서 작성 후 유지되고 있는 조계종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상시 대화창구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은 연원과 뿌리를 같이하고 있기에 선학원 소속스님들의 참정권 제한 등의 현안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임식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계종풍의 뿌리인 선학원답게 수행 기풍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1921년 선학원 설립 때부터 문을 연 시민선방을 더욱 개방하고 수행 및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1사찰1논문 지원, 선리아카데미 설립, 선학원 역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선리연구원의 활성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10월 22일 서울 중앙지법에 '선학원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철오 스님과 관련, 스님은 이사회가 9월 4일 적법절차에 따라 열린만큼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법진 스님은 1970년 범어사에서 석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3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을 수료한 후 동국대 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조계종 사회국장과 정법사 주지,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월곡청소년센터 관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1992년 선학원 상무이사 소임을 맡은 후 중앙선원장 등 선학원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도 맡고 있다. **김성우 기자**

"대불청 자립기반 확립"

대불청 제25대 정웅정 신임회장



10월 19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된 정웅정 후보(법명 임연 · **사진**)는 "젊은 시절과 인생의 대부분을 대불청과 함께 했다. 그만큼 더욱 애정과 원력을 가지고 대불청 자립기반 확립과 청년포교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웅정 당선자는 1988년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대불청 서울지구 회장을 4년간 2회 역임했으며, 17 · 18 · 20 · 21 · 22대 대불청중앙회 부회장을 지냈다.

1986년 해인사 종진 스님을 계사로 오계수지했으며, 1991~1995년 불교인권위원, 1997년 중앙신도회 총무부장, 1999~2000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정 당선자는 "대불청이 역사나 규모에 비해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임기동안 내실을 다져내 · 외적으로 교단외호와 사회참여에 나서겠다"며 "단기적으로는 불청리더십교육과 지도자연수, 전국회원수련대회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민해리더십센터와 불청회관 건립을 추진해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관 건립과 대불청 재정안정화를 위해 CMS회원 1000명 이상 확보, 회관건립 천인결사운동을 전개해 임기 내 5억원 이상을 모금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대불청 인재 양성 ▲사회공헌 강화 ▲중앙회 서비스체계 강화 ▲불청회관 건립 추진 ▲CMS 통한 재정자립 등을 비전으로 제시한 정웅정 당선자는 "모든 대불청 회원들은 교단외호와 불법홍포, 청년회 발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 불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불청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5대 회장 취임식은 신년 1월 경 조계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수익창출해 불교계 회향"

제2회 한국여성불자상 수상 정옥진씨



"저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봉화회 전체가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회 한국여성불자상 수상자 정옥진(76 · 봉화회 · **사진**) 회장은 봉화회 회원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겸손한 소감과는 달리 정옥진 회장은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보현행원을 펼쳐온 봉사활동의 선구자다. 조계종 총무원장상(1982년), 서울시장표창(1987년), 국무총리상(2002년) 등 화려한 수상경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옥진 회장은 26세에 조계사와 인연을 맺어 신도가 된 후 조계사 합창단 총무, 포교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86년부터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화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사회봉사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 몇몇 사람이 모여 고아원에 적은 돈이라도 기부하려던 것이 어느새 50명의 회원이 있는 봉사단체가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복지관에서, 토 · 일요일에는 실직 근로자 부랑인 쉼터 '보현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활동 틈틈이 조계종 총무원 봉축위원회의 일손을 거들기도 한다.

"보람을 기대하기보다는 단순히 내가 좋아서하는 일인 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국립의료원에서도 봉사활동할 예정이에요."

쉴 틈 없는 일정이지만 정옥진 회장의 얼굴에서는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정옥진 회장은 최근 봉화회 이름으로 '연밥을 활용한 사업' 특허를 받았다. "외부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불교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 불교계로 회향하는 것이 목표"라는 정옥진 회장의 불심은 언제나 청춘이다. **김진성 기자**

법보신문 창간 20돌 기념법회 봉행



교계 첫 독립언론 법보신문사가 창간 20돌을 맞아 10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도봉사, 동암성수 스님 39주기 추모재 봉행



서울 도봉사(주지 영봉)는 10월 21일 동암성수 스님 제3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 현수 스님(월정사 한주), 해안 스님(도봉사 회주) 등이 동참했다. **조동섭 기자**

옥천경찰서 경승회, 모범경찰 표창



옥천경찰서(서장 김창수) 경승회는 '제6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0월 21일 모범 경찰관과 지역 인사들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전동호 경불회장, 강구환 총무 등이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혜철 충청지사장**

청주 상당경찰서 불자회 중흥법회 봉행



청주 상당경찰서(서장 나경옥)는 10월 17일 경찰서불자회 중흥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경찰 및 경승회 실장 일송 스님과 태고종 연꽃합창단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불기협, 한국불교 큰일꾼 체육대회 개최



서울 조계사, 불광사, 조계종 원우회, 한국불교기자협회는 공동으로 10월 18일 김포 중앙승가대 운동장에서 '한국불교 큰일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우승은 불광사가, 준우승은 조계사가 각각 차지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6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사형집행 등 '제도적 살인' 시각차 커

해외불교칼럼

스무 해 남짓 선불교를 수행해온 뉴욕의 바브라 오브라이언 보살님은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다. 10월 1일 그분이 웹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현재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은 두 후보의 진영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 다만 몇 개 주의 선거에서 작은 쟁점으로 떠오를 뿐이다."

이어 불자로서 소견을 밝혔다. "사형이란 범죄자 및 범죄자로 판단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 제도적 살인행위다. 사형제도는 불교의 비폭력과 자비의 교의에 명백히 어긋난다. <법구경>의 말씀이다. '누구나 폭력에 떨며 죽음을 두려워하니, 나 스스로 남의 처지가 되어볼진대 남을 살상하지 못하며 남의 살상행위도 막으리라.' "

한편, 금년 6월과 7월에 걸쳐 태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국제행사가 개최됐다. 불교계의 적극지원을 받은 '자유시민연대'는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의식계몽캠페인과 일련의 세미나를 통해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15일 영국 BBC의 특별칼럼 '불교와 사형제도'를 발췌 소개한다. 불교철학에 대한 서구인의 이해가 일부 반영된 글이다.

불교는 세계 각처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지니기가 쉽잖다. 아무리 고결한 선근(善根)도 다른 생명체의 심신을 해친다면 결코 선행이 되지 못한다. 붓다는 극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육체적 처벌은 말라 가르쳤다. '누군가 내게 해코지를 할지언정 나는 가엾는 사람으로 그를 감싸 안아야한다. 그의 그릇됨이 더할수록 나의 고운 뜻은 더 커짐을 잊지 말라.'

불교는 생과 환생을 함께 중요시해 이렇게 가르친다. '과도한 처벌은 범죄자와 가족친지는 물론 처벌자의 심성에 동시 상해를 가한다. 또 사형집행의 경우, 범죄자와 처벌자 모두 내세에서 영적 위해(危害)를 피할 길이 없다.'

범죄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벌로는 비행(非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보편적 인간애마저 파괴한다. 그보다는 교도(矯導)가 범죄자에 대한 최적의 처리방식이며, 교도행정은 범죄자를 바로잡아 사회로 복귀시킴을 최종목표로 시행돼야 한다. 죄질이 극심해 범죄자에게 최소한의 관용마저 베풀 수 없는 경우, 사회로부터 종신 격리시키거나 오지로 유배를 보낼 수도 있다. 사형제도는 태국처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불자인 국가에도 여전히 존속한다. 대자대비를 지향하는 불교가 주류를 이룬 국가들조차 제도적 살인행위를 용인하는 까닭은 뭘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해당국가의 위정자들이 범죄억제와 징벌에 있어 사형이 가장 효율적인 장치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국가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극형은 전통적 타성 또는 종교 문화적 관습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국가의 경우, 엄격한 법치질서가 불가의 가르침보다 우선할 것이다. 태국과 같은 승려 중심의 사원불교, 그리고 미국처럼 세속불자 중심의 민중불교는 제도적 살인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인다.

여기까지가 BBC의 일부 인용이다. 이제 불교 사회학의 권위자인 선손 프라민터 박사의 현실적인 견해를 들어보자.

"범죄다발지역에서 순찰임무를 수행하는 불자 경찰관 및 일촉즉발의 최전선에 배치된 불자 군인, 그리고 고요한 선방에 앉아 참선하는 승려 모두가 불제자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마를 추구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체험을 한다. 예컨대, 불자인 경찰관이나 군인은 직책 상 불가피한 인명살상을 포함한 임무를 지닌다. 이마저 제도적 살인이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천진한 아둔함이다."

문득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군부독재저항운동 당시 승려들을 무차별 살상한 일부 군인들에 관한 외신보도가 떠오른다. 이른바 치안유지의 명분으로 제도적 살인행위에 투입됐던 그들 중 일부는 자살하거나 탈영 또는 망명했다. 그 군인들은 잘못된 때에 잘못된 곳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부모처자를 부양할 책임과 갈가리 찢긴 불심 사이에서 그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참으로 안쓰러운 카르마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BBC, ABOUT, BCT

"that's Emptiness"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그것이 즉 공(是卽空)이로고"



The master asked one of his disciples, "Can you get hold of Emptiness?" "I'll try," said the monk, and he cupped his palm in the air. "That's not very good," said the master. "You haven't got anything in there!" "Well, master," said the monk, "please show me a better way." Thereupon the master seized the monk's nose and gave it a great yank. "Ouch!" yelled the monk. "You hurt me!". "That's the way to get hold of Emptiness!" said the master. An old bosalnym overheard it and murmured with a deep sigh, "Having served them food over the past 10years, that's Emptiness."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공(空)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네, 해보겠나이다." 제자는 허공에 손바닥을 찻잔처럼 우묵하게 오므렸다. 선사가 말했다.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붙잡질 못했잖느냐?" 제자가 물었다. "하면 선사님께서 더 나은 방도를 일러주소서." 그러자마자 선사는 그의 코를 콱 움켜쥐더니 확 비틀어버렸다. 제자가 소리를 내질렀다. "아야!" 선사가 말했다. "공(空)은 바로 그리 붙잡는 게야!" 그걸 건너들은 노보살님이 중얼댔다. "저분들한테 10년이 넘도록 공양을 지어올렸건만." 그리곤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즉 공(是卽空)이로고."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그리움의 책' 음악으로 글래스·코언 공동창작

미국의 극소주의 작곡가인 71세의 필립 글래스와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수 겸 록 시인인 74세의 레너드 코언이 공동창작을 발표했다.

이 두 거장은 코언의 시집 <그리움의 책>을 음악에 접목한 작품으로 금년10월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국제예술제의 전야제를 밝혔다.

필립 글래스는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 등 지난 40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불교도반이다.

1967년 앨범 '레너드 코언의 노래'를 발표한 이래 한 시대를 풍미한 레너드 코언은 1996년 수계한 불교승려로 이번 두 도반의 합작 자체가 국제 홍법의 큰 의의를 지닌다.

출처; The Age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브루스 조엘 루빈 ❸

구루 루디에게 영적 위안 받아

60년대 초반까지도 많은 서구인들은 불교를 힌두교 등 여러 동양철학과 혼동하곤 했다. 이들이 생겨난 지역이 대체로 같고 정신문화의 유산 역시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동양종교철학의 분파들은 더불어 사는 공존을 지향한다. 따라서 뿌리가 다른 외래종교에 관대하며, 유태-기독교-이슬람의 분파들처럼 서로 적대감의 칼날을 세우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적 환경에서 극단적 양분사고와 상호배척을 배워버린 서구인들은 동양의 종교철학을 선뜻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혀로는 사랑을 들먹이나 실제로는 '가르고 베고 찢기'를 가르치는 신성모독적 위선과 독선에 너무 오래 길들여진 탓이다.

말한다. "완전함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완전함이란 바로 당신의 자아 속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넘어가 얼떨결에 5달러를 내고 불상을 사버린 브루스는 이렇게 회고한다. "허, 진짜 기막힌 상술(商術)이었죠." 루디는 훗날 브루스의 작품 '사랑과 영혼'에 등장하는 어수룩한 심령술사 오다메를 떠오르게 한다. 두 인물 모두 선뜻 믿자니 좀 미심쩍고, 아예 안 믿자니 뭔가 그럴싸한 게 있을 듯 꽤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풍긴다.

브루스와 루디의 인연은 거의 두해 뒤 다시 이어진다. 그 동안 브루스는 그 불상을 품에 안고 떠돌이거지 꼴로 인도, 네팔 등지의 사원에서 구도행각을 한다. 그러다 네팔에서 첩자혐의로 강제 추방

힌두교·요가 통해 종교로서 불교에 우회접근
부인 블랑쉬, 스물 다섯 해 동안 참선수행 도반

아무튼 그들 중 일부는 힌두교나 요가 등을 경유해 불교에 우회접근을 하기도 한다. 극작가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의 경우도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에게 불연(佛緣)의 첫 실마리를 이어준 이는 요가의 대가 스와미 루드라난다다. '루디'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진 루드라난다라는 인물부터 잠시 살펴보자.

루디는 본명이 알버트 루돌프인 유태계미국인으로 1930년대 경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시절에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란다. 그는 열 살 즈음부터 온갖 막일을 하며 참담한 유년기를 보낸다. 그런데 특출한 신통력과 교감능력을 지닌 그는 줄곧 영적 계시와 안내를 받는다. 고학으로 대학을 마친 그는 미국과 인도에서 티베트 라마와 힌두교 성자의 지도를 받아 마침내 '자아를 지닌 분'이란 의미의 스와미 루드라난다라는 칭호로 거듭 태어난다.

한편, 그는 경영수완이 탁월한 사업가였다. 뉴욕의 7번가에서 동양미술품 구멍가게를 시작해 마침내 루디스 점방(Rudi's Store)이란 유명 동양예술품 딜러로 성공한다.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다. 그의 가게에 들린 브루스 조엘 루빈은 달랑 5달러를 쥐고 유리 상자에 담긴 아주 작은 불상을 기웃댄다. 그의 관심과 주머니 사정을 알아차린 루디는 그에게 그 불상을 꺼내준다. 브루스는 불상은 좋으나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며 거절한다. 그러자 루디가 돼 뉴욕으로 돌아온다. 그는 현지에서 함께 굶주리던 승려들에게 먹을거리라도 좀 보내주고 싶었다. 그래서 네팔에서 가져온 카페트 몇 장을 들고 루디의 가게에 들른다. 그의 구도행각을 들은 루디가 묻는다. "그래서 스승은 만나셨나요?" 브루스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자 루디가 말했다. "그럼 당신이 알고픈 걸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다시 브루스의 회고다. "그 순간 저는 루디의 진심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절실히 느꼈어요. 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루디를 스승으로 받아들인 순간 이미 또 다른 인연의 실마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바로 그날 저녁, 브루스의 친구들은 긴 여로에 지친 그에게 참한 블랑쉬란 여자 친구를 소개해준다. 루디로부터 힌두철학과 티베트 불교 등을 배우던 브루스는 두해 뒤 그녀와 결혼한다. 그 후 이들 부부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함께 참선하며 아름다운 불심을 엮어간다. 미국 사회는 1950년대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앙적 불신감과 영적 허탈감 속을 헤맨다. 1930년대의 경제공황에 이어 영혼공황(Spiritual Depression)의 악몽에 시달린 것이다. 미국에서 불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도 그즈음이다. 브루스에게 영적 위안을 베푼 구루 중 하나인 루디는 1973년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다.

-계속-

성휴 스님

봉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축
산사음악회 및 서화문화축전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11월 8일 오전 10시



불자여러분!
11월 8일 불자님들께서 정성으로 필사한 법화경사경을 탑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대법회가 천안의 구룡사에서 봉행됩니다. 아울러 8인의 불자가수들이 2년여에 걸친 작업끝에 완성한 법화예찬의 노래발표회와 한국을 대표하는 서화문인들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가훈과 뜻 깊은 문장을 서예작품으로 써주는 문화축제도 함께 열리는 바 많은 분들의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주 석도림 합장



장소 :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041-552-9666~8) 일시 : 불기 2552년 11월 8일 문의 : 02-928-1331

“‘금강삼매경’ 중국 삼계교도가 편찬”

석길암 연구교수 주장

원효 스님이 론을 지어 널리 알려진 <금강삼매경>을 두고 학계에서는 중국에서 위찬됐다는 설과 신라에서 재편됐다는 설 등이 분분했다. 이런 가운데 이 경전이 중국 삼계교도들에 의해 편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석길암 연구교수(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10월 18일 법련사에서 개최한 제83차 월례학술대회에서 ‘<금강삼매경>의 성립과 유통에 대한 재고’를 발표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금강삼매경>의 유통계기가 신라였다 해도 경 자체가 신라에서 만들어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경전 구조와 청법자에 보이는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삼계교 인물들이 찬술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석 연구교수는 “미즈노 고겐을 비롯해 김영태 교수, 김상현 교수, 이시이 코우세이, 신규탁 교수 등 <금강삼매경> 진위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고도 말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금강삼매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검토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분리 검토의 필요성 ▲<개원석교론>에 편입된 <금강삼매경>의 문제 ▲신라의 위경편찬 가능성을 지적했다.

석 연구교수는 “<금강삼매경> 구조가 <화엄경>을 연상하게 한다”며, “비구와 보살, 장자 등으로 다양화된 <금강삼매경>의 청법자는 모든 대중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미즈노 고겐의 주장처럼 <금강삼매경>에 현장의 신역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삼계교의 보경사상이 설해졌다는 점, 삼계교 특유의 여래장불 · 형상불 등의 용어군이 사용된 점을 들어 <금강삼매경>과 중국 삼계교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석 연구교수는 7세기 신행에 의해 시작된 중국 삼계교에서 <금강삼매경>이 찬술된 이유에 대해 “정토교 등과 경쟁하면서 신행의 인물상을 주역으로 하는 경설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어 그는 “600 · 695 · 699 · 721 · 725년 삼계교에 금령이 내려지면서 중국 내 유통이 불가했던 반면, 신라 의상 스님 등에 의해 신라로 유입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권탄준 교수(금강대)는 ‘화엄의 수행도에서 발보리심의 의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화엄의 이치가 설해졌으며 자신으로부터 진리가 현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치온 교수(진각대)는 ‘마하연의 선법연구’를 <돈오대승정리결>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10월 18일 법련사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월례학술대회에서 석길암 연구교수(가운데)는 “<금강삼매경>은 중국 삼계교도가 찬술했다”고 주장했다.

‘금강삼매경’을 둘러싼 학계의 진위논란

<금강삼매경>의 진위문제를 처음 거론했던 일본 석학 故 미즈노 고겐 박사는 1955년 7세기 후반 신라에 출현한 이 경에 현장의 신역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650~655년경 중국 산동이나 요동 지방에서 출현한 위경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야나기다 세이잔 교수(일본 교토대)는 미즈노 고겐의 설을 발전시켜 “

동산법문 계통에서 <금강삼매경>을 찬술했을 것”이라 주장했고, 1976년 기무라 센쇼 교수(일본 오타니대)는 “신라 승려 대안 스님이나 원효 스님의 주변 인물이 찬술자일 것”이라 추정했다.

1985년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대)는 “신라승려 법랑이 <금강삼매경> 찬술자일 것”이라 주장해 이 경이 신라에서 찬술됐을 것이라는 학계 추정을 굳혔다.

한국학자 가운데는 김영태 교수가 “중국 위경이 아닌 신라에서 불설의 진수를 재결집했다”며, “신라승려 혜공이 찬술했다”는 주장을 펴 신라성립설을 세웠다. 여기에 故 고익진 · 이기영 박사 등이 동산법문계의 찬술을 반대하고, 신라성립설을 지지했다.

국내학자 중에는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처음 <금강삼매경>의 신라성립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었다.

최근에도 남동신 교수(덕성여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이시이 코우세이 교수(일본 고마자와대) 등이 <금강삼매경>과 동산법문의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 정비사업 들어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0월 20일부터

대표적 통일신라시대 탑으로 불국사 삼층석탑에 비견되는 술정리동삼층석탑(국보 제34호) 인근 절터의 시굴조사로 본격적인 창녕지역 불교문화 조사 고찰이 시작됐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창녕군 의뢰로 국보(제34호)인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이 서 있는 절터를 정비하기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10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창녕군이 추진 중인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1차년도 사업으로 유적 전면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절터 범위와 구조를 확인해 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게 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1965년 해체 · 복원 당시 이동된 탑의 원 위치를 찾아 탑 하부구조를 확인하는 조사 및 동탑과 관련된 가람구조, 사명(寺銘) 확인 등을 통해 창녕지역 불교문화 양상에 대한 파악 · 고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술정리동삼층석탑은 학계 일부에서 창녕 탑 · 금당치성문기비(보물 제227호)에 나타난 인양사(仁陽寺) 탑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965년 해체 · 복원 당시 3층 몸돌에서 사리와 청동잔형사리용기 등을 비롯한 사리장엄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가 발견돼 주목받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

조선불화 日 수용과정 재조명

동악미술사학회 10월 18일 월례발표회



10월 18일 동악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김순아 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이 불연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윤범모) 제48회 월례발표회가 10월 18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열렸다.

이 날 발표회에서는 정우택 교수(동국대 미술사학)가 주제발표 ‘일본 아이치현 지역 조선전기 불화의 현황’에서 조선불화의 수용과정 등을 재조명했다. 김순아 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불교의식법구 불연 고찰’을 통해 불연의 형태와 명칭, 용도와 역할 등을 설명하고 불영사(칠성각) 봉연 등 12점의 묵서의 제작 양상을 살폈다.

조동섭·김진성 기자

청담사상세미나 열어

진주산업대 부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구)는 11월 11일 오후 2시 진주산업대 학생회관 공연장에서 제7회 청담사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박병기 교수(한국교원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김광식 교수(부천대), 김선근 교수(동국대) 등이 청담 스님의 포교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055)751-3699

조동섭 기자

옻칠조형학과 개설

동방대학원대학교

전통공예 옻칠을 연구하는 학과가 대학원 과정에 개설돼 눈길을 끈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 이하 동방대학원)는 국내 최초로 옻칠조형학과를 개설하고 2009년 1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한다.

옻칠조형학과는 옻칠화와 민화 및 벽화 중심의 옻칠 평면작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를 연구하는 옻칠회화학 전공, 건칠 혹은 탈태칠이라 불리는 협저칠과 판화제작기법 이론을 연구하는 입체옻칠학 전공, 전통의 터전에서 현대디자인 분야를 연구하는 조형디자인 전공의 3개전공으로 구성됐다.

교수진은 권순섭 교수와 석좌교수로 김성수 관장(통영옻칠미술관)이 참여한다. 권순섭 교수는 “전통문화인 옻칠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문화창달의 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국 옻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잘 죽기’ 불교적 해결책 제시

불교여성개발원 11월 5일 ‘웰다잉’ 세미나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비롯해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는 때,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운동을 위한 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월호 스님(쌍계사)이 ‘웰다잉에 대한 종교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오진탁 교수(한림대)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 이근후 명예교수(이화여대)가 ‘정신의학에서 본 삶과 죽음’, 신산철 사무총장(생활개혁실천협의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웰다잉 장례’를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애주 교수(동국대)와 능행 스님(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가수 장미화씨 등이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02)722-2101

조동섭 기자

근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은?

불교학연구회 11월 8일 추계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1월 8일 오전 9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근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주제로 2008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중표 교수(전남대)가 ‘근현대 한국 불교철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원영상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근대 일본불교의 대외진출과 한국불교’, 김순석 연구원(국학연구원)이 ‘근대 불교계의 민족 인식’, 김경집 교수(진각대)가 ‘근대 전통불교에 대한 인식과 계승’, 김영진 연구교수(인하대 HK)가 ‘근대 한국불교의 형이상학 수용과 진여연기론의 역할’을 발표한다.

불교학연구회 관계자는 “역사학, 국문학, 경제학 등에서 한국 근대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됐지만 한국 근대불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번 학술대회로 한국 근대불교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토론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31)980-7775 조동섭 기자

[동산 26주년 기념 및
안동일 이사장 취임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올해로 동산 창립 26주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 26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더불어 저희 동산의 제2대 안동일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부 축하공연 제2부 본 행 사 제3부 축하 리셉션

■ 일시 : 불기 2552년(2008)11월 6일(목) 오후 3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내)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TEL 02)732-1206~8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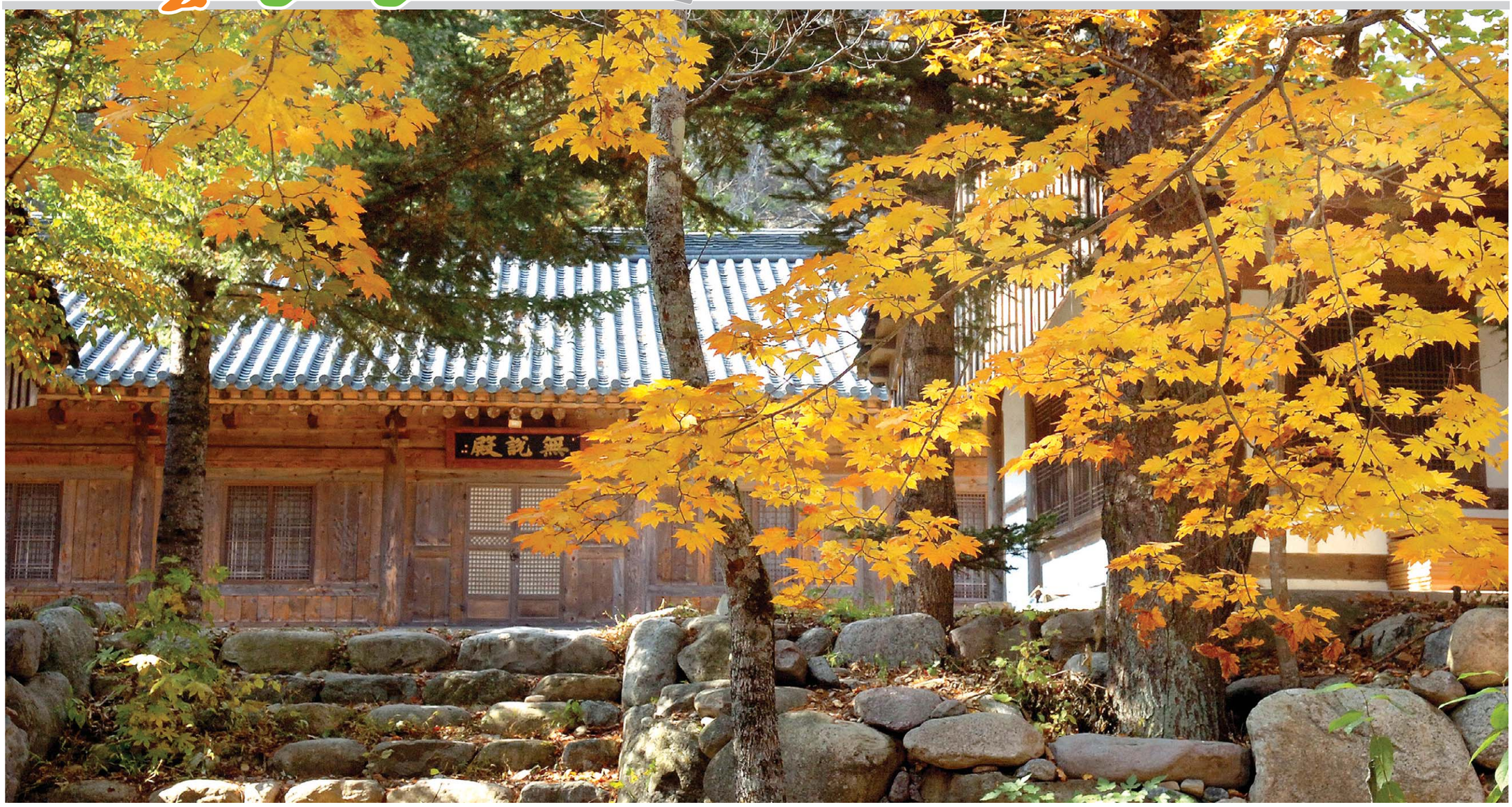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 · P 010-3056-3315

●부산교육 : 월,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님의 침묵 백담사 사각사각 낙엽밟는 소리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따라서

설악산 깊은 곳에 조용히 안겨 있는 절, 백담사.
몇 해 전부터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절이 있는 백담계곡은 더 이상 깊은 곳이 아니지만,
왠지 '백담사'라는 이름은 늘 깊은 곳에 있다. 설악산은 단풍이 한창이다.
어디에 저런 빛깔들이 숨어있었는지,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잎을 따라 백담사로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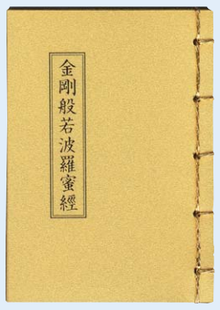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난 백담계곡에는 크고 작은 적석탑(積石塔)이 빽빽하게 서있고,
수심교(修心橋) 위에는 백담사와 설악산을 찾은 불자들과 등산객의 발길이 가득하다.

도량엔 노란 은행잎과 단풍잎으로 가을빛이 완연하고,
양지 바른 마당 한편에는 만해(卍海 · 1879~1944) 스님의 흉상이 보내지 아니한 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있다.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간 빛나던 옛 맹서와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져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아직도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간다.

선원으로 가는 오솔길을 걷는다.
걸음걸음마다 따라오는 낙엽 밟는 소리는 떠날 것을 염려하는 만남처럼,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떠남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따라서 차마 사라지고, 무설전(無說殿) 앞에서 만난 노란 단풍잎은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처럼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고려 백고좌법회 재현

성재문화원 고증 거쳐 10월 19일 봉행



10월 19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실에서 고려시대 백고좌법회가 재현됐다.

고려시대 이후 맥이 끊긴 백고좌 대법회가 750년 만에 부산에서 되살아났다.

부산 성재문화원(원장 이강원)은 10월 19일 오후 1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실에서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화합과 국가경제발전'을 기원하는 백고좌 대법회를 열었다.

이번 법회는 성재문화원이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고려 원종 당시 백고좌법회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100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100명의 스님이 참석, 100가지 꽃과 과일 등이 재단에 올랐다.

증명법사로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이 각각 전계대화상, 갈마대화상, 교수대화상으로 분해 '십중대계'에 대해 설법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만큼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인 참다운 불성을 깨달아, 스스로 우주의 근원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중생이 아닐 것"이라며 함께 부처님법을 공부하자고 격려했다.

이강원 원장은 "지난 750년간 잊혀졌던 우리 불교문화의 뿌리를 찾는데 역사, 문화적 의의가 크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우리 불자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사회난맥상과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고좌 대법회는 100인의 큰 스님이 100가지 공양과 100가지 꽃으로 부처님 앞에 축원 드리는 것으로 신라 증평왕 때 황룡사에서 개설된 이래, 고려 원종 이후 열리지 않던 중 750년 만에 부산에서 처음 재현됐다. 박지원 기자

월호 스님 "나와 남을 참방생하자"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0월 24일 저녁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월호 스님 특별 초청대법회를 열었다.

'자신을 방생하고 남도 방생하자'는 주제로 조선시대 휴정 스님의 불교개론서 <선가귀감> 중 선어록 '한 물건(一物)'과 '자신을 방생하고 남도 방생하자'에 관해 약 1시간 30분간 법문 했다.

월호 스님은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은 마치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남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 웃을 일은 자주 웃다보면 생기는 것, 이것이 참다운 방생이고 인과법칙을 현실에서 살려나가는 방법"이라며 "보살의 수행은 공으로 향하는 수행이 아닌 공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행, 나와 남을 방생하는 것이야말로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바로잡습니다.
702호 김해·천안·원주·포항불교산악회 연합법회 기사에서 김제 청암사를 김천 청암사로 정정합니다.

"만일염불선으로 정토왕생"

백련정사 11월 12일 '만일염불회' 창설

부산 백련정사(주지 원산)는 도량불사 회향을 맞아 '만인동참 만일염불회'를 창설한다.

영축총림 통도사 염불원 백련정사는 11월 12일 오전 10시 백련정사 큰법당에서 '만인동참 만일염불회'의 입재법회를 갖고, 1만 일간 기도에 들어간다.

만일염불회는 1만 명이 한자리에서 1만 일간 염불선을 통해 깨달음과 안락을 얻고 정토에 왕생함을 발원하는 기도로,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며 백련정사의 창사 정신이기도 하다.

현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옛 백련암의 누각에는 '백련정사 만일승회기'라는 제목의 장문이 새겨져 있다.

누각에는 '옛 동진 때 혜원 법사가 여산 동림사에서 백련결사를 결성해 100명이 깨달음을 얻었고, 신라 발징 화상은 건봉사에 만일염불회를 창설해 31인의 육신이 허공에 올라가게 됐다'는 내용의 '만일승회기' 전문이 기록돼 있다.

주지 원산 스님은 "그 후 더 이상 허공에 올라가는 기적은 없었으나 전국 각지의 제방에서 그 뜻을 계승해 만일염불회를 창설하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등 말세수행의 좋은 법칙이 됐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있다"며 "우리 절의 이름을 '백련정사'라고 창명하고, 또 만일염불회라는 수행법을 누각에 새겨둔 창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도량불사 회향을 맞아 '만인동참 만일염불회'를 창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련암 누각에 새겨진 '백련정사 만일승회기'.

이어 "백련정사는 천일기도 공덕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기도 도량으로 영축총림 염불원의 개원을 맞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만인동참 만일염불회'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고 덧붙였다.

모든 시주금은 불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불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참 신청은 입재일까지, 장기간 유숙 수행도 가능하다. (055)382-7084 박지원 기자

대만 성지순례

미륵종 10월 18~21일



정사정사 주지스님이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왼쪽)에게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 18일부터 4일간 대만성지순례를 봉행했다. 이번 성지순례는 전국 교구원장스님들이 주축이 돼 종단스님 20명과 미륵종 각 말사 신도 150명이 동참했다.

대만의 화련에서 불교대학과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비정신으로 봉사하며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구니스님들만 수행정진하는 정사정사(靜思精寺)에서 성지순례단은 법회를 봉행하고 정사정사 주지 증엄(證嚴) 스님의 환대를 받았다. 영민 경남서부지사장

한 획 한 획 불심으로…

선서화전 二題… 미타선원 · 금강정사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051-253-8686)이 참선수행학교 불사를 위한 선서화전을 마련했다.

10월 18일~11월 15일 미타선원 참선수행학교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월하 스님 글을 비롯해 고산 스님의 글 8점, 희상 스님의 그림 15점 외에도 동국대 허만욱 교수, 이다우, 전제삼 등 선서화 30여점이 전시된다.

주지 하림 스님은 "참선수행학교는 재가자들을 위한 선의 생활화 구현을 위한 평생 교육의 장"이라며 "많은 분들이 불사에 동참해 마음 밭에 세세생생 무너지지 않는 공덕의 보탑을 쌓아 더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수익금은 전액 참선수행학교 불사에 쓰여진다.

부산 금강정사(주지 상범)도 선서화 전시회를 연다.

'흐르는 물처럼'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산불교회관 1층 여여선갤러리에서 마련된다.



미타선원 선서화전.

전시되는 작품은 '다라니' <반야심경> '법성게' '광명진언' <금강경> '옴마니반메훔'을 4가지 색깔과 음양각, 부채 및 병풍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500여 점의 선서화 등이다.

상범 스님은 "사경은 포교의 한 방법으로 부처님 법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모든 분들께 희망을 안겨주고,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

'일체중생 부처' 신념으로 복지 한 길

'일체중생이 부처'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및 저소득가정 등 소외된 이웃 모두를 살아있는 부처로 섬기는 부산 교계 사회복지기관의 모임인 '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이하 부불사협, 회장 정여)'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997년 7월 복지관 4곳과 수련관 1곳의 동참으로 출범해, 현재 지역사회복지관 11개소, 노인복지기관 15개소, 장애인 복지기관 4개소 등 총 37개 사회복지기관이 가입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7.5배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 여기에는 부불사협의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꾸준한 추진력이 큰 힘이 됐다. 조수경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회계, 중간관리자 등 각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기관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포상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해 모든 회원기관들이 win-win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직원연찬회 자리를 마련하고, 이날 사회복지의 문제와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는 언론인을 선정해 함께 시상을 하고 있다. 특히 선진화된 국내외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잘된 사례는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를 적용한 노인시설을 방문해 새로 도입될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대비하고, 일본 사회복지학 교수 및 시설 운영자들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부산 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의 7월 9~12일 일본연수.

오늘의 부불사협은 모든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발원과 열정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이 중심에는 10년을 한결같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지켜준 산증인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있다.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혜총 스님은 "불교를 통해 개인은 평화를 얻고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남의 기쁨과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부불사협은 11월 6일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더 큰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10주년 맞이 잔치를 벌일 법도 하지만, 동국대 박경일 교수로부터 사회복지의 미래에 관한 특강을 듣는 등 성숙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간 협의회가 지나온 경험들과 발전 과정을 정리해 <10년사>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수경 사무국장은 "<10년사>에는 발간사 및 협의회의 역사와 발전방향, 법인현황, 사회복지 분야별 추진배경과 실적, 각 법인 대표이사 칼럼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불교사회복지포럼 및 연구소를 활성화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인력 불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사보 출판, 불교사회복지분야 논문시상, 대학생신청사업공모 등으로 걸어온 10년보다 갈 길은 더욱 멀다.

부산 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는 불국토의 꽃을 활짝 피워낼 흙이요, 우리 사회의 아프고 소외된 이웃, 병들고 늙어 아픈 이들을 보듬어 끌어안는 불성의 땅이다. (051)532-0115 박지원 기자

천일기도의 공덕으로 성취한 아름다운 기도의 전당 백련정사 —

통도사 백련정사
만인동참 만일염불회 모집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옛 백련암(백련정사) 누각에 새겨진 '백련정사 만일승회기(白蓮精舍 萬日勝會記)에 따르면 옛 동진 때 혜원 법사가 여산 동림사에서 백련결사를 결성해 100여명이 깨달음을 얻었고, 신라 발징 화상은 건봉사에서 만일염불회를 창설해 31인이 육신으로 허공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후 전국 각지의 제방에서 그 뜻을 계승해 만일염불회를 창설하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는 등 말세의 좋은 법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영축총림 통도사 염불원 백련정사의 도량불사 회향을 맞아 백련정사의 창명 정신과 과거 전통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염불선을 통해 깨달음과 안락을 얻고 정토에 왕생함을 발원하는 '만인동참 만일염불회'에 동참할 불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모든 시주금은 불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오니 신심 있는 불자님의 많은 동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염불원장 원산 도 명 합장

▶ **천일기도 초하루 법회(8760일째)**
일 시: 불기 **2552**년 음력 **10**월 **초하루**(양력 10월 29일) 오전 **10**시

▶ **만인동참 만일염불회 입재**
일 시: 불기 **2552**년 음력 **10**월 **15**일(양력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0,000**일간
장 소: **백련정사 큰법당**
*장기간 유숙 수행도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영축총림 통도사 염불원 백련정사 Tel. 055-382-7084계좌번호 우체국_611434-01-000436 (예금주 백련암)

120년의 원력으로 온 중생 귀의처 되살리다

미황사 중창불사 괘불재 · 음악회로 회향

1887년 남해 청산도 앞바다에서 해남 미황사 불사 화주에 나섰던 풍물패 40여명이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 사고로 미황사는 폐사에 가깝게 100여 년 방치됐다. 100년 후 지운 스님(미황사 선덕)과 현공 스님(현 미황사 회주)의 미황사 주지 부임 후 20여 년 간 노력 끝에 2008년 10월 대규모 중창불사를 회향했다. 120년 만의 중창불사 회향이었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0월 18일 '천년의 꿈 120년의 원(願)'을 주제로 미황사 중창불사 회향 기념 괘불재 및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괘불이운, 만물공양, 통천, 중창불사 회향식, 법어, 두레상 한솥밥, 괘불봉안, 가을산책 등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보선 스님(대흥사 회주),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김충식 해남군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보선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불사의 회향은 본래 마음인 부처의 마음으로 회향하는 것"이라며, "중생의 삶이 힘들 때 부처의 마음으로 회향하는 귀의처가 미황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이 참여해 각자의 원을 담은 추수 물품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만물공양도 눈길을 끌었다. 만물공양에 참여한 윤산하 어린이(송지초 서정분교 6학년)는 "학교 텃밭에서 모든 아이들이 힘을 모아 가꾼 팥을 부처님께 올리러 왔다"며 전교생 60여명이 함께 가꾼 팥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괘불재에 이어 진행된 작은음악회는 인도예술가 박양희씨 사회로 인도음악과 중창불서사시에 시인 김경윤씨, 판소리, 심진 스님의 산사의 노래, 청산도 바다노래, 미황사 군고단의 연주 등이 진행돼 대중들의 흥을 더했다.

미황사 중창불사는 건물불사와 함께 각 전각에 대한 실측조사와 수리보고서 등을 작성해 체계적인 복원불사의 귀감으로 평가받는다. 미황사 중창불사는 1989년 지운 스님(미황사 선덕)이 퇴락한 사찰의 도량을 넓히면서 시작됐다. 1992년 현공 스님(미황사 회주) 주지 취임 후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돼 전각 5동과 수련원을 포함한 요사공간 11동이 복원되고 석축 및 진입로 등이 정비됐다.

1993년 처음 시작해 올해 9회째 맞은 미황사 괘불재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행사다. 미황사는 매년 열리는 작은음악회와 어린이 한문학당, 문화학교, 참선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 땅끝문화제 등 많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문화사찰로 대중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 미황사에서 10월 18일 '천년의 꿈 120년의 원'을 주제로 봉행된 중창불사 회향 기념 괘불재.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주 금선암 덕산 스님

'부처님 근본으로 돌아가기'로 전법

햇살이 고운 가을날 오후 전주시민들의 안식처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인 모악산 중턱에 자리한 금선암에서 덕산 스님(**사진**)을 만났다.

금선암은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덕산 스님 선친인 금화당 초안 스님이 암자를 중수해 수행하다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다시 수차례 중창불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초안 스님과 덕산 스님은 2대에 걸쳐 극락보전, 삼성각, 무구전, 염불당 중창불사를 회향해 조계종 금산사 말사로 등록했다.



금선암 법회는 삼귀의와 오계를 불자들이 다함께 낭독하면서 시작해 석가모니 부처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기로 유명하다.

생전에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즐기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발원했던 초안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덕산 스님은 1996년 '금화장학회'를 설립했다. 금화장학회는 한번 장학수혜자로 선정한 학생이 고교 졸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주시와 함께 '금화효행상'을 제정해 지역의 효자 · 효부들에게 매년 500만원씩 상금을 지급하고, 경로잔치 등을 통해 독거노인을 돕고 지역민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왔다.

덕산 스님은 1999년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을 기념해 금선암 미륵향도 300명과 함께 심포항 갯벌에 향목(香木)을 묻는 행사도 개최했다. 현세의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 나아가 모든 인연 있는 이들에게 십선행을 권하며 다함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행하는 '미륵 향도 4대 실천강령'을 제정한 스님은 십선회와 수월회 등 신도조직을 활용해 미륵십선실천운동도 펼치는 중이다.

스님은 포교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봄에는 '솔바람 꽃향기 음악회'를 개최해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봄내음이 물씬한 화전과 산채 비빔밥을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계절별로 '모악의 품안에서 행복한 명상'이라는 주제로 불교명상학교를 개최해 각박한 현대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한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청량감을 선사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전주시 완산경찰서 경승실장을 맡아 경찰포교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한 덕산 스님은 10월 21일 경찰의 날에는 완산경찰서장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덕산 스님은 은사 도영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을 도와 '금산사 복지원' 태동에 많은 역할을 했다. 현재도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시설인 '송광사 정심원'의 상임이사를 맡아 복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스님은 전북지역 불교 신행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신행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해 지역불자들이 내부적인 자생력을 키울 연합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덕산 스님은 "전북지역 불자들이 체계적인 신행활동과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선암을 넉넉하고 포근한 도량, 행복을 널리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덕산 스님의 뒷모습에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회통합에 불자가 앞장 서자"

김제 금산사 1409주년 개산대재

김제 금산사(회주 월주, 주지 원행)는 10월 18일 1409주년 개산대재,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서 열린 개산대재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선운사 법만 스님, 대흥사 월우 스님, 도갑사 월우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본말사 60여명의 주지스님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최규성 국회의원, 이건식 김제시장, 송하진 전주시장, 김백호 전북 신도회장, 김진수 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김제 금산사의 1409주년 개산대재.

행사는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축원, 금산사 연혁, 금산사 역대 조사스님들의 행장소개로 이어졌다.

월주 스님은 법어에서 "사부대중은 열심히 수행 정진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중생제도에 나서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자"며, "사회통합 노력에 불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백제법왕 원년(599) 진표 율사에 의해 산문이 열린 이래 1409년의 유구한 세월 속에서 금산사는 백성들의 귀의처였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 외침과 맞서며 대중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제불보살님들의 정법을 받들어 수행과 전법교화, 가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살계 수계법회에서는 3000여 불자들이 보살계를 수지하고 불보살의 대비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통일쌀' 북 전달 예정

5000만원 상당 수확

결실의 계절 가을, 북녘의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기 위한 통일쌀 벼베기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10월 20일 구례군 상사마을 소유농지 2만여평에서 화엄사 대중스님 50여명을 비롯해 구례군농민회, 기아자동차광주공장조합원, 조선대 학생들 200여명과 함께 '통일쌀 짓기사업'을 펼쳐 약 5000만원 상당의 쌀을 수확했다.


구례 화엄사 대중스님들이 통일벼 수확에 한창이다.

벼베기에 앞서 진행된 인사말에서 종서 스님(화엄사 총무)은 "통일쌀을 수확해 북녘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동포애의 표현이며,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동참 단체들과 함께 4200만원 상당의 쌀을 북측에 전달한 화엄사는 올해도 수확된 쌀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생명나눔 10년

자선음악회 개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10월 22일 5 · 18기념문화관 민주홀 대공연장에서 '광주생명나눔 창립 10주년 기념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광주생명나눔 본부장 현지 스님,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 등 스님을 비롯한 500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불화가 고영을씨의 불화 해설, 범능 스님의 '신묘장구대다라니' 노래공연, 성의신씨의 해금 공연 등이 진행됐다.

현지 스님은 10주년 축하 인사말에서 "어려움 속에서 10년간 난치병 환우들과 삶의 희망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나눔을 후원하고 지켜주신 많은 분들의 공덕"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의 10년을 더욱 소중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은 지난 10년간 장기기증 285건, 혈소판헌혈 784건, 환우 헌혈은행을 위한 헌혈증 모집 1만8718매와 치료비 및 투병기금으로 101명 환우에게 2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불교신도련 '자비의 연탄 나누기'

익산지역 불자들의 모임인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는 10월 19일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 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 회원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60여명은 김재웅 前 국회의원, 정광윤 교육장 등 각급 기관장들과 함께 이날 54가구에 총 1만800장의 연탄(약 500만원 상당)을 배달했다. 도움을 받은 이웃들은 불자들의 자비행에 감사를 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이야기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말법의 온갖 허물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신국판 464쪽
₩16,000
저자 연락처 : 055-353-6142, 010-2356-6142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릿글 중에서 -

고목스님의 책들

新 유식학(보정판)
삼라만상이 오직 식(識)일 뿐이어서 마음을 알면 자연히 세계를 알게 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명상의 기본원리와 비바사나, 요가명상 등 실용성 높은 생활명상법 수록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고 목 지음

금강경 최상승해(근간)
차별화된 최상승의 해설.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보고(寶庫)
고 목 지음

우리 종단을 말한다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십선도행 실천하는 미륵도량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뒤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부대중이나 하늘 · 용 · 귀신은 끊임없이 도솔천을 관하고, 모든 계율을 지키며 하루나 7일 동안이라도 10선을 생각하고 10선도를 행하라."

(사)한국불교미륵종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미륵십선법을 실천하기 위해 1987년 10월 5일 창종(2000년 사단법인 등록)했다.



송정 스님.

창종 직후부터 88올림픽 성공기원법회(1988년 5월), 항일독립운동 순국열사 추모 천도법회(1994년 3월 1일)를 봉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230여 명의 인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활 보호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2001년 사회복지법인 미륵원(경남 김해시 진례면)을 설립했다. 매년 5월에는 김해 지역 노인들을 초청, 경로잔치를 벌여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미륵원은 노인요양시설로 현재 30여 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단순히 요양만이 아닌 예불 · 수행 등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월간 소식지 <시방세계>를 발간, 전국 각 말사와 불자들에게 무료 배포하는 것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회활동의 일환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

미륵십선법 실천하기 위해 1987년 창종

월간지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 전해

종단 스님이 200여 사찰에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간질 하지 말라 ▲욕설을 하지 말라 ▲실없는 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바르게 보라 등의 십선도행을 실천하며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스님과 신도들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자율적 친목모임인 법우회(회장 혜초)를 조직해 격월로 전국 각 말사를 방문 · 수행하고 있다.

미륵종은 십선도행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철저한 승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부터 3박 4일 승려단기연수 교육을 실시, 올해 제10차 승려교육을 회향했다. 전국의 말사에서 차례로 진행했던 교육은 2005년 총본산 관음정사(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대규모의 승려교육장이 마련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9월말에는 종단 소속 각 말사에서 수행하던 예비승려들을 소집, 10일간 대중생활을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10기 사미승 24명(사미 14명, 사미니 10명)을 배출했다.

실천수행의 일환으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종무원 (055)345-4741

정리=김진성 기자

한·중 불교 화합 위한 '장중한 하모니'

태고종 대형 범패교향합창곡 '신주화악' 공연 성황



10월 18 · 19일 고양 아람음악당에서 거행된 '신주화악' 공연 모습.

음악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불교교류가 장엄한 하모니를 연출해 냈다.

한국불교태고종과 중국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가 함께 주최한 대형 범패교향합창 '신주화악(神州和樂)'이 10월 18일과 19일 두 차례 경기도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공연됐다. 이번 연주회는 태고종이 처음으로 개최한 중국과의 문화교류 행사였다. 공연 첫날인 18일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 전국의 종무원장과 총무원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관람했다.

'신주화악'은 2006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불교포럼에서 처음 연주된 범패교향악으로 '화합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현악, 합창, 독창 등은 물론 스님들의 염불이 어우러지는 80분 분량의 대곡이다. '구룡관욕'이란 주제의 서곡에서 화장세계, 자비원회, 선열해풍, 연당관명 등 5악장으로 구성된 '신주화악'은 중국 중앙음악대학 작곡과 당건평 교수가 작곡했다. 이번 연주에는 심천교향악단, 상하이 오페라합창단, 심천흥법사합창단, 소프라노 심나 등이 하모니를 맞췄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진각종 회당 대종사 열반45주기 추념불사



10월 16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봉행된 회당 대종사 추념불사. 사진왼쪽은 도흔 총인.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회당 대종사 열반 45주기 추념불사를 10월 16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추념불사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회당 대종사께서는 '옛날에는 의발(衣鉢)이요, 현재는 심인법'이라는 열반게송을 남겨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참된 가치를 깨우치기를 부촉하셨다"면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이웃과 사회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실천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불사에는 도흔 총인을 비롯해 원로스승과 종립학교장, 총금강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같은 날 회당 대종사 열반성지인 대구 북구 침산동 불승심인당에서는 대구교구 스승과 신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연합 추념불사가 봉행됐다. 탄생성지인 울릉도 금강원 종조전에서도 울릉도 내 각 심인당 정사와 신교도들이 참석해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김성우 기자

해동불교 무량종 사미계 및 보살계 수계법회

해동불교 무량종(종정 법일)은 10월 19일 여수 무량사(주지 학성)에 설치한 금강계단에서 출가자 28명과 재가자 50명에 대한 사미계 및 보살계 수계식을 각각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법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출가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을 지켜 누구에게나 화합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수행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계단을 여는데 기여한 무량사 주지 학성 스님은 "종단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출가자가 탄생하는 날이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초 종정 "태고종도는 대동화합 하라"

태 고 종 '종단현안 대책위' 구성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진퇴와 관련, 내홍을 겪은 태고종이 '종단현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내분이 일단락됐다.

태고종 총무원은 10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무원장 종무추진과 관련한 의혹과 중진스님의 총무원장 사퇴 요구로 발생된 불협화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종단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원로회의 결의에 입각,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중진스님을 포함한 중앙 간부스님으로 '종단현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또 "'모든 문제는 중앙종회를 개최해 처리하고 종도는 대동화합 하라'는 혜초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향후 총무원장 사임 및 중요 종무처리 등 종단 현안사항은 '종단 현안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성된 현안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에 인공(중앙종회의장) · 월운(중앙사정원장) 스님, 위원에 대은 · 원봉(종회부의장) 월해 · 보경 · 환우(총무원 부원장) 백운(총무원 종무실장) 청봉(중앙초심원장) 영우(중앙종회의원) 스님으로 구성됐다.

김성우 기자

세계 재가불교지도자 소통과 화합의 자리

총지종,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성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참가자들은 10월18일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다.

"산중 불교를 저자로 가져와 대중의 정신을 일깨우고 대승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재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했다."

총지종(통리원장 원송)은 서울과 강원도 월정사 등지에서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10월 16~20일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측 대표로 법현 스님(열린선원), 박광서 교수(서강대), 성태용 교수(건국대), 원병관 교수(강원대)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프란츠 그슈윈트 박사(독일, 前 뮌헨대 교수)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16개국 30여 재가불자 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관련 학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1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주제발표, 18일 강원도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템플스테이 활동, 19일 한국문화프로그램과 전통문화공연 관람을 했다.

17일 주제발표는 ▲재가불교의 철학 ▲근대 재가불교지도자들 ▲재가불자들의 협력방안의 3개분과로 나뉘어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재가불교의 철학' 주제발표에는 성태용 교수가 '재가불교운동의 철학', 율리히 티메 크라프 교수(금강대 HK)가 '이끌어주는 명상', 제시카 존스 교수(루드위그 맥시밀리안대)가 '일상생활을 위한 불교철학의 선택' 등을 발표했다. '근대 재가불교지도자들' 주제발표에는 법현 스님이 '청평거사 이자현을 통해 본 소통의 문제', 후앙신주 교수(대만 국립정치대)가 '포르모사의 불법전파' 등을, 재가불자들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는 박광서 교수, 화령 정사등이 참여했다.

조동섭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1월 3일 월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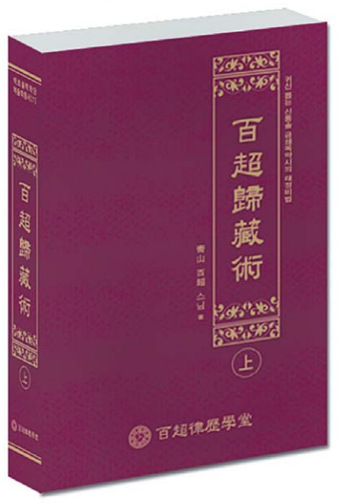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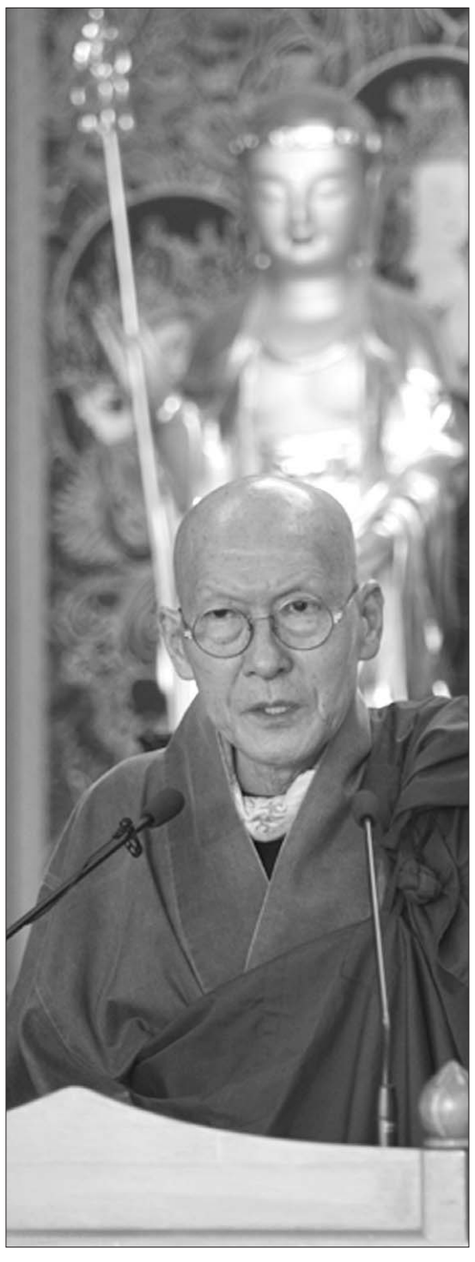
법정 스님 가을 정기대중법회

“행·불행은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있어요”

법 문 : 법정 스님(조계종 원로)
일 시 : 2008년 10월 19일
장 소 : 서울 길상사 극락전

깊어가는 가을, 초록 잎의 자성(自性)에는 본래 붉은 빛도 포함돼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 뜨거운 태양에 온 몸을 드러내 보인 나뭇잎이 그간의 인고를 붉은 훈장으로 당당히 드러내듯 가을은 세상 만물을 역동적인 흐름 속에 나름의 빛과 형태로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법정 스님을 모시고 가을맞이 정기 대중법회가 열렸다. 글과 법문으로 참 삶의 지혜를 일러주시는 스님의 가르침을 올 가을 또 하나의 풍성한 결실로 맺어보는 자리다.

10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길상사 극락전을 중심으로 도량 곳곳에는 스님의 법문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예불을 모시고 관세음보살 정근에 이어 법정 스님의 가을법문을 경건히 청했다.



법정 스님. 사진제공=길상사.

청명한 가을을 사노라면 삶이 풋풋하고 감사해집니다. 도심도 그러하겠지만 산중 생활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이 우중충하고 비바람이 치면 괜히 짜증이 나지요. 오늘 같은 날은 마음도 활짝 열려서 매우 즐겁습니다. 연일 맑게 갠 가을 날씨 덕에 저도 여러 가지로 일상을 흥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서정주의 시 ‘푸르른 날’을 외워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나리면 어이 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 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렇게 두런두런 시를 외다 보면 더 마음이 흥겨워지고 사는 일이 새삼 즐거워집니다.

시는 언어의 결정체입니다. 그 안에 우리말의 넋이 살아있습니다. 시를 외다보면 그 안에 아름다운 우리말 속 얼굴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를 읽어보십시오. 지난 날 소년·소녀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흘러 까맣게 잊은 망각된 그 무엇이 있지요. 시를 읽으며 삶을 새롭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험한 세상에 무뎌진 감성의 녹이 벗겨집니다.

저는 요즘 밤마다 ‘왕유’와 ‘백낙천’의 시를 읽다보면 새삼 사는 일이 고마워져요. 우리는 요즘 눈을 뜨기 무섭게 지겹고 짜증스런 뉴스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널뛰는 경제에 갈팡질팡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과연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과연 행복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지지 못한 이들은 불행한가요? 우리는 행·불행의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베풀 줄 모른다면 불행한 것이고 적게 지녔지만 많이 베푼다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러니 불행과 행복은 외부상황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수용 여부의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요즘처럼 들려오는 소식에 휩쓸리다보면 자신이 너무 외소해지고 무력해집니다. 삶에 자신을 잃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외부 현상만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을 안으로 돌리면 향기로운 영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밤낮 귀 기울이는 뉴스에 얽매이면 삶이 시들어갑니다. 그런 외압에 눌려 내 안의 힘을 일깨우려하지 않게 되고 삶이 지겹고 시들해지죠.

시 읽으면 피 맑아지고 무뎌진 감성의 녹 벗겨져
어려울 때 고정관념 벗어나 절에서 짐 나누세요

옛 선현들의 삶으로부터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250여 년 전 선비 장혼의 글 ‘평생의 소망’에 따르면 인왕산 골짜기 아래 허름한 집 한 채에 매혹돼 그 집을 꾸미고 싶은 소망에 부풀어 있는 바람과 만납니다. 엽전 500냥의 시가를 지닌 집을 사서 집 둘레에 꽃을 가꾸는 꿈에 마음에 들떠있죠. 그는 평생 소망의 주거 공간을 제시합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 ‘일상에 쓰는 도구’ ‘늘 하는 일’ ‘귀중히 여기는 책’ ‘즐기는 경치’ ‘조심할 것’ 등을 차례로 나열합니다. 그 중 ‘맑은 복 여덟 가지’를 들어 보입니다. 당시는 영·정조시대로 문예 부흥기였습니다. ‘태평 시대에 태어난 것’ ‘서울에 사는 것’ ‘다행히 자신이 선비 축에 낀 것’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산수가 아름다운 산을 차지한 것’ ‘꽃과 나무 천 그루를 지닌 것’ ‘마음에 맞는 벗을 얻은 것’ ‘좋은 책을 소장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떠한 맑은 복을 누리고 지녔는지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맑은 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새삼 제 삶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경전이건 글이건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을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거울로 삼는 것이죠.

나날이 새로워지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뒤에서 내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까닭입니다. 바로 스승과 말벗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출출해지거나 무료해지려할 때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산중에 기거하면서 차 맛을 모른다면 무슨 낙으로 살까 문득 생각했습니다. 차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삶의 맑은 여백과 같은 것이죠. 더불어 굳어지는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이 있고 내 일손을 기다려주는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이 고맙습니다. 채소밭이 내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적한 삶을 살고 싶은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바를 누리고픈 소망이죠. 그런 꿈은 지닌 것 자체로 풋풋한 가슴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적인 소망이죠. 앞서 말한 선비의 소망과 같지요. 미래는 이들이 무수히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사경을 해매는 환자들은 단 몇 분만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간절히 소망하는 삶인데 말입니다.

존엄한 목숨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살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삶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말입니다. 제 기분대로 그 흐름을 이탈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동서고금의 선각자들이 체험을 통해 말씀하신 바입니다. 자살은 자해로 인한 업(業)을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윤회의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업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 결국 죽습니다. 업의 파장이죠. 업의 파장을 따라 단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습관이 됩니다. 그것은 업력이 되고 업장으로 굳습니다. 마치 물리학의 관성 법칙과 같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망막한 고통은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맑은 날이 있습니다. 삶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노래가 있잖습니까? 외부 상황이 변하듯 내면적인 생각도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자살 충동을 겪는 이들은 당시의 절망감에서 추락해 버리는 것이죠. 망막한 덫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인간 삶을 살필 수 있었다면 그 한 때의 외골수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로 새로운 자기 삶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때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것은 한 때입니다. 어려운 것은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인 늪의 고정관념에서 헤어 나오기 힘듭니다. 가까운 친구를 만나서 짐을 나눠야 합니다. 절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종교는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해결기약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명대로 살다가 가지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마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가을을 맞이하십시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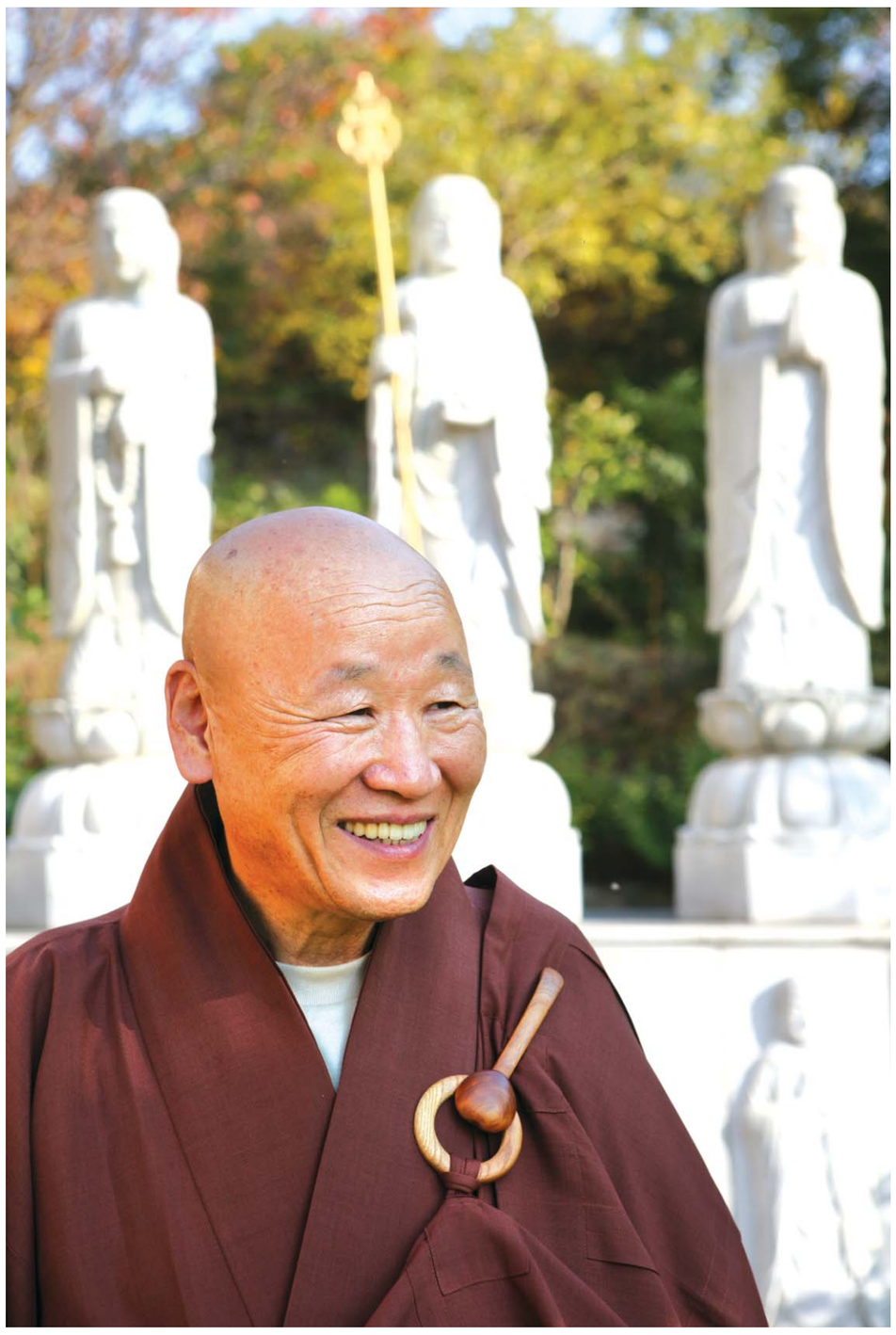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11. 8(토) 오전 9시부터 ~ 11. 9(일) 오후 1시까지 (11월 7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한 번 지은 업은 반드시 돌려 받아요”



묘허 스님 1957년 상주 남장사에서 화엄 스님을 은사로 득도. 63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 성암 강백으로부터 대교이력 및 〈전등록〉을 이수. 통도사 보광선원 수선안거이래 제방선원에서 11하안거를 성만. 신탄진 신흥사 주지를 역임. 불교TV에서 〈묘허스님의 49재 특강〉을 강의. 지금은 단양 방곡사에 주석하고 있다.

묘허 스님(방곡사 회주)

나의 참모습에 의심품고 풀어보는 것이 화두
하루 수십법 마루 닦으며 ‘마음도리’ 깨우쳐

단양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야단스러웠다. 여름 내내 품고 있던 홍화빛과 겨자빛을 아낌없이 풀어내고 있는 산색의 화려함을 어디에다 비기랴 싶었다. 하얗게 핀 꽃을 머리에 이고 바람결 따라 노니는 억새 또한 한층 가을빛을 더하고 있다. 또 저만치 보랏빛 쑥부쟁이와 노란 산국이 피어있으니 화엄법회가 따로 없다.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수십 번을 돌고 돌아 단양 팔경 중 하나인 사인암(舍人岩) 팻말을 볼 수 있었다. 사인암에는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 두어 편을 남긴 우탁(禹倬)의 행적이 어려 있는 곳이다.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찾아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우탁의 시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사인암을 지나 한참을 올라가자, 산그늘 짙은 이곳에 절이 있을까 싶은데 저 멀리 지장보살상이 지남처럼 우뚝 서있다. 방곡사는 지장도량으로 가꾸어졌기에 다양하게 조성된 지장보살들과 마주할 수 있다. 묘허 스님이 불사한 신탄진 신흥사와 김해 원명사도 지장도량인데,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머무는 곳마다 지장도량으로 일구어 나간다. 묘허 스님은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화엄 스님에 대한 보은의 길은 지장신앙을 널리 펼치는 것밖에 없다면서 은사스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은사스님은 평생을 수좌로 살다 가신 분이지만, 선방에서 가부좌하고 앉아 ‘이뭣고’하는 것만을 권하지는 않았어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의 참모습에 대해 의심을 품고 그것을 풀어보는 것도 화두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지런히 부르는 것도 화두일 것이니 무엇이든 놀지 말고 부지런히 할 것을 권했습니다.”

화엄 스님은 어머니의 권유로 일본 오사카 의대를 다녔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남양군도에서 근무하였다. 화엄 스님의 어머니는 매일 등을 밝혀놓고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아들이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막사에서 잠이 든 화엄 스님은 잠결에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막사 밖으로 뛰쳐나와 보니, 의대 다니던 시절 자신이 손수 만든 등이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떠있기에 그 등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그 막사는 미군들의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화엄 스님만 목숨을 건졌다. 화엄 스님은 그 후 어머니의 뜻을 이어 일생동안 지장기도를 하였다.

“은사 스님은 전쟁이 끝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어요. 그러던 중 범어사에서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면서 출가의 뜻을 굳혔고, 동산 스님의 상좌가 되었어요. 은사 스님은 지장기도에 얽힌 일화와 선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아요. 은사 스님은 당신 수행에는 혹독한 분이었지만, 무애자재하게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셨던 따뜻한 분이었어요.”

묘허 스님은 불교를 알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겠다는 일념으로 동진 출가하였다. 본래 손이 귀한 집안이라 어머니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큰집에 대를 이을 손이 없어 양자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일곱 살, 엄마가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워 큰집에 맘을 붙일 수가 없었다. 아이가 정을 못 붙이니 큰엄마는 큰엄마대로 정 붙이라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다.

“중학교 1학년 때 병이 났는데 마음의 병이라 어떤 약도 소용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친척들이 병문안 와서는 ‘절에 가서 공들여 낳은 지식인데, 교회 다녀서 병에 걸렸다’는 그런 말을 한 마디씩 툭 던지고 가데요. ‘절에 다녀야 하는데 교회 다녀서 벌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어린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고 절에 가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홀로 찾아간 곳이 상주 ‘남장사’였고, 그곳에서 화엄 스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게 되니 병은 씻은 듯이 나아 버렸고 그 후 칠십 평생 살면서 치과에 간 외에는 앓아 본 적도 없고 병원 간 적도 없어요.”

묘허 스님은 출가 후 십년 넘게 보광전의 마루를 하루를 두고도 수십 번씩 닦았다. 많게는 하루에 50번씩 마루를 닦은 적도 있을 만큼 화엄 스님은 마음 닦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됨을 일깨워 주었다. 마음의 때는 수행을 통해서 깨끗해 질 수 있으며, 설사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닦지 않으면 곧 더러워 질 수 있음을 깨우쳐 준 은사님의 깊은 뜻을 출가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알고는 감사의 예를 올렸다고 한다. 그때가 바로 묘허 스님이 견처를 확인한 때가 아닌가 싶다.

묘허 스님은 ‘영가 법문’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이미 불교TV 방송에서 ‘묘허 스님의 49재 특강’이라는 테마로 24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묘허 스님의 49재 법문은 논리 정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49재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깨우쳐 준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 없이 머무르는 기간은 49일 뿐입니다.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 데는 49일이 걸린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일생동안에 선업, 악업,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기업을 한량없이 짓잖아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식(六識)에다 말나식을 더해서 칠식(七識) 이라 해요. 이 칠식 작용에 의해서 선업과 악업을 짓게 되고, 지은 모든 업이 팔식(八識)인 아뢰야식에 잠재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칠식 작용이 멈추었다는 것을 뜻한다. 의식이 없어지니까 오관(五官)인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 작용을 못하고, 오관이 작용을 못하니까 칠식 작용도 소멸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뢰야식에 잠재되어있는 업식만 남게 되는데, 이 업식이 둥둥 떠 가지고 염부로 가게 된다.

“숨 떨어지는 그 날 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진광대왕(秦廣大王)전에 가서 눈으로 물질과 모양과 빛깔을 대상으로 해서 지은 선악업을 가려내고 재판 받게 되어있어요.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2초강대왕(初江大王)전에 가서 귀로 듣고 지은 업이 선인지 악인지를 재판 받아요. 21째 되는 날까지는 제3송제대왕(宋帝大王)전에 가서 코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좋은 향기 풍기면 좋아하고 나쁜 냄새 풍기면 싫어한 업을 재판 받아요. 27일 되는 날까지는 제4오관대왕(五官大王)전에 가서 입으로 지은 업을 재판 받아요. 35일째 되는 날은 제5염라대왕(閻羅大王)전에 가서 몸으로 지은 업을 재판받아요. 염라대왕은 염부 10대왕중에 수석대왕이라, 5재를 잘 지내주어야 해요. 7재까지 안 가고 5재 때 윤회전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해요. 42일째 되는 날은 제6변성왕(變成王)전에 가서 마음으로 지은 업을 재판 받고, 49일째 되는 날은 제7태산부군(泰山府君)전에서 엄정하게 재판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가려집니다. 가려내서 그 업에 따라서 미래세를 확정짓고, 확정지어진 판결문에 도장하나 쾅 찍으면 영가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영가들은 자기의 업식대로 암소 자궁이든 암퇘지의 자궁이든 찾아들게 된다. 스님은 수태되는 순간을 두고 “이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 들어갔다가 한 숨 돌리고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암컷의 자궁 속인 것이지”라고 재미있게 표현했다.

“새로운 몸을 받기 전에 나쁜 업이 있더라도 잘 판결하여 좋은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염부시왕님전에 부탁드리는 것이 49재입니다. 49재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자 불경 및 보리수 염주 세트

전자 불경은 천수경 및 발원문, 반야심경을 들을 수 있으며 전자칩을 장착하여서 음향 변질이 없고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음보살님 주위에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함이 묻어 납니다. 불경을 들으면서 소원성취도 이루세요.

보리수 108염주 및 단주는 보리수 나무 뿌리로 가공하여 자연 문향이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현재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부모님 효도 상품 및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전자 불경 염주세트는 인터넷 옥션에서는 80,000원에 판매 중 입니다.





제품 문의 : 016-494-0772
예금주 농협 415092-51-040120 사)한국호국불교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禪에서 본 般若心經
- 大顚和尙注心經 -

반야심경(般若心經)을 통한 선(禪) 입문(入門)
선사의 체험으로 새롭게 열어 보인 반야의 세계
그 깨달음의 안목이 돋보인다

이 책은 모두 금옥(金玉)과 같아서…… 비록 도행(道行)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삿된 소견이 들어있는 자에게는 영약(靈藥)이 되며, 어둠속에 길 잃은 자에게는 밝은 등불이 되고, 문 밖에서 헤매는 사람에게는 표본이 되는 주석이며, 바른 눈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표준이 되는 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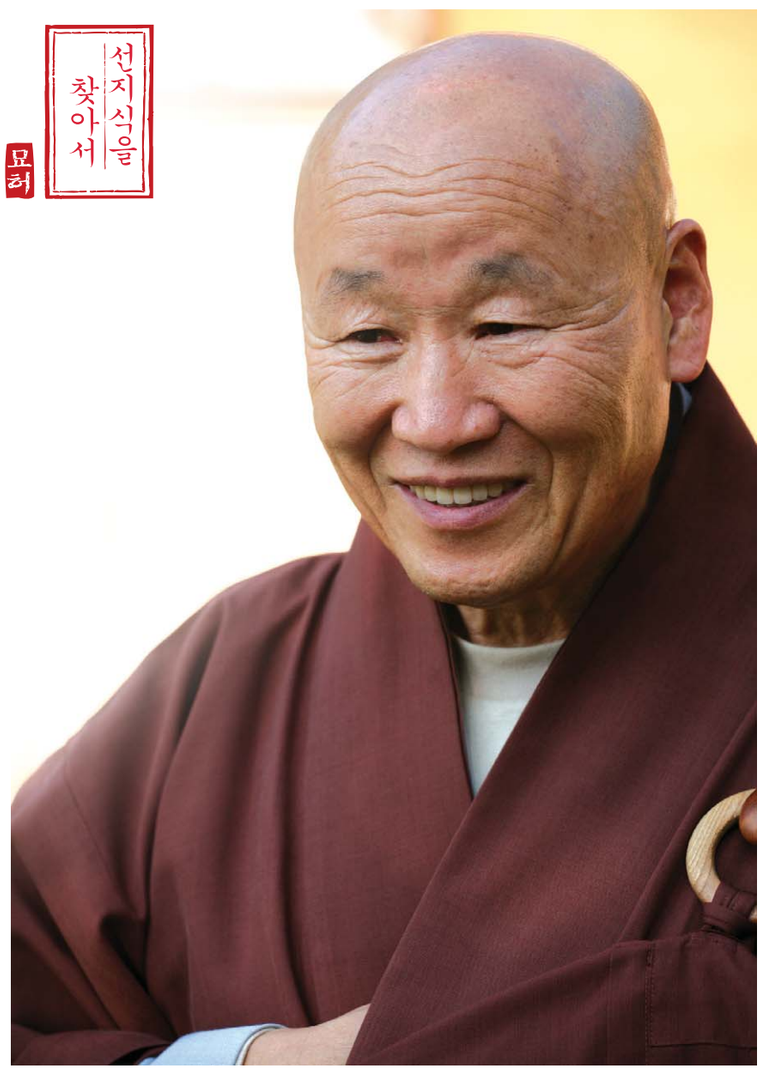
- 전 조계총림 방장 구산(九山) 스님



대전요통 지음 · 현봉 옮김
신국판/304쪽/값 13,500원
불광출판사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나

묘허 선지식을 찾아서



모시나 안 모시나 99.9%는 49일 만에 윤회전생을 해요."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묘허 스님으로부터 49재 전 과정을 소상하게 듣고 나니, 염라국에 불들려 와서 일곱 번의 재판을 낱낱이 다 받은 느낌이다. 스님은 혹시 전생에 염라국에서 대장 노릇하다가 오신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내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지장경> <시왕경(十王經)> 등 경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활짝 웃으신다. 문득 '영가들이 스님의 법문만 듣고 갈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스님의 얼굴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자라면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야 해요.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 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수행을 해야지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업을 짓는 것이기에 일생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어요. 신구의 3업을 통해서 한번 짓고 저질러 놓은 업은 백겁 천겁 만겁이 지나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을 때에는 선업은 선보(善報)를 받게 되는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단다. 반대로 악업은 악보(惡報)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나쁜 일을 지어 놓았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단다.

묘허 스님의 인과법문을 듣고 난 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해만 끼치는 못된 사람인데도 지금은 굉장히 부자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나눠주기 좋아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데 왜 그런지를 묻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잠시 동안이나마 그 사람의 전생 선업의 열매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악업의 열매가 익었을 때 그 사람의 복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선한 자가 현재 못사는 것도 지난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익지 않은 설익은 업이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으로, 지금은 비록 악한 자라도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좋은 업을 짓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오는 것이 분명하니 좋은 일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과법만 확실히 믿는다면 상대가 나에게 잘못해도 상대의 잘못하는 그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라 여기게 되고 '내가 예전에 너에게 주었던 것을 오늘 내 가까이 와서 나에게 돌려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업장소멸 잘 하고 빚 갚게 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자연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단다.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인과 법문이 되어 버린다"고 했더니 곧 불교TV 방송에서 '인과 법문'을 하게 된다면서 웃으신다.

"此身不向今生度(차신불향금생도)하면 再等何時度此身(재등하시도차신)이랴. 금생에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지, 어느 생에 또 다시 사람 몸 받을지를 기약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적에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것이 불교임을 알아야 해요."

방곡사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무문관'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동안거에 맞추어 개원할 예정인데, 방곡사 무문관은 좀 특별하다. 각각 독립된 수행 공간으로 방갈로를 연상케 하는 11채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많은 수좌들이 정진할 수 있도록 방부를 들이면 두 번의 안거와 한 번의 산철 정진을 하게끔 무문관의 방부기간을 9개월로 한정할 예정이다. "각자의 수행 공간을 마련한 것은 아무래도 방이 붙어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수좌들이 다른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화두 참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무문관 스님들을 외호하며 정진하는 수좌들을 위해 일반 선원도 같이 개원할 것이라 하니, 무문관에 대한 묘허 스님의 애정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좋은 법문을 들려주시고도 뭔가 미진하신지 "한 생각으로 지은 업이 오늘의 내 인생을 만들어왔기에 오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나'입니다"라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었다. 산그늘이 깊은 만큼 방곡사에는 어둠이 빠르게 밀려들었다. 사위는 불빛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둡고 하늘엔 어스름 달빛만이 가득하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6〉 해강 대선사

1984년 7월 필자는 부산 대승사 영산재에 초청되어 저녁 법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의식은 새벽 4시가 되어도 끝날 기미가 없었다.

"자재치성여단엄(自在熾盛與端嚴) 명칭길상급존귀(名稱吉祥及尊貴) 여시육덕개원만(如是六德皆圓滿) 응당총호박가범(應當總號薄伽梵)…."

'궁·상·각·치·우'도 아니고,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아니고,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끝 물속에까지 들어가 그 시·말(始末)을 잡을 수 없는 범패소라….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시연 모습.

징하는 향공양,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등공양, 목마른 자에게 감로의 법문을 들려주는 다공양, 보리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과일공양, 인과의 결실을 상징한 쌀공양, 그리고 처염상정(處染常淨: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깨끗함)의 불성에 복덕을 나누어 쥔 꽃공양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러자 스님은 "청정명다약(淸淨茗茶藥) 능제병혼침(能除病昏沈) 유기옹호중(唯冀擁護衆) 원수애납수(願受哀納受)"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소리를 또 하였다.

아침 6시, 날이 훤히 밝아지면서 재는 끝났다. 밤새도록 잠 한 숨 자지 않고 불전 놓고 절하고, 불전 놓고 절하던 신도들이 마지막 반야선을 타고 저 언덕에 이르러 가듯 훨훨 나는 기분으로 모두가 헤어졌다.

큰스님께 예배드리고 물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무슨 소리요. 일음연창(一音演唱)인데. 내 이름은 해강이요. 1919년 고성 원평리에서 태어나 열세 살에 안정사 등불 켜러 갔다가 월암 스님에게 중이 되어 지금 내 나이 80이 되도록 하루도 빼지 않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소리는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22세 때 경명 스님께 배웠습니다. 범무·범패·작법 일시불로 배워 통영 용화사에 있다가 경주 기림사, 울릉도 대원사에서 목을 단련하고, 거제 장수암에서 처음으로 범패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에는 언제 내려 오셨습니까?"

"1960년 범천동에 본원사를 창건하고, 부산 영산재 나비춤 보유자로 인정받아 무형문화재 제9호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나비춤이야 말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추는 춤이므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성불작조(成佛作祖: 부처와 조사가 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비춤은 성불작조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과정을 춤으로 엮어 삭막한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불국정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진실로 거룩한 춤입니다. 어찌 일인일기(一人一技)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중에 송택·송정·인택 등 삼형제가 있는데, 불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세 아들이 동방불교대학에 입학하고, 이어서 아버지의 기능을 전수받아 무형문화제 후계자가 되었다. 언젠가 이들 4부자는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북치고 징치고 피리 불며 불무(佛舞)와 법음(法音)을 울려 온 세계가 부처님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주었다.

13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춤 춰
1960년 부산 영산재 나비춤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로 활동

그런데 그 소리는 일찍이 전라도에서 들었던 소리도 아니고, 서울에서 들었던 소리도 아니었다. 나는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고 옆방에 앉아 듣고 있다가 급기야 재장(齋場)으로 뛰어들어갔다.

훤칠한 키에 쟁반만한 얼굴을 가진 어른이 하얀 장삼에 청·황·홍 3색 가사를 입고, 탑 모자를 쓰고, 연꽃 두 송이를 들고 춤을 추는데 백 평이 넘는 법당이 꽉 찼다.

"향공양 연향공양 불신자비 수차공양…."

이렇게 등공양·향공양·꽃공양·과일공양·다공양·쌀공양을 순서적으로 외우면서 육법공양을 올리는데, 1000명이 넘은 제자들이 마당 가운데 앉아 쥐죽은 듯 소리가 없었다.

나는 거기에서 5분 법신을 상





“참선 근본 몰라 경계·마에 빠져”

오늘의 禪語 ㊵ 경계와 마

‘경계(境界)’ ‘마(魔)’ 역시 ‘선병(禪病)’의 일종입니다. 이 역시 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적 오판입니다.

‘선병(禪病)’ ‘경계(境界)’ ‘마(魔)’는 다 비슷비슷한 것인데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병은 고질적인 사고방식이나 문제점 등이고, 경계는 마음을 흔드는 대상이며, 마(魔)는 참선 중에 겪는 환영(幻影), 환청(幻聽), 환시(幻視) 등 정신적인 것입니다. 선병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경계’와 ‘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계(境界)’란 자신이 부딪히게 되는 수행상의 모든 일들(대상)을 말합니다. 나를 주(主)라고 할 때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이 모두 경계입니다. 이 대상에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는 것은 칭찬, 불편하게 하는 것은 비판과 비난입니다. 칭찬에는 기쁨이 따르지만(그래봐야 잠시일 뿐이다) 비판에는 분노와 증오가 따릅니다. 수행의 척도를 알려면 간단히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환경이고 내적인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열거하면 육체적 · 이성적 욕망에서부터 명예욕 물욕 생명욕 수면욕 권력 등 갖가지 욕망과, 괴로움 번민 번뇌 시기 질투 공포 무서움 등 심리적인 것과, 기쁨과 슬픔 · 노여움과 즐거움 · 빈부와 귀천 · 늙음과 죽음 · 배고픔과 추움 등 견디기 어려운 것, 그리고 옳고 그름(시비) · 망설임과 의혹 · 자존심 · 아만 · 선과 악 · 의(義)와 불의(不義) · 사(邪)와 정(正) 등에 대한 구분과 명석한 판단력 등이 모두 수행자에게는 넘어야 할 대상이고 경계이며, 자신의 수행 척도를 테스트하고자 덤벼드는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수행자들은 자신의 수행력이 과연 어디를 통과했다고 생각됩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판할 때 일어나는 노여움은 뛰어넘었습니까? 아만과 자존심은 뛰어넘었습니까? 탐욕은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도 뛰어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저 역시 하나도 뛰어넘지 못했음).

수행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든 위빠사나든 할 것 없이 아만과 자존심, 욕망과 분노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수작입니다. 수행력으로 안 된다면 이성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정하는 인격 수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魔)’는 환영(幻影) · 환청(幻聽) · 환시(幻視) 등입니다. 참선 중에 헛것이 나타나거나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리는 등 수행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좌선하고 있는데 무기를 든 신장들이 나타난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밖의 일이 보인다거나 등인데 이런 것은 모두 환(幻)의 일종으로서 신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계’는 마음을 흔드는 대상… ‘마’는 참선 중 겪는 환영
수행 중 샛길로 빠져 생기는 이상현상 신기해하면 안돼

또 귀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만 들린다고 하소연하는데 이 역시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하고 오히려 매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수행 중에 잘못된 것입니다. 샛길로 빠진 것인데 그런 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추종하다가 일생을 버린다거나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훌륭한 선승 중에는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선승이 없는데 요즘은 환영, 환시, 환청 등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삿된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마구니’ 또는 ‘마(魔)’라고 합니다.

초기불전에 보면 ‘마(魔)’ ‘마왕’ 등 표현이 많고 또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물론이고 이룬 후에도 앞에서 열거한 갖가지 경계와 마가 나타나서 그것을 극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본다면 ‘경계’나 ‘마(魔)’란 ‘마음의 갈등’ ‘마음의 흔들림’ 등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의 대상(좋은 옷, 이성의 육체 등), 귀에 들리는 청각의 대상(마음을 흔드는 노래, 욕 등 소리), 후각의 대상인 냄새, 미각의 대상인 음식, 감각의 대상인 이성의 육체, 생각의 대상인 모든 존재 등에서 오는 욕구와 욕망, 갈망 등 정신적 현상이 모두 경계이고 마입니다.

경계 · 마는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동요 · 환영 등의 현상으로서 참선의 근본 뜻과 참선 중에 오는 갖가지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교 · 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증세입니다. 차별심, 분별심, 번뇌 망상 등에 의해 생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특히 마(魔)에 대해서는 <능엄경> 10권 변마장에서 50가지 마를 열거했는데 자칫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으므로 안목을 갖고 참고해야 합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선·염불에서 가장 훌륭한 방편 ‘이근원통’

㊵ 보덕 각시

금강산 보덕굴 관음 화신 보덕 각시 출현한 곳
회정 스님 보덕 각시 본 후 정진해 원통삼매 증득

유명한 관음도량인 금강산 보덕굴(普德屈)은 관음의 화신 보덕 각시가 출현했던 곳으로 전해져온다. 고구려의 보덕 화상이 관음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 627년(고구려 영류왕 10) 창건한 도량이며, 고려 의종 때 고승 회정(懷正) 스님이 천수주력(千手呪力)으로 기도해 관음의 원통삼매(圓通三昧)를 성취한 곳이기도 하다.

회정 스님과 보덕 각시의 구도과정이 담긴 설화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고려시대, 표훈사 인근 송라암에는 30대의 건장한 회정 스님이 3년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관음보살’을 부르면서 천수대비주 30만독으로 관음 친견을 발원했다. 1000일 기도정진을 회향하는 날, 스님은 드디어 꿈속에서 귀부인을 만났다.

“강원도 양구현 방산면 해명계곡을 찾아 몰골옹(沒骨翁)과 해명방(解明方)을 만나 보아라. 그러면 관음의 진신을 친견하게 될 것이니라.”

스님은 꿈에서 깨자마자 해명계곡을 찾으니 조그만 오두막에 노인이 있었다.

“혹시 노인장께서 몰골옹이 아니신지요?”

스님이 찾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몰골이 지저분한 그 노인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라”고 일러줬다. 다음날 일찍, 스님은 노인이 일러주는 대로 산 너머에 사는 해명방의 삼간초막을 찾아갔다. 반가움에 달려가 보니 해명방은 보이지 않고 대신 처녀가 초막을 지키고 있었다. 처녀의 이름을 물어보니 보덕 각시라고 했다. 말할 때마다 은은한 향기도 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돼 키가 9척에 우락부락한 해명방이 돌아왔다. 찾아온 이유를 묻자, 스님은 “관음보살을 친견하러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해명방은 “관음진신을 친견하고 싶으면 자신의 딸인 보덕 각시와 혼인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고민 끝에 스님은 사위가 돼 부녀를 밤낮으로 시봉했다. 하지만 각시는 성불구자여서 실제로 부부관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님에게는 부부로서의 참맛을 모르니 불행이었고, 계를 파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행이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해명방은 전혀 관음의 진신을 친견시켜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스님은 떠나기로 결심했다. 돌아가는 길에 몰골옹을 만나 그간의 일을 설명하니, 몰골옹은 이렇게 말한다.

“해명방은 보현보살이요 보덕 각시가 관음보살의 진신인데, 47일을 함께 지냈으면서도 못 보았다고 하는가.”

스스로 안목 없음을 후회한 스님은 다시 온 길을 거슬러 갔지만 초막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재발심후 용맹정진한 스님은 그뒤 각시와 재회하면서 자신의 전생담을 듣게 된다. 각시는 회정이 고구려 비래방장(飛來方丈)의 주인공인 보덕 화상으로 금강산 만폭동 보덕굴에서 수도했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 석굴 속에는 전생에 사용하던 경전과 불기, 촛대, 향로 같은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이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보덕굴이 관음보살의 거처요 전생의 수행처임을 알고서, 그곳에서 열심히 정진해 원통삼매를 증득했다.

관세음(관자재)보살은 <법화경> ‘보문품’에서 신심과 중생구제의 발원을, <반야심경>에서 반야지혜의 길(五蘊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苦와 厄을 넘어선다)을 제시해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 <능엄경>에서는 이근원통의 가르침으로 듣는 성품을 돌이켜 깨닫도록 이끈다. 또 <화엄경>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보시(布施), 친절하게 말하는 애어(愛語),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행(利行), 타인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하는 동사(同事) 등 4섭사(攝事)로 대비행을 닦도록 한다. 관음의 화신 보덕 각시 역시, 이런 방편으로 스님을 깨닫게 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바로 이근원통(耳根圓通)이다. 선과 염불에서 가장 훌륭한 방편으로 여겨져 온 이근원통이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다가 그 소리를 듣는 주인공(自性)을 듣는(살피는) 공부방법이다. 흔히 반문문자성(返聞聞自性) 즉,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고 한다. 듣는 마음을 다시 관조하면 소리도 사라지고 듣는 그 자신도 사라져서 우주와 하나가 돼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법문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108능엄주 기도=**부산 옥천사는 11월 1일 오후 5시부터 능엄선원에서 108능엄주 기도를 실시한다. 기도비는 2만원이상, 음료와 간식은 개인 준비해야 한다. 2일 오전 8시에는 신청자 80명에 한해 경주 남산 청룡사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51)781-1744

●**위빠사나 집중수행=**붓다선원은 11월 20~24일 연기 지장사에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김열권 법사가 개인에 맞는 수행방편을 찾아 일상에서 가능한 수행법을 지도한다. 동참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 15명 접수가능. (041)868-3119

●**사경법회=**서울 능인선원은 11월 6일 오전 11시 국녕사 대불전에서 사경법회를 개최한다. 사경집은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관음경>으로 5일까지 사경원장에게 사경검인을 받아야한다. (02)577-5800

●**오덕수련원 집중수련회=**수행공동체 ‘제따와나’는 11월 3일 저녁 7시부터 30일까지 남양주시 축령산 오덕수련원에서 집중수련회를 연다. 미얀마 최고 수행승 파욱 아치나 스님과 제자 우레와다 스님이 좌선과 경행을 지도하고, 수행점검한다. (070)8267-0108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석가모니부처님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괘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괘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 · 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괘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특괘불(大 · 中 · 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품목 단청, 탱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리아기획 상담전화 : (02)714-7253 / 010-9939-5412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뜻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봉,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염화실 그림자 여천 무비(如天 無比) 지음
염화실 펴냄 | 1만원

무비스님이 인터넷과 여러 법회를 통해 주창해온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는 인불사상(人佛思想)에 대한 조사와 경전의 설명이 잘 깃들여져 있다. 염화실 법향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받들어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전한다. 우리네 삶을 되짚어 보고 행복한 삶으로 가꾸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



줄 없는 거문고 –죽비 · 竹篦
박현광 편저 | 학수림 펴냄 | 1만원

현대인은 불교가 우리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려있지만 어렵다고만 한다. 불광사 현광스님은 기초교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조상의 마음을 일깨우고 생활의 지표가 될 수 있었던 힘을 설명한다. 불교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이를 위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책이다.



미얀마 산책 크리스틴 조디스 지음
고영자 옮김 | 대숲바람 펴냄 | 1만5000원

미얀마 사람들이 억압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작가는 미얀마를 세 번이나 여행하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의 발원지를 불교에서 찾아낸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불탑들, 이라와디강 주변 풍경의 세밀한 묘사와 미소를 함께 느껴보자.



거대한 일상
백무산 지음 | 창비 펴냄 | 7000원

'노동자 시인'으로 불려온 백무산이 인간을 둘러싼 삶의 조건을 선(禪)적 시세계로 확장했다. 화장터, 운주사, 감은사지에서 노래하는 시를 통해 치욕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일상을 직시하고 노동의 현실을 새롭게 각성하는 고백을 담은 시들은 단연 압권이다.



뜨거운 물 단식의 기적
김종수 지음 | 정신세계원 펴냄 | 1만3000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강법으로 뜨거운 물 단식과 함께하는 기림산방 7대 건강 수행법과 생로병사의 원리를 밝힌다. 저자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건강 메시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황금똥에 대한 삼매
고영섭 시집 | 연기사 펴냄 | 8000원

'냄새 곱고 빛깔 누런 똥을 누는 삶!'을 꿈꾸는 시인 고영섭. 그의 시적 의단은 '몸'과 '물'을 거쳐 '똥'에 이르렀다. 문명의 찌꺼기인 '문자똥'의 비실체성에 집중하며 뽑아낸 그의 언어가 향기롭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3	인과경	현담	선
4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7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0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 원택 스님 엮음 | 김영사 펴냄 | 1만2000원

성철 스님 수행기의 완결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는 없을까?"

단 하나의 화두를 들어 스스로 정진해 스스로 깨우치신 분, 성철 스님(조계종 前 종정 · 1912~1993) 흔적을 쫓아 화엄종찰 해인사에서 느릿느릿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갈듯 평온한 곳에 고즈넉한 백련암이 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을 지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인데 태양은 붉을 빛을 토해 푸른 산에 걸렸다'고 하신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주련으로 남아 스님의 오롯한 정신을 되새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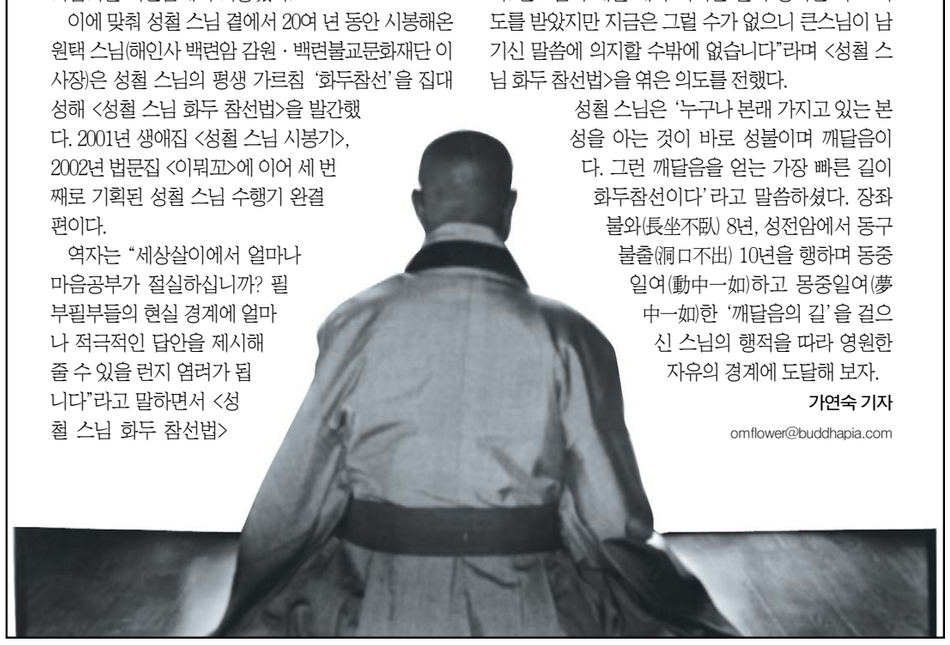
성철스님문도회(회장 천제)는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반 15주기를 맞은 10월 18일(음력 9월 21일) 추모 7일철야 8만4000배 참회법회를 백련암에서 회향했다.

이에 맞춰 성철 스님 곁에서 20여 년 동안 시봉해온 원택 스님(해인사 백련암 감원 ·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성철 스님의 평생 가르침 '화두참선'을 집대성해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을 발간했다. 2001년 생애집 <성철 스님 시봉기>, 2002년 법문집 <이뭐꼬>에 이어 세 번째로 기획된 성철 스님 수행기 완결편이다.

역자는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마음공부가 절실하십니까? 필부필부들의 현실 경계에 얼마나 적극적인 답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런지 염려가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이 살아생전 스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살리되 초보 수행자들도 쉽게 참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적멸의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은 '화두'라는 참구법으로 화두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과 참구의 관문 그리고 참선 중에 만나는 병폐와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기준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담아 선수행자들의 지표가 되도록 한다. 가야산의 메아리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성철 스님의 참된 가르침은 '참선하는 법'을 주제로 한 육성 법문 CD와 함께 덧붙여져 실제 곁에 계신 선지식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역자는 "참선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큰스님이 계실 때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지도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 큰스님이 남기신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을 엮은 의도를 전했다.



성철 스님은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아는 것이 바로 성불이며 깨달음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 화두참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장좌불와(長坐不臥) 8년, 성전암에서 동구불출(洞口不出) 10년을 행하며 동중일여(動中一如)하고 몽중일여(夢中一如)한 '깨달음의 길'을 걸으신 스님의 행적을 따라 영원한 자유의 경계에 도달해 보자.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는 실천지침



자비의 명상
법안 스님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누구나 잘 살고자, 행복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까? 불교방송에서 1분 법문을 진행하고 있는 법안 스님이 그 길을 제시한다. <자비의 명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러나 인류의 미래에도 계속될 이 물음을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소개한다.

편저자 법안 스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물질적 장치들을 만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을 더욱 부채질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한다.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에 유독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대한 통찰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스님은 이 시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본다. 무한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는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기대며 가야 할 존재들인 가족이나 동료, 이웃을 오직 경쟁의 대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스님은 "내가 준다, 내가 베푼다, 이런 조건적인 생각은 장사하는 이들의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충고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스님의 대답은 간단하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늘 염송하면서 자꾸 무엇을 주십사, 빌기만 했지 내가 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꼬집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처럼 대자대비를 베풀자"고 실천행을 제시한다.

이 책은 <숫타니파타>의 제143~152 게송, 흔히 <자비경>이라 불리는 10개의 게송을 중심으로 부처님 말씀 30개를 명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일상의 번잡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관무량수경>에 있는 관법명상을 함께 실었다. 스님은 "<자비경> 한 송을 염송하고 부처님 말씀 30개를 명상하다 보면 홀쩍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나은 기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8>

"49년 동안 설법의 수레 굴리셨네"

이렇듯 핍발라굴(畢鉢羅窟)에서 500명의 대아라한(大阿羅漢)이 모여 경전(經典)을 결집(結集)한 일을 후인들은 제1회결집(第一回結集), 또는 상좌부결집(上座部結集), 혹은 굴내결집(窟內結集)이라 한다. 따라서 이 결집(結集)이 이루어진 시기는 서력기원전(西曆紀元前)554년이라는 설(說)이 유력하고, 이때에 결집한 내용은 경(經)과 율(律), 이장(二藏)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결집에 앞서 아난에게 그토록 심한 시련(試鍊)을 안겨준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 모임에 모인 대중이나 송출(頌出)하는 이나 결집하는 절차(節次)가 모두 청정하고 여법(如法)해야 거기서 일궈낸 작품(作品)에도 믿음이 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아난존자에게는 평소 불미(不美)스러운 말들이 따라다녔던 터라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 듣는 이들의 마음에 양해(諒解)하는 공증이 생기게 함으로써 송출자(頌出者)의 자격에 흠(欠)이 없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 덕에 종이에 쓰거나 녹음(錄音)을 해 두지 않았어도 오늘까지 국경(國境)을 겹겹으로 넘으면서 번역(飜譯)하고 다듬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손실 없는 경전이 전해지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쉽게도 일설(一說)에는 굴내결집(窟內結集)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비구(比丘)들이 따로 굴 밖에서 바사가(婆師迦)를 중심으로 법회를 열어, 경을 결집하니 그것을 굴외결집(窟外結集)이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통일(公論統一)은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 주기도 한다.

아난의 시련은 공신력·절차의 공정성 의미
600년 사이 4차례 결집, 대소승 삼장 망라

제1회결집(第一回結集)을 필두로, 불멸후(佛滅後) 100년 경에 야사(耶舍)라는 비구의 주선으로 비사리(毗舍離)지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십비사(十非事)라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칠백 비구가 모여 율장을 결집하니, 이를 제2회결집(第二回結集)이라 하고. 불멸후(佛滅後) 330년 경에 이루어진 제3회결집(第三回結集), 불멸후(佛滅後) 600년경에 이루어진 제4회결집(第四回結集) 도합 네 차례의 결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여러 차례의 결집에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다시 말해 어떤 경론들이 어떤 각도로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이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한걸음 물러서서 제1회결집에서 어떤 경론들이 결집되었을까 정도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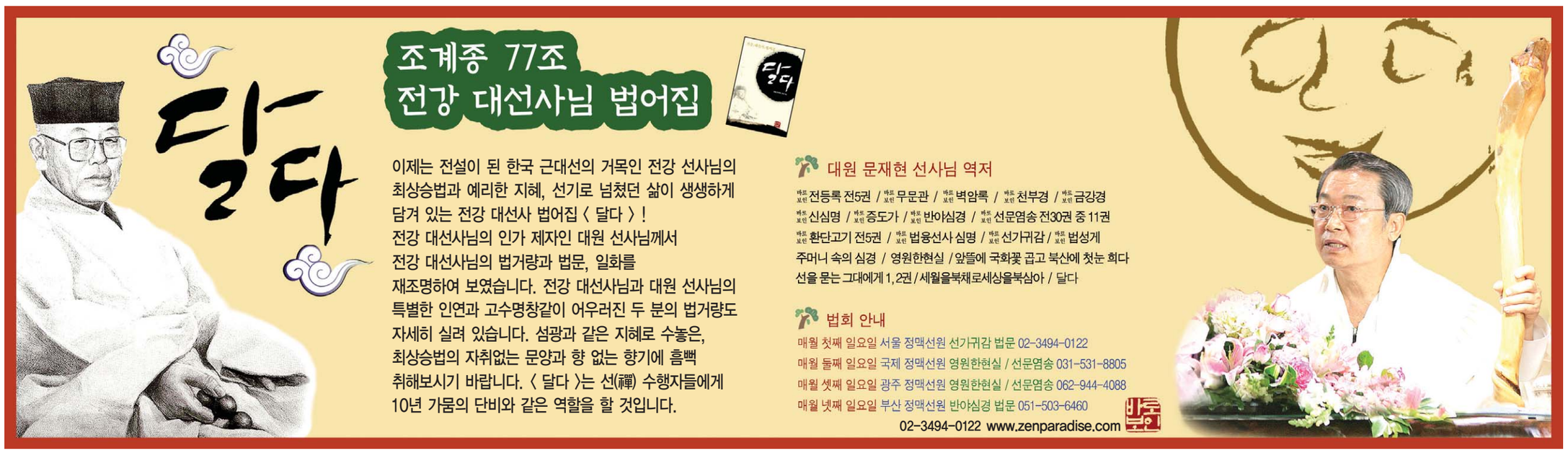
우선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대시교송(一代時教頌)이 전해지고 있다.

아함십이방등팔(阿含十二方等八) 아함을 12년 방등을 8년간 설하시고,
이십일재담반야(二十一載談般若) 21년 동안에는 반야부를 설하시고,
종담법화부팔년(終談法華復八年) 법화부를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설하시니,
전어사십구년설(轉於四十九年說) 49년 동안 설법의 수레를 굴리셨네.

이는 우리에게 전래(傳來)하는 이른바 구불기설(舊佛紀說)의 근거(根據)로서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시다가 79세에 입멸하셨다는 내용(內容)이다. 구불기설의 줄거리는 부처님께서 주(周)소왕(昭王) 26년 갑인(甲寅) 4월 8일에 탄생하시니 서력기원전(西曆紀元前) 725년이요, 주(周) 목왕(穆王) 53년 임신(壬申) 2월 15일에 입적(入寂)하시니 서력기원전 656년으로써 현행 불기와는 483년의 차이가 생긴다.

어쨌든, 이 불기설(佛紀說)에 준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미 오부대경(五部大經)을 다 설하셨으니, 제1회 결집시에 결집된 경전의 범위는 대소승삼장을 총망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❶ 개그맨 전유성의 밥 철학

"한솥밥을 먹어야 얼굴을 알아본다"

전유성을 만났다. 그를 만난 게 대여섯 번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웬만해선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향을 익히 아는지라 초면인 듯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예원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여전히 바빴다. 제목만 보아도 누구의 작품인지 알만한 '듣도 보도 못한 콘서트'라는 포스터가 한쪽 벽에 붙어진 책상 앞에서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내년엔 청도에서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기상천외한 발상이 역시 그답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두 후배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섰다.



개그맨 전유성.

"스트레스에 최고로 좋은 약이 뭔지 알어? 건망증이야. 옛날에 성철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일러달라고 했더니, 성철 스님이 그랬다잖어. 앉을 때는 앉아있는 생각만 하고, 서있을 때는 서있는 생각만 하라고."

이십 여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성북동에 위치한 작은 한정식집(이향)이다. 두 번째 들르는 곳인데, 문득 생각이 나서 들러보는 거란다. 간단한 코스정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유성의 후배사랑이 이어진다.

"박경리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잖어.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튼실한 사람 만나서 농사짓고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도 다른 건 따질 거 없고, 여자 때리지만 않는 튼실한 놈을 만나라구. 사위를 얻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직업부터 묻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튼실하냐 튼실하지 않냐잖어."

공연기획과 연출, 제자 양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전유성의 직업은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식당 '쥔장'이다. 그는 경북 청도에서 찻집 겸 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일단 가게의 제목과 간판그림이 나름 의미심장한데, 쏟아진 커피잔과 흘린 커피 그림을 달았단다.

"보통 커피 집 간판을 보면 커피잔을 그려 넣고 커피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커피잔을 파는 집이지 커피집이 아니잖어. 속에 커피가 보이던지, 커피가 들어있는 표식으로 목욕탕 연기라도 그려 넣어야 말이 되지.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커피 잔을 쏟아 커피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야. 청도니까 경상도사투리로 '니가 쏘다쩨'라고 이름지은거구."

'니가 쏘다쩨'의 주 메뉴는 짬뽕과 피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음식을 대표메뉴로 정한 데에는 특별할 이유는 없고, 그렇게 먹으면 맛있기 때문이란다. 식당을 하게 된 이유 또한 별다른 건 없다. 그저 '심심해서'다. 대화가 무르익는 동안, 온갖 성찬이 즐비하게 차려졌다.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바라보자니, 무언지 영 섭섭한 모양이다.

"이게 실은 다 안주인데…. 술안주들을 놓고 밥만 먹으려니 좀 이상하네."

알고 보니 그는 보통 애주가가 아니다. 소주에서부터 와인, 칵테일, 막걸리에 이르기까지 술이라면 두루 섭렵한지 오래다. 오늘은 난생처음 새벽6시에 동대문운동장 앞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셔보았단다. 그 이유가 자못 궁금했으나, 이젠 돌아올 답을 뻔히 알만하다. 분명 '심심해서'였거나 '그냥 하고 싶어서'였을 게다. 하기야 무언가에 마땅한 이유들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번을 만났지만 오늘에야 전유성의 말투와 표정 너머의 그를 만난 것도 같다. 한솥밥을 먹어서일까. 밥집을 나와 남산 만하게 튀어나온 그의 배를 잠시 만져본들 실례될 것 같진 않았다. 그는 기꺼이 부푼 배를 내보이며, 얼마 전만해도 '王'자가 새겨진 배였다고 소개까지 한다. 상태를 보아하니 도통 믿어줄만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 끌리는 대로 솔직히 살아가는 자유인임은, 후배들을 챙기는 마음씀씀이가 가을볕만큼이나 따사롭다는 것은 굳이 말 안 해도 알만하다. 한솥밥 먹고 똥똥한 배를 공유까지 한 사이이니, 예닐곱 번째 만남에선 얼굴을 알아보진 않을까.

함영은…

'글짓기'보다 '밥짓기'가 더 어설픈 자유기고가. 산사의 음식과 웰빙식단 등 '밥'을 주제로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밥맛이 극락이구나>를 펴냈다.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❸



침향·백단·전단·자단·천단향 '불가 으뜸'

용연향은 향유고래 수컷으로부터 얻어지며 앰버그리스라고도 한다. 향유고래는 오징어 등을 주식으로 한다. 번식기에 투쟁 · 번식을 하는 수컷은 위장의 소화기능이 약해져 먹은 것을 채 소화되지 않은 채로 토해낸다. 이 토사물이 오랜 세월 바닷물에 씻기고 햇볕에 마른 채로 떠다니다 해안에 안착된 것에서 향료성분을 정제 · 추출해 향수를 만든 것이 용연향이다.

용연향은 그 자체로는 향이 너무 강해 고약할수도 있지만 수백배로 희석해 향료로 사용한다. 특히 다른 향의 향기를 오래 보존시키는 효능이 뛰어나 향수 산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향이다. 용연향이라는 이름은 용이 흘린 침에서 기인한다.

세계 3대 향에는 지금까지 알아본 사향, 용연향도 있지만 불가에서는 5단(五檀) 향을 단연 으뜸으로 친다. 불가의 5단향은 침향, 백단, 전단, 자단, 천단이다. 동물성 향인 사향이나 용연향이 빠지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나 침향은 불가의 5단 향목에서도 최고로 여겨진다.

개신교 신자들은 하나님이 처음 심은 나무가 침향목이라 믿는다. 중동에서는 침향을 예로부터 가장 성스러운 예물로 간주하고 각종 질병에 침향을 이용 중이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중국의 <중약대사전>을 비롯해 전세계의 약전(藥典)에는 반드시라 할 만큼 침향은 가장 귀한 약재로 언급이 되고 있다.

침향은 침향나무 수지가 여러 요인에 의해 흘러나와 오랜 시간을 두고 굳어지고 숙성돼 만들어지는 결정체다. 학명은 A.A.R이라 한다. 이는 아퀼라리아 아갈로차 로브(Aquilaria Agallocha Roxb)의 약자이다. 베트남에서는 짬~흥이라고 불린다. 베트남에서의 공식 학명은 아갈로차 크라싸나(Aquilaria Agallocha Pierre)이다. 침향은 영어로 아가우드(Agarwood)라 통칭되지만, 아가우드는 아퀼라리아(Aquilaria) 속에 속하는 모든 식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침향은 Aloes(침향)로도 불리며 알로에(Aloe)와는 다르다. 한국의 일부 성서학자들이 성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심었다는 나무 Aloes(침향)를 Aloe(알로에)로 잘못 알고 있음은 인식부족에서 온 오류로 보여진다.

침향의 이름이 많은 이유는 침향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귀성으로 인해 진품 아닌 가짜가 판을 치고 이제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세태가 빚어져 용어와 학명을 살펴봤다.

불가에서도 침향은 중요하게 여겨졌다. <법화경> '분별공덕품'에 침향은 전단과 함께 하늘의 꽃비로 묘사됐고 '법사공덕품'에는 "<법화경>을 몸에 지니는 자는 지상에 있으면서도 천상에 있는 모든 향기를 맡는다"며, 하늘나라 최고의 향으로 침향을 언급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최고의 공양인 불상의 복장물에 침향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향목을 안치했고, 더욱이 왕이나 고승 다비에 반드시 5단향을 사용해 다비를 행했다고 알려진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❽ 선다이어트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음식 '에너지원이자 약'으로 여겨야 비만 탈출

 #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날씬해질 수는 없을까?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날씬하다.' 정말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상상이다.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사람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탄력 있는 몸매를 위해서, 또는 질병상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 등에게 가장 고려되는 문제가 바로 음식조절이다. 입맛에 착 달라붙는 음식을 조절 못해 결국 모든 다이어트가 수포로 돌아가거나, 각종 성인병 등 질병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인간에게 음식은 나의 존재에 대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제공함은 물론 근본적인 자신감과 인성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비만으로 생기는 각종 질병 등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각종 병의 인과관계에 있어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정말 날씬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 똑같은 양이라도 섭취하는 마음가짐에따라 결과는 다르다

어떤 이들은 많이 먹어도 날씬하지만 어떤 이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한다. 그렇다면 똑같은 음식을 먹고 거의 똑같은 양을 섭취하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사람마다 대사량 차이도 있겠지만, 똑같은 음식이라도 받아들이고 섭취하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우선 음식을 대함에 있어 이 음식이 어디서 오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 있을까에 대한 감사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욕구충족의 '탐하는 마음'이 아닌 '나의 삶을 영위 시켜주는 에너지원이자 약'이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먹는다.

현대인들은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노이로제, 즉 '비만'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다 먹으면 살이 찌는데" "오늘도 과식이네" "이것만 먹고 더 이상 먹지 말자" 등 본인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보면 먹는 양은 욕구 불만으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먹으면서도 기쁘기보다 스트레스만 쌓인다. 그러다보니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비만은 물론이고 음식도 소통이 아닌 정체가 돼 에너지원으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헛살이 되고 만다.

 # 식(食)이 곧 인성(人性)이다

<사분율>에는 "때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제철 음식을 먹으며, 과식을 금하고 골고루 섭취하라"고 나와 있다. 이는 정신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음식의 섭취에 따라 성품과 심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불안초조한 사람이 껌을 씹듯이 충족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은 과식하지 않는다. 허전한 공허함을 자신도 모르게 음식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비만은 감정상태와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 살이 찌는 것은 저축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현대인들은 계속 저축한다. 물질적으로는 더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안감과 허전함이 몸의 메카니즘을 자극해 공허함과 외로움을 음식에라도 매달려 채우고자 하는 것이다. 많이 기쁘고 만족하며 놓아버리고 자유로울수록 덜 먹게 될 것이다.

 # 빠지는 몸살 마음살, 몸짱 마음짱

'비만'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기쁘게 음식물을 받아들이며, 탐하는 마음이 아닌 약이라는 감사한 생각으로 음식을 대하다 보면 불필요한 살은 붙지 않을 것이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담하고 무심하면서도 정성스런 음식을 섭취하다보면 뇌도 맑아지고, 몸을 가볍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도 되고 성인병도 예방된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빠지는 몸살 뿐 아니라 해방되는 마음의 살로 인해 몸짱 마음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몸짱과 더불어 마음짱도 정말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 (02)576 - 7575 (계속)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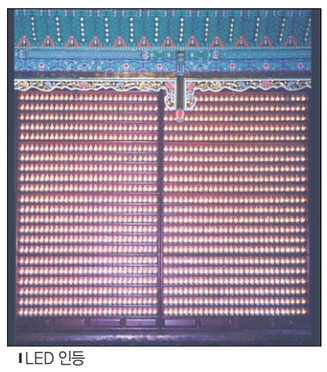

백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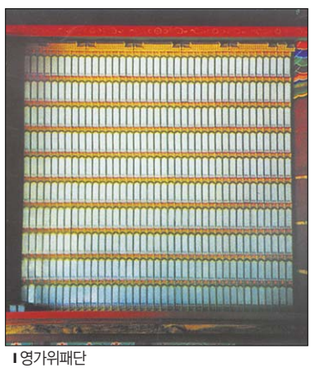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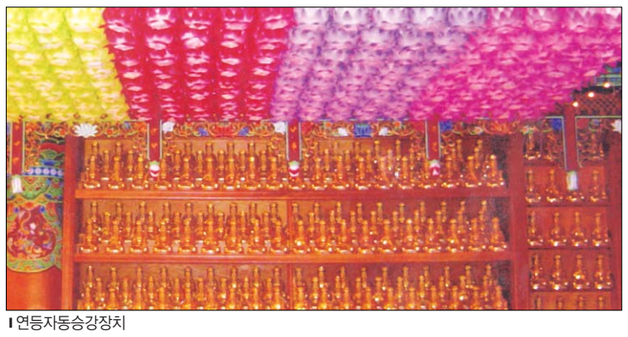

LED 인등


영가위패단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연등자동승강장치


LED 전구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 · 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 (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이연실 도예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제2전시실서

차 따르는 소리 가득한 다관에 돌부처가 살아 숨 쉰다.

제2회 이연실 도예전이 11월 5~11일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돌돌돌, 찻물 흐르는 소리' 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다관(茶館)을 중심으로 찻상과 도자기 벽화로 구성된다. 서양 건축적 소재를 전통적 색채로 입힌 다관은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온다. 돌을 찻상으로 하고, 부조형식의 도자벽화에 불교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디자인적 형태와 문양을 시도했다. 이연실 씨는 "석축, 탑, 부도 등에서 자연석 돌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현대의 공간에서 잊혀져가는 돌의 풍광들을 도자벽화에 담아보고 싶었다"며 "서양 건축적 양식과 친숙한 우리 문화가 어우러져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2007 유네스코 부도형다관 부분 우수공예품 등에 수상경력이 있는 이연실 작가는 현재 다도가이자 도예강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도예전은 11월 21~26일 안산 단원미술관에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제5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환과 확장'으로 조명한 미래의 소통



Anaisa Franco 作. connected Memories

'촬라 생멸은 미디어(Media)의 속성이다.'

제5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가 11월 5일 폐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립미술관에는 8만 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전환과 확장(Tum and Widen)'을 주제로 전통적인 미술과 '미디어아트(Media Art)'의 차이를 찾아 변화를 밝히고 미래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다.

'빛'의 공간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자파 또는 파동으로 연출된 빛의 이미지와 효과를 주제로 한다. 일상 소재들을 이용해 작가들의 궁극적인 물음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가?', '기술적 매체들이 인간의 지각에 관여하는 방식', '출생과 죽음' 등을 표현한다.

'소통'의 장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상호 협력적인 인터랙티브(Interactive) 설치 작들로 가득 하다. 전통미술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수동적이었다면 미디어아트는 참여로써 대화를 가능케 했다. 라파엘 로사노 헤머의 '폭발:그림자 상자 4번'는 트렉킹 시스템을 이용해 관람객의 표정과 자세를 다양한 화면변화로 나타내 공존을 다시 정의하게 한다. 존재와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가 연결되어있다는 화엄 사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밀접한 세계를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다.

'시간'의 공간은 비디오 아트 및 애니메이션,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움직임을 담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미지 변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시간의 경계를 넘나든다. 같은 살인 사건을 2개의 다른 시각으로 찍은 양푸동(37.중국)의 영상 '지얼의 가족'은 청각의 시각화와, 관점과 해석의 다양성를 표현한다.

디지털은 미술이 지닌 공간과 시간의 영역을 변화하고 재구성한다. 예술가들은 자연의 섭리가 지닌 제한성을 극복해 인공적로 재발견하고 창조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현세 속으로 자아의 실체를 과감히 해체하고 있다. (02)2124-8800

가연숙 · 이상언 기자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임동조 석공作 '부도탑'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아름다운 한국 문화의 감동 그대로…

임동조씨.

"석조를 하다 보면 오래된 문화재를 많이 봅니다. 경복궁 내 전시된 유물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던 과정에서 수장고에 보관된 흥법 국사의 부도탑을 복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 명인들의 올림픽,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한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에서 임동조(한식석공 1396호) 석공이 정토사 흥법 국사의 부도탑을 복원해 전시한 '부도탑'(아래사진)이 영예의 문화관광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정토사 흥법 국사 부도탑은 대리석으로 조성돼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마모되고 소실된 상황이었습니다. 8각의 귀마다 달린 꽃이 3개만 남아 있었고 탑을 마무리하는 석재 '모림'이 소실된 것을 보고 기막히게 아름다운 작품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도는 일종의 무덤이지만 스님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불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탑신이 둥근 공 모양으로 특이점을 지닌 '알뚝' 안에는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탑신의 지붕인 옥개석 천장에 새겨진 비천상을 비롯해 모든 조각은 극락세계를 연상케 했지요."

임 석공은 1년 가까이 시간을 복원 작업에 매진했다. 필요한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자로부터 도움 받아 연구하면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에게 참고를 구했다. 한국에서 대리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실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입자 고운 화강석으로 대리석과 같은 질감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다.

고려 목종(997~1009년) 승려 흥법 국사의 부도인 정토사 흥법 국사 실상탑(국보 102호 · 높이 255cm)은 8각 지대석 위에 복판연화로 된 복련석을 얹고 8각 간석면에는 운룡무늬를 조각했다. 옥개석 밑면 천정에는 비천상이 새겨있으며 한쪽부분만 남은 8각 귀꽃 전체를 복원하고, 없어진 상륜부는 원형 탑신에 의해 상륜부 형태를 문화재 고증에 의해 원형 8각 연꽃모양에 보륜을 만들어 복원했다. 전통가공기법인 고운 도드락 마감으로 국보를 재현했다.

"저는 문화재를 다루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 광화문 이전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 복원된 자료를 바탕으로 14.5m 남쪽으로 이전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원형을 찾아서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다섯 개 궁(宮)을 복원하면서 사라져 가는 문화재를 수호하고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후대에게 전승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우리 땅에서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재탄생시키는 장인들의 노고가 어우러진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은 10월 31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관람 가능하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벨기에로 간 '영산재' 평화의 법석 연다

한국불교문화 행사 내년 2월까지 풍성

21세기 달마(佛法), 서유럽으로 가다!

초콜릿과 맥주로 유명한 '벨기에 왕국'으로 한국불교문화가 여행을 떠난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본부가 있는 벨기에 CFA(Center For Fine Arts) 공동 주최로 내년 2월 28일까지 브뤼셀 CFA에서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다.

한국불교 의식의 정수 영산재는 11월 1일 앙리르베프 홀에서 공연한다. 수세기 동안 전승되어온 영산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 재현이라는 취지 이외에 국운 융성과 인류 평화를 발원하고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의식을 봉행한다. 또한 불교 사진작가 선암 스님의 영산재 사진 50여점이 지난 프랑스 전시에 이어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0월 8일 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보자르 홀타 홀에서 故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108번뇌'展, 앙리르베프 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 미술展 '부처의 미소'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다.

벨기에 한국페스티벌 행사는 2007년 5월 벨기에 총리가 한국종합문화행사 개최 공식제의 서한 서신으로 추진된 한 · 벨 문화교류의 일환이다.

가연숙 기자

심곡암 11월 2일 산사음악회

깊어가는 가을 북한산 자락 심곡암에서 평화의 음악이 펼쳐진다.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은 11월 2일 오후 1시 '산사음악회-종교 화합 그리고 평화'를 개최한다. 진명 스님 사회로 국악인 오정해 씨와 이성우 클래식기타리스트의 공연, 천지윤 씨의 해금 공연 등이 이어진다. 또한 불자가수 지혜월 씨와 뮤지컬배우 손지원 씨 등도 출연한다.

행사 전 12시에는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심곡암 지부 개원식이 열린다. (02)914-8869

김진성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 BEST 추천도서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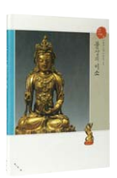


| 왕초보 드디어 불교의 고수가 되다 |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 양장 | 319쪽 | 값 9,500원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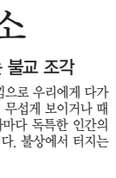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
계환스님 지음 | 4×6판 | 양장 | 304쪽 | 값 9,500원 민족사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 양장 | 328쪽 | 값 9,500원 민족사



불상의 미소
시대의 미의식과 문화가 숨 쉬는 불교 조각
사찰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얼굴은 여러 가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연예인처럼 잘 생기신 부처님이 있는 반면, 무섭게 보이거나 때로는 부드럽게 웃으시는 부처님도 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인간의 모습을 닮은 형상으로 불상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불상에서 터지는 그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은우 지음 | 235×305mm | 양장 | 72쪽 올컬러 | 값 20,000원 보림

극락을 꿈꾸다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의 나라
불화는 불교 교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불화에는 선조들의 생활과 신앙, 바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즐거움이 가득하고 온갖 보배가 널려 있는 등 유토피아를 그린 것이 있는가 하면, 서민들의 애환과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후 지옥에서 겪게 될 끔찍한 고통을 보여 주어 몸서리치게 만들기도 한다.
김정희 지음 | 235×305mm | 양장 | 72쪽 올컬러 | 값 20,000원 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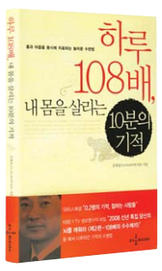
마음의 고향(전5권) 만유일체(萬有一體) 두두물물(頭頭物物) 세상 모두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청화 큰스님께서는 1947년 24세 나이에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대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시고 그 후 50여 년 동안 수행에 정진하셨습니다.
청화 큰스님의 강의를 집대성한 법문집 「마음의 고향」시리즈는 성불(成佛)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큰스님의 말씀을 어투와 내용의 훼손 없이 옮겨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청화 큰스님의 육성을 고스란히 후세에 전하고 기록하고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淸華 큰스님 | 신국판 | 전5권 | 값 63,000원 도서출판 상상예찬



광명진언 사경
"백중기도, 수능 및 시험 합격발원"에 신란심을 없애고 일심(一心)이 되게 하는 광명진언 사경을 !!!
"「광명진언」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眞言으로 모든 진언 중 가장 묘하고 보배로운 진언眞言이다."
지범 엮음 | 340×215mm | 208쪽 | 값 15,000원 심궁출판사

맑고 밝은 마음 백팔배
'맑고 밝은 말 한마디' '귀의 삼보' '참회' '감사와 발보리심' '서원'으로 구성된 한글 완역본 백팔배, 부처님 예경서!
통도사 적멸보궁에서 천일기도용으로 사용함
지범 편저 | 220×285mm | 51쪽 | 값 10,000원 심궁출판사
※ 별매 - 맑고 밝은 마음 백팔배 CD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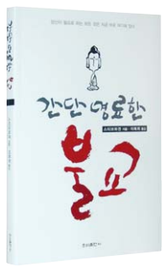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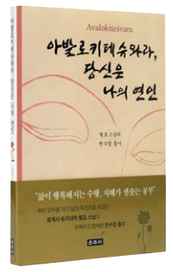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SBS스페셜 "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2008년 신년 특집 당신의 뇌를 깨워라 〈제2편 - 108배의 수수께끼〉" 등 에서 다루어진 기적의 수행법
이 책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을 바른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소개하고 있다. 막역한 친구가 당뇨로 쓰러진 후 108배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본 저자는 한의사로서 '절이 가진 운동의 효과와 의학적 치료성에 주목한다. 108배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여분, 이 10분이 병든 몸과 마음에 끼치는 기적 같은 힘을 자신은 물론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저자는 절하는 방법을 바꿔가며 운동법으로서 가장 좋은 절 동작을 연구해 소개했다.
김재성 지음 | 신국판 | 237쪽 | 값 10,000원 아름미디어



이와같이 살았으면
| 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하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나 또는 불교적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한 권의 보현행원품으로도 충분 하며 불교와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할 보현행원품을 공부하는 것은 불자로서 필수적인 일이다.
인터넷 전법도량 다음 카페〈염화실〉은 불교 경전과 어록들을 총망라하여 동영상과 육성으로 해설 강의 함으로써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하는 설법 자료의 보고(寶庫)입니다.
http://cafe.daum.net/yumhwasil 무비스님 풀어씀 | 신국판 | 194쪽 | 값 7,000원 拈花室



간단 명료한 불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눈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스승이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내용이 두드러진 책이다. 이 책을 강력 추천하는 바이다.
〈일상의 선(Everyday Zen)〉의 저자, 샬럿 조코 백(Charlotte Joko Beck)
이 책은,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향해 곧바로 난 유쾌한 길이다.
〈누가 죽는가?(Who Dies?)〉의 저자, 스티븐 러바인(Stephen Levine)
스티브하겐 지음 · 이복희 옮김 | 4×6판 | 246쪽 | 값 10,000원 우리출판사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쌍계사 승가대학 - 월호스님의 천수경 풀이
삶이 행복해지는 수행, 지혜가 샘솟는 공부!
- 우리 모두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이끄는 유쾌하고 명쾌한 천수경 해설
- 실제 강의를 듣는 듯한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
- 일상에서의 다양한 일화와 예화, 생활속의 이야기들을 통한 재미있고 살아있는 해설
"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내가 관세음보살한테 바라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주리라."
" 월호스님 지음 | 국판 | 240쪽 | 값9,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웃음보살 불등거사 〈21〉

구성 : 김흥인



한 개의 콩 때문에 많은 콩을 잃은 원숭이 [백유경(百喩經)]



옛날 원숭이 한 마리가 콩 한 줌을 들고 있다가 잘못해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곧 손에 쥐었던 콩을 버리고 땅에 떨어진 한 개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 한 개도 찾지 못하고 먼저 버린 콩은 닭과 오리가 모두 먹어 버렸다.
집을 떠난 범부도 그와 같다. 처음에는 한 가지 계율을 범하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방일은 더욱 더 뻗어 가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콩 한 개 때문에 콩 모두를 버리는 것과 같다.

옛 팔화의 세계

가섭존자가 법을 부촉하다
가섭부법(迦葉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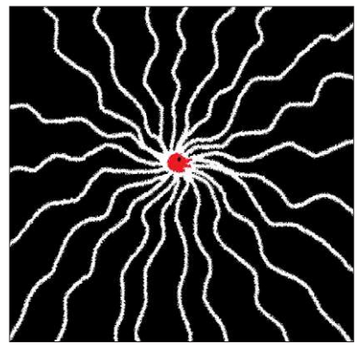
〈석씨원류수상〉 중 가섭부법(迦葉付法), 비곡낙韓(飛谷樂韓) 편, 1673년 간행, 비곡낙韓(飛谷樂韓) 272×180cm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마하가섭 존자가 아난에게 법을 전하는 장면이 한 폭의 산수화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문에 보면 마하가섭이 열반에 들려 할 때 가장 뛰어난 법을 아난에게 부촉하며 말했다. "장로여, 알지어다. 예전에 세존께서 법을 내게 부촉하셨다. 내 나이가 늙어 몸이 못쓰게 돼 곧 열반에 들려한다. 세간에서 가장 뛰어난 안목을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 이 법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아난이 답했다. "좋습니다. 오직 그렇게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에 아난은 묘법을 설하며 모든 중생들을 교화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법의 사자상승의 전통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자상승은 제1세 마하가섭 존자, 제2세 아난다 존자, 제3세 상나화수 존자, 제4세 우바국다 존자, 제5세 제다가 존자, 제6세 미차카 존자, 제7세 바수밀 존자, 제8세 불타난제 존자, 제9세 복타밀다 존자, 제10세 협 존자, 제11세 부나야사 존자, 제12세 마명 존자, 제13세 가비마라 존자, 제14세 용수 존자, 제15세 가나제바 존자, 제16세 라후라다 존자, 제17세 승가난제 존자, 제18세 가야사다 존자, 제19세 구마라다 존자, 제20세 사야다 존자, 제21세 바수반두 존자, 제22세 마나라 존자, 제23세 학륵나 존자, 제24세 사자 존자, 제25세 바사사다 존자, 제26세 불여밀다 존자, 제27세 반야다라 존자, 제28세 보리달마 존자, 제29세 신광혜가 조사, 제30세 감지승찬 조사, 제31세 대의도신 조사, 제32세 대만홍인 조사, 제33세 대감혜능 조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한 불법이 인도와 중국의 33 조사들을 거쳐 전해진 이 법맥은 우리나라에서도 도도히 이어지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붉은 우주의 심장

확실한 예감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정신이 우주를 꿈이라 역설했지만
인류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물질이 우주가 꿈임을 말 하리라
과학의 최정상은 우주가 하나의
꿈이란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영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산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년)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건강 · 역학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심신 평생 무병 건강법
구궁 당주역 간편 비법
건강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052)264-8183
011-855-8180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산신용왕,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경락마사지 및 규열요법
목,어깨,허리,무릎,발관리
비만관리 및 커피관장 장청소
경락마시지와 규열요법으로
통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립니다
스님 및 불자 환영,출장가능
경락및 규열요법 배워서 하실분 환영
010-5190-3688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꿈을 찾는 이에게 꿈을....
평생교육불교강좌. 참선염불지도
명당 · 음양택 · 생활 풍수 강좌
개인 단체 강좌 출강 · 우울증세
흥망성쇠 · 시기적중 · 평생궁합
당선 · 시험 합격 · 영험 도량
공양주 구함. 행자 출가자 선발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010-7625-4455

참선기도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단 몇분만 모시겠습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청강사
016-9506-5706

서울에 갓바위 부처님 모실자리
북한산불기 佛機를 받은 자락에
정법을 펼칠 천간지비 터: 山 만
이천평 三輪청정하여 함께
불사하실분, 혹은 매매,
1/2분할, 임대등 다양조건협의
밥할머니 宣揚人 禪顯
010-9468-8168

신심있는 종무소
보살님 구합니다
(45세미만)
숙식가능
▷흥국선원
016-9224-2727
010-4939-9192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010-3191-9668

산사에서 가족처럼
공양주 하실분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011-696-8500

비구스님이나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40대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서울근교
010-4540-33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5대)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지역
011-493-1121

비구니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3)461-7294
010-5290-3709
011-393-0013

토굴에서 조용히
자기공부하며
정진할 30~40대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3174-233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행자스님, 공양주,
사무장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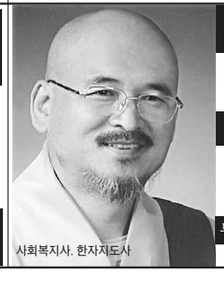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고급 만다라 액자 특별 원가 분양 안내
분양가 5만원 크기(가로×세로 48cm 두께 5cm 이중액자)
만다라의 효험--------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이며, 우주공간의 축소된 그림이다. 각 가정에 걸어두면 뒤숭숭한 꿈자리가 없어지고 수맥이 차단된다. 점포에 걸어두면 가게영업이 활성화된다. 만능 부적과 같다. 걸어놓고 기도 가능
※ 전국영업할분 초빙 법사나 일반신도 차량소지자 환영
• 조 성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새절 봉선사
• 공급처 : 02)470-7329 016-261-2068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힘을 세게하는 오라요법 탄생
모든 운동선수 (골프,야구,수영,역도.....)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정신병,관절염,당뇨,위장병, 어깨걸림,두통,탈모증,신병, 각종 암환자,아주 간단히 자연치유 무료체험
광명사 氣연구소 054)974-478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夢"막힐 을, 답답할 을, 성낼 을, 걱정할 을, 원망할 을.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커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제5기 일반인, 건축, 조경, 인테리어 실무자들을 위한
풍수건축인테리어 전문가과정 수강생 모집
행운풍수론은, 고전 풍수이론과 현대건축, 인테리어 실무를 완벽하게 조화시켜, 인간의 행복과 행운을 찾아주는 웰-빙 風水론을 실현하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강의목적
한정된 터에서 풍수적인 논리를 적용해 복된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주거 공간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과 복, 록, 수를 증진시켜 삶을 질을 높이고, 특히 수험생 자녀들의 집중력을 현저히 향상시켜 학습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자연의 기운을 인간 특성에 맞게 이용하여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풍수건축인테리어 전문가를 양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수강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주부, 도시공간설계 및 개발담당자, 각 기업체 부동산 거래 및 관리담당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감정평가사, 건축설계 및 시공업자, 조경설계 및 시공업자,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자, 부동산 컨설팅 담당자, 건축주,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업자, 기타 풍수건축 및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모든 일반인.

▣ 강의내용
풍수지리의 근본과 목적./ 풍수이론의 이해와 방위./ 풍수이론의 원리와 가상학./ 주택의 중요 포인트와 사람과의 상호관계./ 복이 머무는 방위와 흉한 방위./ 나쁜 집 고치기와 수맥의 탐사./ 풍수건축과 사람과의 조화./ 사람에 따른 가구, 색상, 침대, 책상배치./ 사람에 따른 인테리어 소품, 액자, 배치./ 풍수논리로 본 이사, 직장, 동업자, 택일, 여행, 상담, 의상코디./ 풍수논리의 현장 적용 방법 실습 등.

▣ 강의 안내

구 분	모집인원	개강일시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 고
서울반	20명(선착순)	11월 03일(월요일)	11월 03일~12월 28일	16:00~19:00	이론 : 일일 3시간(8회)
분당반	20명(선착순)	11월 04일(화요일)	11월 04일~12월 28일	18:30~21:30	실습 : 일일 8시간(2회)

▣ 강 사 김 경훈(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장) 직강
※저서 : 양택삼요 역해, 태정요결, 수정요결, 복 주는 책, 양택풍수의 원리, 공간창조의 풍수논리, 풍수인테리어 정론, 풍정요결 등

▣ 교육비 및 입금계좌
· 교 육 비 : 750,000원(수강료, 교재비, 패철, 수맥 탐사봉, 현장 실습비 포함)
· 입금계좌 : 070-05-0020-828 (국민은행, 예금주 : 김 경훈) 카드 결제 가능

▣ 교육장소
· 서울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500m 지점)
· 분당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 (※지하철 미금역 4번 출구에서 150m 지점)

▣ 특 전
1. 사단법인 행운풍수지리학회 [풍수건축사] 자격인증서 수여.(교육 수료 후 평가)
2. 수료 후 사단법인 행운풍수지리학회 학술회원 자격 취득으로 지속적인 풍수공부 가능.

▣ 문의 및 접수처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전화 031-798-4595~6, 011-399-7555,
E-mail : captain@luckyfi.com / 인터넷 www.luckyfi.com
서울반 02)848-8474, 010-4780-2700 / 분당반 011-749-0248
교육주관 幸運風水地理學術研究院
자격인증 社團法人 幸運風水地理學會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 가면 혈(穴)자리에서 정확하게 옆으로 회전합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 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룡자는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분(10만5천600원)+케이스(2만원)+수맥탐지봉(15,000원)까지 드립니다.
주문방법: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1688-1137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황희동 2가 303-15 한국역학협회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부산	● 위치 : 대구
● 법당 : 18평	● 법당 : 22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요사 : 15평	● 요사 : 150평
● 부지 : 97평	● 부지 : 20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9억	● 가액 : 4억 5천만원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사찰(중소도심)
● 대지 : 약 900평
● 기와법당 30평,산신각,독성각
요사채(30평)2동,노천입불
심야전기,앞마당,
잔디밭 조성완벽
● 남향 6m도접,텃밭 일부
● 가액 3억 5천만원

● 위치 : 부산 기장(바닷가 5분거리)
● 대지 총평수 55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6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주변 아파트 대단지 5천세대
사찰 뒤 산세수려
● 양도가 : 7억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약 1,000평(종교용지)	● 부지 : 약 5,000평
● 법당 : 30평(목조,단청)	● 법당 : 20평(목조,단청)
● 요사 : 50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50평
기타 : 산신각, 석탑, 석등	● 가액 : 8억원(전세가능)
● 가액 : 3억 5천만원	● 특징 :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 산속 사찰임	도심인근의 대작불사 할 수 있는 사찰임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금성면
● 관리지역 약 1350평
(전원주택지로도 가능,분할 및 평수 조절 가능)
● 전체부지 도로접함, 정남향
● 불사건축시 최저가 책임시공 및 성실업체 알선
● 양도가 : 15만원(평당)
010-9369-6899 (주인 직접)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법당 : 40평. 3층건물중 2층
● 가액 : 7천만원
(전세5천만원,시설비 2천만원)
● 중간세도 가능하며
현재 법회 진행중
053)759-0108
011-506-228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신창동
● 35평, 2층, 비단등 500등,
호신불 500불
● 시설 최고급,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9414-5601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바다가 보여 보살님들
포교하기 좋은곳
● 평수 18평
● 삼존불,지장보살,신중탱화,
소불 모셔져있음
●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010-7930-160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고의 위치
지하철 2분거리 (평지)
● 자연녹지 300평,건축 허가필
● 하천부지 약350평,법당40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2558-7131
011-574-3303

팬션 및 가든
수련원최적지

● 위치 : 충주시내 10분
버스정류장앞
충주호 인근 남한강변
소나무숲언덕위치
● 대지 2462㎡. 건평 863㎡
● 가액 : 15억.국유림1500평
● 주차장, 텃밭사용
현, 팬션 및 가든 영업중
www.pungkyoung.co.kr
011-434-72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
011-9571-1710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지전리
배산과 전망이 뛰어남
● 평수 : 1706평(전,답)
토목 공사 완료
● 가액 : 평당 8만원(주인직접 매매)
011-1751-0357
011-889-9464

서울 근교 사찰
(비구니스님에 한함)

● 남양주 오남지역 서울 30분
● 30만 신도시 사찰 불모지역
● 전철 버스정류장 교통편리
● 10만평 호수 언덕에 조용한 곳
● 국유지 1000평, 개인 1000평
별지 5000평,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별당 10평
● (가건물) 무속인 불가
● 양도 : 동참금 3,000만원
010-6600-1377

사찰및 요양원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국도에서 200m. 도로는 포장 되있음
①평수 : 임야 관리지역 18,479평
농림지역 38,294평 총 56,773평
● 단감나무 200주, 가건물 40평
지하수 200m
● 가액 : 5억 5천만원(급매)
②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7-570-160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대지 약 1000평
법당 28평(현대식 조립식 건물)
산신각,용왕각,요사채(75평)
● 가액 : 급매. 싸게드립니다
비품일절 양도
(일부후불가능. 스님직)
010-2536-87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92-98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평수 : 7백평(2차선 도로변)
● 가액 : 1억8천만원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5개
● 물 좋고 산세수려한 명당자리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의성읍
● 대지 : 515평, 건평 1,2층 125평
● 가액 : 3억7천만원
● 현시세 절반 가격
최고의 명당자리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9574-523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8-427-2256

암 자 안 내

● 위치 : 구미시 근교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연못, 마당잔디
● 넓은공간. 총 320평
● 임대보증금 3백만원
1년 3백만원
● 양도도 가능 1억 3천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 평수 600평, 법당 30평
산신각 3평, 용왕당 2평
석탑, 방 8개, 주차장 확보
● 가액 : 8억
010-9798-1091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내에서 차로
5분거리. 토담집(단독 20평)
● 공부하실 스님이나 전원생활
하실분 휴양하실분
● 공기좋고 전망좋고 경치좋음
● 창고, 입식부엌, 심야보일러
에어컨(작은법당 따로 있음)
● 건물만 양도 4천만원
011-9079-68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국도 4차선에서 300m
● 대지 279평, 답 117평
하천 64평(등기필)
● 건물 : 법당(목조기와) 20평
단청완료
● 요사채 33평, 식당 20평
● 인수 하실분 연락바람
● 가액 : 4억 5천만원
011-878-4593
054)746-2080

포교당(급)안내

공찰 주지 발령관계로 급매
● 위치 : 대구시 성당못역 10분거리
● 평수 : 2층건물중 2층(70평)
● 가액: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주차시설완비
017-501-24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불읍원
● 총평수 : 60평 4층건물중 3층
● 법당35평, 종무소10평,
공양간10평, 주지실 5평
● 삼존불, 영단, 시설완벽
● 보증금 3000만원 / 월25만원
시설비 : 상담후 절충
055)745-8419
011-9394-81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서2동 다우정사
● 4층건물중 3층
● 전세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9557-8879

도심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역 도보 10분거리
● 4층건물에 3층법당
4층 요사방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시설비 2300만원
월세 50만원
011-9105-0024

도심속의 예쁜 포교당

● 부산 광안 전철역 3분거리
● 대지 약 100평
● 건평 1.2층 55평
● 매매가 : 가격절충
011-345-5155

사찰전세 및 전원주택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2번지
● 전세 : 6000만원
011-9128-2069
010-9188-70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
● 대지:198평, 법당:임법당
● 집기일체(주불,아미타불,동불)
후불,지장,신중(먹탱화)
● 가액 : 7000만원
010-2442-9166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평수 :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 삼존불
● 보증금 : 2000만원
010-4662-10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 조경수 900평,
법당, 요사채
● 산세좋고 물좋음
● 가액:1억 8천만원
055)672-034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8통 1반472번지
(영주제일고등학교맞은편 산)
● 평수 : 40평(방4, 주방1, 욕실)
● 가액 : 2300만원(가격조절가능)
011-9370-7513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청량산도립공원,울진불령계곡
30분거리. 이전관계로 양도함
● 실평수:600평 등기 300평
● 한옥토굴 27평 방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1억5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0-8868-9407
054)673-6496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위치 : 서울
● 부지 : 108평	● 대지 : 90평
● 법당 : 70평	● 법당 : 18평
● 요사 : 140평	● 요사 : 20평
● 가액 : 12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504-6591

포 교 원(급)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앞
(KTX기지국 및 전철역앞) 교통중심지
● 8층건물중 4층
● 평수: 68평 삼존불,신중단,영가단,
원불(소불700불 모셔져있음)
● 상담실 대형룸1, 방3
● 공양실, 엠프시설등,냉난방자동시스템
모든시설완비(최고급시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130만원
시설비 : 3000만원
010-3390-2145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 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각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
010-4782-2112

포교당(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평수 : 110평
● 법당 약60평,삼존불(동불), 불단,삼성각(원목)등
요사 약 50평, 방3개, 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가격절충) 융자 1억5천만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2천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순동 127-1(전주,군산,익산 20분거리)
● 대지 : 300평, 요사채 약 50평(옛날구옥:문화재급)
2층 벽돌기와집(총60평)
1층 40평 법당(20평:원불100불), 2층 20평
● 경관이 수려하고 조경수 좋은 정원있음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63)547-8895/016-9231-5355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위치 : 승인동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1, 2층
● 대지 : 160평
● 법당 : 45평,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 130평, 해우소 별도 3개
011-472-2782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⑤

전도된 망상때문에 부처 증득못해

作是念時 卽發愛敬心生 三昧開發 身心快樂 淸淨安穩 無諸惡相 從禪定起 身體輕利 自覺功德巍巍 人所愛敬 是爲念佛三昧善根發相

마음속에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생각할 때 곧바로 부처님에 대한 애경심이 일어나고 이로부터 삼매가 개발되어 몸과 마음이 안온함을 깨닫게 되고 일체 악한 분별심의 모습이 사라진다. 이것이 삼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삼매가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공덕이 드높아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계가 있는 것이 염불삼매에서 일어난 선근의 모습이다.

알아야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부처인데, 단지 망상 전도 때문에 부처라는 것을 증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령 지관수행으로 훈습한다면 마음이 부처이고, 그 마음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 마음으로 부처가 되는 일을 실현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닦는데 있는 것이다. 비유하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도 같다.

復次 行者因修止觀故 若得身心澄靜 或發無常 苦 空 無我 不淨 世間可厭 食不淨相 死離盡想 念佛 法 僧 戒 捨 天

앞에서 말했던 다섯 종류의 선근발상은 간략하게 그 요점만 말했을 뿐이다. 이를 다시 자세히 밝힌다면 한량없고 가이없어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수행인이 지관을 닦음으로써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면 유루과보의 네 가지 모습인 무상(無常) 고(苦) 공(空) 무아(無我)라는 관찰이 일어난다. 이는 소승에서 수행하는 사념처관(四念處觀)이다.

사념처에서 염(念)은 관찰하는 지혜이고, 처(處)는 관찰대상경계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해본다면 중생들이 색 수 상 행 식 오온에서 네 가지 잘못된 전도되는 견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풀이해보면 색온에서는 청정하지 않은데도 청정하다는 전도된 견해를, 수온에서는 즐겁지 않은데도 즐겁다는 전도된 견해를, 상온과 행온에서는 찰나찰나 끝없이 천류하는데도 주재하는 실아가 있다는 전도된 견해를, 식온에서는 간단없는 생멸을 거듭하는데도 상주한다는 전도된 견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전도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사념처관을 닦아야만 한다. 때문에 사념처관이라고 하였다.

사념처는 첫 번째로 자기의 몸은 청정하지 않다고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분별하는 마음은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일체법은 무아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네 가지로 구별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별상념처관(別相念處觀)라고 한다.

이를 다시 총체적으로 묶어서 관찰할 경우 내 몸이 청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정과 마음과 법까지도 모두 부정하다고 동시에 관찰해야 하며, 감정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몸과 마음과 법까지 동시에 괴로움이라고 관찰해야 하며, 법이 무아라고 관찰한다면 그 나머지 셋도 동시에 무아라고 관찰해야만 한다. 이것을 총상념처(總相念處)라고 한다.

과거 전생에 이러한 사념처관을 수행했기 때문에 금생에 지관삼매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념처관의 선근 모습이 발현한 것이다.

사념처관을 닦은 후에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 염계(念戒) 염사(念捨) 염천(念天) 등 육념(六念)법문을 닦아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만 한다.

과거에 세존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 몸은 청정하지 않다'라는 관법을 수행하게 했었다. 모든 부처님 제자들은 대부분 왕자 귀족의 신분으로 출가했는데, 그들은 세간 오욕육진을 마주하면 그때마다 번뇌의 집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대상경계를 바라보며 청정하지 못하다는 수행을 닦아서 오욕육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였다.

물고기가 물속서 차고 따뜻함을 알수 있듯 지관 수행하면 내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아

이 같은 부정관을 오랫동안 닦아서 그 수행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자 제자들은 눈을 뜨나 감으나 모든 음식과 몸까지도 시체의 모습으로 보여 자기의 몸은 청정하지 못하다고 심한 염증을 일으키게 되었다. 따라서 스스로 자살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죽여 달라고 교사하여 세상에 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세존께서는 그들이 방편에 집착하여 오히려 병통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연민하게 여기셨다. 때문에 사념처법문을 설한 이후에 다시 육념법문을 가르쳐 자살하는 병통을 물리치게 하였던 것이다.

알아야할 것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밝힌 모든 대소승법문이 해탈의 도가 아닌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비유방편의 가르침에서 근본 뜻을 얻지 못한 자들은 마침내 방편의 약에 집착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된다.

육념법문 중에 첫 번째는 염불이다. 모든 부처님의 여래십호에는 대자대비와 지혜광명과 한량없는 신통을 만족하게 갖추어 뭇 고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불을 해야 만하며,

두 번째는 염법이다. 법은 여래가 지닌 공덕으로 십력 사무애 십팔불공등법 등과 부처님이 설하신 삼장십이부경법이다. 만일 이와 같은 공덕법을 관찰한다면 마음의 선정을 얻게 되어 반드시 열반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을 염해야 하며,

세 번째는 염승이다. 승은 여래의 제자로 무루법을 얻고 계 정 혜 삼학을 갖추어 세간의 훌륭한 복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 공양해야만 된다. 그러므로 스님을 생각해야만 하며,

네 번째는 염계이다. 계율은 신 구 의 삼업으로 일으키는 잘못된 악을 방지할 수 있다. 모든 대소승의 금계는 모든 악한 번뇌를 차단하기 때문에 계를 염해야만 되며,

다섯 번째는 염사이다. 자기가 보시하는 것이 일체 세간을 훌륭하게 이롭게 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인색하게 탐하는 마음을 멀리 여읜다면 모든 물질과 마음에서 아끼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때문에 반드시 보시를 생각해야만 되며,

여섯 번째는 염천이다. 욕계 모든 하늘나라 등에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쾌락을 받게 된 것은 지난 전생에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했던 선근공덕 때문이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는 공덕을 갖추면 하늘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다.

알아야 할 것은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등 하늘나라 뿐만 아니라 제일의천(第一義天)에서 태어나 진상적멸락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천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7) 수(受)
수는 탐애와 증오의 감정, 즉 고수(苦受) 낙수(樂受) 사수(捨受) 등 삼수(三受)를 말합니다.

8) 애(愛)
애는 욕망을 말합니다. 욕계(欲界)에서 일으키는 탐심인 욕애(欲愛), 색계(色界)에서 일으키는 탐심인 색애(色愛), 무색계(無色界)에서 일으키는 탐심인 무색애(無色愛)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삼애번뇌(三愛煩惱)입니다.

9) 취(取)
취는 집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희망하는 대상에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굳게 집착하는 욕취(欲取), 두 번째는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인 견취(見取),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종교나 학설의 규정만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만을 신성시하는 계금취(戒禁取), 마지막으로 아집으로 인해 자기의 말만을 옳다고 굳게 집착하는 아어취(我語取) 등 네 종류가 있습니다.

10) 유(有)
유는 세계와 그 개체인 모든 사물들의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행(行) 식(識) 명색(名色) 육처(六處) 촉(觸) 수(受)가 애(愛)와 취(取)로 인해 더욱 발전하고 진보한 모습을 유(有)라고 합니다. '연기경(緣起經)'에서는 이를 삼유(三有), 즉 삼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생(生)
생은 각자 개체마다의 생존입니다. '연기경'에서는 "중다한 유정들이 중다한 종류대로 생기하는 것을 생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2) 노사(老死)
노사는 각 개체 생명들을 말합니다. '유식술기'에선 "오온이 변이(變異)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십이인연(十二因緣)을 십이지(十二支)라고도 합니다. 이는 열두 항목이 모두 서로의 인연관계로 일어나기 때문에 '십이연생(十二緣生)'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연(緣)'이라는 글자는 대상을 바탕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기경'에서는 "이것을 의지하는 인연 때문에 저것이라는 결과가 있고, 이것의 일어남을 의지하는 인연 때문에 저쪽으로 생기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무명연행(無明緣行), 식연명색(識緣名色), 명색연육입(名色緣六入), 육입연촉(六入緣觸), 촉연수(觸緣受), 수연애(受緣愛), 애연취(愛緣取), 취연유(取緣有), 유연생(有緣生), 생연노사(生緣老死)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정보 703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급)안내
●위치 : 대구시 신천지하철역
●건평 4층건물중 3층(45평)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시설비별도 3천만원
●시설완벽,비품 일체 양도
010-8676-7107

사찰(급)안내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 5개,부대시설 일절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스님이 외국불사관계로 운영하실 원력스님을 찾습니다
●4층 중 4층
●석가모니불,관음지장,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관음원불,132불, 법당 외 방2개,주방1,화장실 45평
●보증금 3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인연있는 스님을 기다립니다
010-2304-2221

토 굴 안 내
●위치 : 경북영주시 가흥2동 8통 1반 472번지
(영주제일고등학교맞은편 산)
●평수 : 40평
(방4개,주방1개,욕실)
●가액 : 2300만원
(가격조절가능)
011-452-8374

포교당(급)안내
●위치 : 대구시 남구
●4층건물중 2층(42평)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010-5013-2526

포교당(급)안내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밀집지역)
●4층건물중 2층(80평)
●법당(40평), 요사채(40평)
●시설완벽하여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가능함
053)629-4916
011-9374-1399

매매 부동산 표시
사찰부지및별장적합 급매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산78번지 29,066제곱미터(8,792평)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1번지 전 3,031제곱미터(917평)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3번지 전 1,250제곱미터(378평)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3-1번지 전 4076제곱미터(1,233평)
총 37,423제곱미터(11,320평)
가액 : 1억2천만원
010-9945-2030

포교당(급)안내
●위치 : 부천역 5분거리
대형재래시장입구
●구조: 5층건물 2,3층
각30평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최저,답사후 결정
010-7742-0152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 강릉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요사 40평,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가액: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시 안지랑이4거리
안지랑지하철 1분거리
시내 버스정류장입구,앞산아래
●평수 : 약40평,3층 중2층전체
●구조 : 법당,공양간,방2,세면장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355-3778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동구 초량
●3층건물중 3층(50평)
●법당,삼존불
거실,방2개(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가액:보증금 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소백산 자락 사찰터,별장터
●소백산 자락(영주에서 부석사 중간)산 270m고지
(영주시에서 10분에서 15분거리)
●관리지역 및 독립구역 5,300평,
명당산세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 인입 완료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건축가능
명당터로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
016-573-2032
(명당터 보실분만 사전 연락요)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사하구
도로변 전철 3분
●3층 : 40평, 법당, 방 2칸,
주방, 욕실
4층:방大1칸,옥상 단독 사용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전,월세 절충가)
시설비 500만원
011-9342-9794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동구
●대지 : 40평 외 국유지 20평
정도 무상사용
●1층요사 2층법당
●특징:도심속의 숲 마당안
천연수 흐름. 연못 있음
●아파트등 인구밀집지역,역학,
기치료, 법사님 보살님
최고위치 문앞주차
●가액:1억 7천(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주인직 010-8510-1461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 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조선 유일의 삼연릉… 청년 군주의 빈약한 이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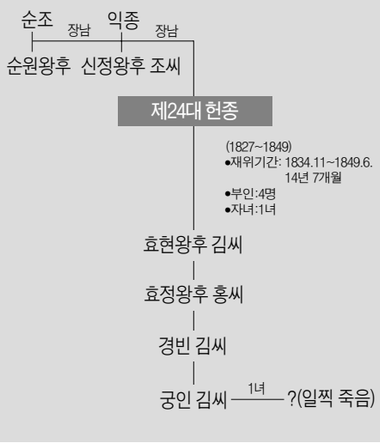
원비 능호 받은 '경릉' 허약한 왕권·방자한 신권 극명하게 보여줘

헌종의 예술과 사랑이 빚어낸 '낙선재' 유일한 치적으로 칭송

57 24대 헌종 – 경릉

헌종 1827~1849 (23세)
재위 14년 7개월
1834.11(8세)~1849.6(23세)
원비 효현왕후 김씨 : 1828~1843(16세)
계비 효정왕후 홍씨 : 1831~ 1904(74세)

제24대 헌종 가계도



조선의 역사는 말기(末期)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말기의 인물들은 삐걱거리는 '비운(悲運)이란 수레' 에 탈 수밖에 없다. 조선이란 함대는 밑창이 터지고 옆구리가 깨지고 있었다. 세도정치에 휘둘린 허약한 조정은 기강이 휘청거렸다. 관리 임명의 근간이 되는 과거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백주대낮에 매관매직이 성행했다. 국가 재정의 기본인 삼정(三政, 전정 · 군정 · 환곡)의 문란으로 왕실의 권위는 실추되고 민생은 피폐해졌다.

순조가 세상을 떠나자(1834) 헌종은 여덟 살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강건하게 국사를 수행했으나, 할아버지 순조의 뒤를 이은 헌종은 너무 어렸다. 여덟 살, 조선 역대 왕 중 최연소 즉위다. 조정의 분위기와 세상 형편은 어린애를 능멸하기에 적합했다. 안동 김씨의 세도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 질주하고, 어린 왕은 할머니 순원왕후(순조 비)의 무릎에 앉아 수렴청정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죽했으면 그의 묘호를 헌종(憲宗)이라 지었을까. 국헌(國憲)을 지키고픈 간절한 염원을 죽은 후 묘호에 담았다고나 할까.

기록상 재위 기간은 14년이다. 그 중 6년은 수렴청정 기간이고. 8년의 친정 기간에도 그는 힘을 쓰지 못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력다툼 틈바구니에 끼어 숨만 헐떡거리다가 스물세 살 청년 이환(李奐=헌종)은 이승을 하직한다. 왕의 죽음인데 사인(死因)에 대한 기록도 없다.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후세 사람들은 말한다. 정답일지도 모른다.

헌종의 치적, 그가 남긴 것은 창덕궁 낙선재(樂善齋)다. 어떤 이는 낙선재 일곽을 두고 '헌종의 예술과 사랑이 빚어낸 곳' 이라고 표현했다. 낙선재는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다. 얼마 전(1989년)까지만 하여도 영친왕의 비(妃) 이방자 여사가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마지막 궁녀 몇몇도 이곳에서 살다가 죽었다.

주택풍의 연속된 건물 세 채와 후원(後園)이 딸려 있다. 이 건물은 본래 국상(國喪)을 당한 왕후들이 소복(素服)을 입고 은거하던 곳이다. 상중에 근신하는 왕후가 소박한 건물에서 예를 갖추고 법도를 지키도록 단청도 하지 않았다. 후원은 절제되면서도 조화 있는 조경으로 꾸며져 있다. 낙선재는 1846년(헌종12) 창건됐다. 1926년 순종이 죽은 뒤 윤비(尹妃 : 순명효황후)가 이곳에서 은거하다 별세했고, 1963년 일본에서 환국한 영친왕 이은(李垠)도 이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헌종은 재위 3년에 효헌왕후(孝憲王后)를 왕비로 맞았으나, 6년 후 왕후는 후사 없이 열여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만다. 이듬해 헌종은 계비를 맞아들이기 위한 삼간택에 전례를 깨고 자신도 간택에 참여했지만, 헌종이 마음에 둔 사람(후에 경빈 김씨) 대신 효정왕후 홍씨가 간택된다. 간택의 결정권이 왕실의 어른인 대왕대비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헌종은 3년 동안 고심한 끝에 왕비가 후사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핑계로 대왕대비의 허락을 받아 삼간택에서 떨어진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인다. 낙선재와 그 일곽인 석복헌과 수강재는 이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지었다. 말하자면 경빈 김씨가 곧 왕실의 대통을 이을 왕세자를 낳기 위한 둥지인 셈이다.

헌종의 평소 처소인 낙선재는 경빈 김씨를 맞아들인 왕 13년(1847)에 지어졌고, 경빈 김씨와 대왕대비의 처소인 석복헌과 수강재는 그 이듬해에 지어졌다. 헌종은 이곳 낙선재에서 경빈 김씨를 옆에 두고 세상사 잊고 책을 읽고 서화를 감상하면서 시간을 죽였다. 무거운 곤룡포를 잠시 벗고, 나라의 운명도 저만치 밀쳐버렸다. 낙선재(樂善齋)란 '착한 일을 즐겨하는 집' 이라는 뜻이다. 문만 나서면 조정 암투의 먹구름이 자욱하고 조선을 넘보는 외세의 야수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고 있건만 낙선재는 태풍의 눈처럼 적요했다.

헌종은 이곳에서 서화를 사랑하여 고금 명가의 유필을 벗 삼아 지냈다. 그가 얼마나 서화를 좋아했는지 당시 헌종에게 여러 차례 낙선재에 불려 들어간 소치(小癡) 허련(許鍊)이 기록한 <소치실록(小癡實錄)>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낙선재에 들어가니 바로 상감이 평상시 거처하는 곳으로, 좌우 현판 글씨는 완당(阮堂)의 것이 많다. 향천(香泉), 연경루(硏經樓), 유재(留齋), 자이당(自怡堂), 고조당(古藻堂)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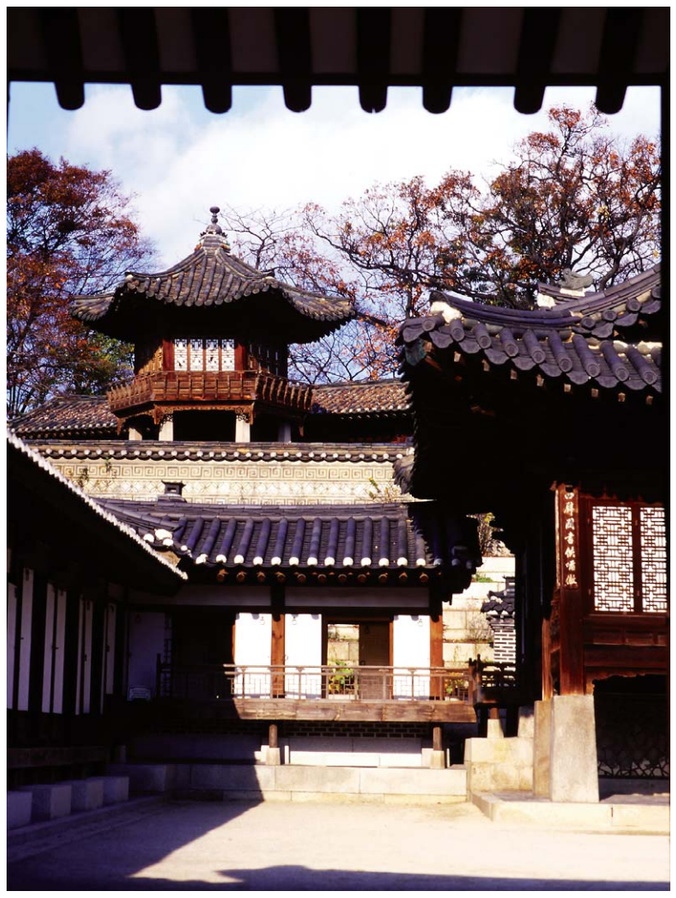
풍류를 벗 삼으며 경빈 김씨와 낙선재에 기거하던 헌종은 경빈을 맞은 후 2년도 채 못 살고 재위 15년(1849) 6월 6일, 후사 없이 중희당에서 홀연히 세상을 떴다.

경릉은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조성된 삼연릉이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다.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고즈넉하다. 그러나 조성된 경위는 우울하다. 허약했던 청년 군주 헌종의 이력서다. 건원릉 서쪽 다섯 번째 줄기에 있는 경릉은, 원래 선조의 유택인 목릉이 있었다. 목릉을 건원릉 두 번째 줄로 천장하고 비어 있던 자리였다. 헌종의 원비 효현왕후가 16세로 승하하자(1843년) 이곳에 안장하고 능호를 경릉이라 붙였다.

6년 후인 1849년 헌종이 승하하자 효현왕후 곁에 묻었다. 왕이 살아 있을 때 왕비 곁으로 가고 싶다는 전교가 없으면 먼저 죽은 왕비 곁으로 가지 않는 것이 법도다. 안동 김씨들은 길지를 물색한다고 열 세 곳이나 다녔다고 둘러대며 추천한 능지가 여기다. 흉당으로 꼽히는 파묘(破墓)자리인데다 헌종은 능호도 얻지 못했다.

헌종의 능호를 숙릉(肅陵)으로 정했으나 국장기간 중에 영부사 조인영의 상소에 의해 효현왕후의 경릉을 함께 쓰기로 했다. 왕인 남편이 아내의 문패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왕권의 허약함과 신권의 방자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계비 효정왕후 홍씨가 73세로 승하하자(1904년) 원비 곁에 묻었다. 효정왕후도 정릉(正陵)이란 능호를 받았으나, 1904년이면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지 없는 지 혼미한 시절이 아닌가.

세 개의 무덤은 난간석을 터서 한 방을 쓰는 부부임을 나타낸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한 방에 두 여인을 들여놓지는 않았다. 참으로 민망한 모습이다.





창덕궁 내에 있는 낙선재(위), 헌종의 경릉은 조선왕릉 가운데 원비와 계비를 모신 유일한 삼연릉이다(아래).

아름다운 신혼방 석복헌에 살던 경빈 김씨도 결국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 이후 그 여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왕 법도를 무시하려면 비록 후궁이지만 헌종 곁에 안장해 4연릉으로 조성했다면 죽은 자의 혼령이 크게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을. 아차, 그런데 혼유석은 따로 따로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노닐어야 한다. 배려할 줄 모르는 후손들의 참을 수 없는 경박함에 분노가 인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경릉(景陵)

24대 헌종과 원비 효현왕후(孝顯王后) 김씨 및 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를 모신 삼연릉으로, 조선 왕릉 가운데 유일하다. 정면에서 보아 제일 왼쪽 봉분이 헌종의 능이고, 가운데가 효현왕후, 오른쪽이 효정왕후의 능이다.

헌종은 요절한 문조의 아들이며 1834년 순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당시 8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삼정이 문란해지고 계속된 홍수로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해졌다. 헌종은 혹독한 천주교 탄압정책을 폈으며,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로 많은 신자들이 학살당했다. 후사 없이 보령 23세로 승하해 건원릉 서쪽 산줄기에 장사지냈다.

효현왕후는 1837년 왕비에 책봉돼 6년 만에 승하했다. 효정왕후는 효현왕후의 뒤를 이어 1844년 왕비로 책봉돼 헌종이 승하하고 철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됐다. 1908년 헌종은 성황제(成皇帝)로 추존되고 효현왕후, 효정왕후도 성황후로 추존됐다.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서 울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서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미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업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업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사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업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현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업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영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무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육사	서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무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사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경 기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서 울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안 주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안 산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천 울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대 서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산 전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청 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 울
박경하	1952년생	177	대 졸	무역업	울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졸	회 사	천 안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졸	자영업	서 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졸	자영업	인 천
이경술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졸	영 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졸	회 사	서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 졸	회 사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 졸	자영업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졸	영 업	아산시
유돈석	1971년생	167	고 졸	회 사	서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 졸	회 사	대 전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무원	서 울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 업	경기도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여러분이 있기에 부처님도 있고 불법도 있는 겁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질문받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항상 내가 그 말은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가족간에 친척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탓으로 돌리고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됩니다.

이런 예가 있었죠. 수원에 어느 삼 형제가 사는데 밭 하나라도 그냥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음식을 했어도 하나 주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서로 패고 들고 싸우고, 참 어렵게 살았더랍니다. 근데 어떡하다가 선원에 오게 됐어요. 선원에 오게 됐는데, 떡 보니까 말입니다, 나한테 착 오는 게 뭐냐 하면 '저렇게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천방지축들이니 안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네들, 자식을 기르고 살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몇 남매나 뒀어?" 그러니까 오 남매를 뒀고 뭐 삼 남매를 뒀고 모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요다음에 죽을 때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으레 자식들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럼 자식들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면 당신네 부모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푸떡떨어뜨리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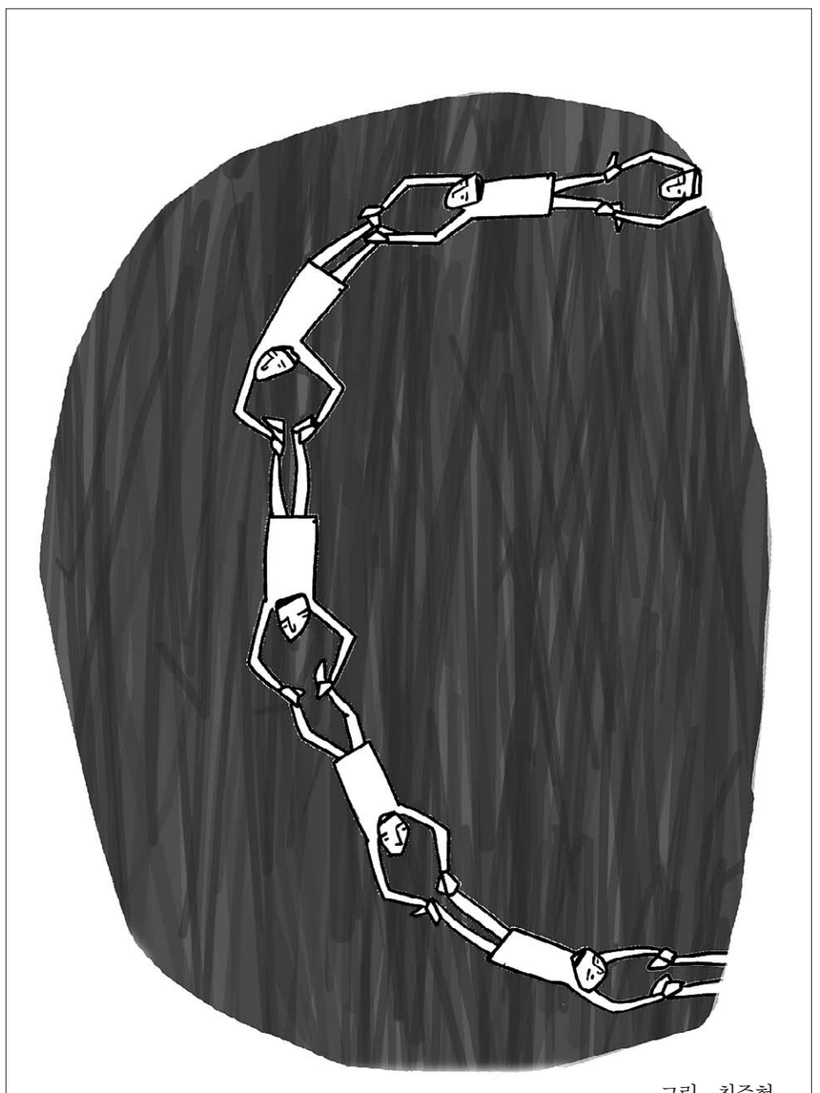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양면을 다 얘기를 해 줬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에게 방바닥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보지도 않고 불을 때서 엉덩이가 다 타서 죽게 만들고, 죽고 나서도 그냥 깔고 있던 그걸로 그대로 두루루 말아서 갖다가 넣는 게 어딨어?" 그랬더니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죠. "아,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알지 당신이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 삼 형제는 아주, 모두 오 남매인데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다 잘 지내던지 정말이지 잘 살게 됐더랍니다. 외국도 가게 되고요.

그런 거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지간이나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배척을 해서 버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거를 그 안에 넣고 '응, 모자랄 때 내 모습과 같아. 그러니까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저절로 잘될 것이고 저절로 복덕이 아니라 공덕을 받게 되고, 저절로 집안이 아주 유하고 광명이 스스로 들어서 하나도 애고가 없이 잘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만나면 사랑하고 만나면 즐겁게 웃고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음과 마음으로 붙들고, 남편 부인도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붙들어야지 몸을 붙들려고 그러고 말로 해서 붙들려고 그런다면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든다면 육체는 저절로 붙들어지죠. 허허허…. 그 도리가 아주 묘한 도리인 줄 아셔야 될 겁니다.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붙들어지고 육체를 붙들어야 화목도 붙들어진다고요.

우리가 몸을 붙들려고 "예이, 이놈의 개새끼, 소새끼!" 하고, 하하하…, "너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 고생한…." 아, 고생을 했으면 같이 고생을 했지 뭐 혼자만 고생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끼리끼리 모여 있죠?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도 끼리끼리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났으니 그저 '한마음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럽게 해 주고, 부드러운 말 해 주고, 부드럽고 정답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한 마음으로써 사랑하고 위로해 준다면 너무나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될 겁니다, 아마. (대중 박수)

부처님 법이 경전에만 있고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 법도 없을 거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법도 있는 겁니다.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했죠? 노래를 한번 해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법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불교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근본이 불이고, 말과 마음과 서로 통하고 돌아가는 게 교이고, 그러니까 불교는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 자체가, 바로 살림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자 도입니다. 도도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물리가 터지고 지혜롭게 돼서 공덕을 크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그림 · 최주현

질문자1(여) 스님, 오랫동안 좋은 법문 들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불교와 생활이 둘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주인공한테 항상 맡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인공한테 항상 맡기면서도 '주인공,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맡기면서도 주인공한테 관하는 방법이 올바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고 항상 의심이 조금씩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주인공한테 잘 관하는지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여직껏 말해 주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말하는 자체가 바로 그 주인공 놈이라고. 말하게 하는 놈 자체가 바로 주인공 놈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하하….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스님께 어려운 일 병고 액난을 하소연했을 때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관하세요."라고 하십니다. 관하는 도리를 통해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할 경우에, 병이 낫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여지껏 말했지 않소? 회사를 다스리는 회장과 같아서 바로 내 몸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 회장의 결정 하에 작용을 한다고. 내 몸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는 데에 따라 작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믿지도 않고 마음도 정하지 않는데, 결재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그와 같이 내 몸속에서도 결재를 해야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질문자3(남) 무량법문 잘 들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면서, 막상 선원을 떠났을 때 그 도리를 실천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스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심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한다고 함은 곧 지켜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지켜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 자기의 마음이 현재 상태를 지켜보는 것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놓고 가는 것인가? 이래저래 생각해 봅니다만 여전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스님 가르침 청합니다.

스님 마음이라는 건 허공과 같아서 마음이 요거 한 가지를 생각했다면 고정되게 고거 한 가지만 딱 물려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요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고 조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죠? 금방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또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게, 자기 마음 근본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이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러는 건 이름이에요. 그러나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참 선(禪)이에요. 그리고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번 실험하려면,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엇을 하나 해도 실험해 보려면 한번 넣고 지켜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 맡겨 놓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 놓고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실험이요, 그것이 지나가면 바로 체험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놓고 관하고 지켜보고, 관한다는 게 지켜보는 거니까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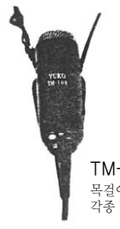
☞26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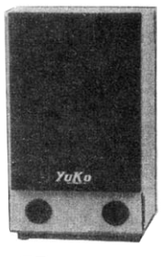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증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buddhanews.com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되 내가 했단 말 하지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으로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본다. 지켜보면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아, 고놈이로구나! 고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그때는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죠.

질문자3(남)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자4(남)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덕과 죄업은 상쇄되는 것인지요. 그 점이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런데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마음 속에서 잘못하게 하는 마음을 쓰기도 하고, 즉 말하자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음 속에서 나오죠. 즉 말하자면 방송국에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방송국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 자체에서는 어느 거든지 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천수만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덕이나 악행이나 그것은 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되는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갈라져 있다 붙어 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음먹는 대로니까요.

질문자5(남)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는 학생인데요, 학교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바쁠 때는 법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 있어서 봄에 몇 달 동안 법회에 안 왔었는데요, 법회에 안 오니까 생활이 좀 무기력한 것 같고 일이 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7월부터 법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불교를 기복 신앙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법회에 참석하면 뭔지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어도 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가끔은 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복 신앙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스님 하하하…. 아니, 그러면 사는 게 전부 기복이죠.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왜 기복입니까? 그게 당당한 바로 자기 자성의 발현이죠. 타의를 놓고서 빌고 타의에서 찾지 말라 하는 거지 자기 자성에서 일어나는 건 어떤 거든지 그냥 자성 그대로 법이죠.

질문자5(남) 그리고 스님 법어집 『무』에 보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핑계 삼아서 조금 소심해서 잘하지 못했던 것이나 계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대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무(無)의 정신계라는 거는 물질이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정신계라는 것은 설계도가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설계가 나오기 이전이니까 집을 어떻게 짓든지 설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해 놔야 집을 짓죠. 생각을 낼 때는 물건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물건이 어디서 오든 올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게 뭐냐 하면 마음과 마음이 일체가 다 같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우주 법계에 실현이 되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한다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뿌리를 무조건 믿고 거기다 놓고 관찰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아, 과감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것이 돌이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모두를 알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해서요.

질문자5(남) 감사합니다.

스님 (삼 배를 올리는 다음 질문자에게) 한 번만 하세요.

질문자6(여) 스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마음선원을 처음 왔습니다. 얘는 고등학교에 갈 제 아들인데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주위가 산만하고 불안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 잘 들어 봐. (왼쪽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시며) 저 나무에 뿌리가 있어, 없어?

학생(남) 있습니다.

스님 있는데, 나무는 흙에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 보지?

학생(남) 예.

스님 사람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의 근본 뿌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주인공이라고 이름 해. 그 주인공만이 너의 마음을 모두 이끌어 줄 수가 있다고. 네 몸속에 많은 생명들이 있고 많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의식들을, 의식들의 마음 나오는 거를 다 다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주인공,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공부 잘하게 할 수 있고, 너의 심부름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잘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맡기고 그렇게 진짜로 믿어. 네 영원한 친구야. 알았어?

학생(남) 예.

스님 (남자 어린이가 올리는 꽃다발을 받으시며) 너 왔구나! 하하하…. 많이 컸구나! (합장하시며) 아이고, 절도 다 할 줄 알고!

질문자8(남)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오늘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실 그 마음공부의 대상이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제한돼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고통과 고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님의 제자로서,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 새롭게 추구하고 또 바라야 될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침 주시옵기 바랍니다.

스님 지금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 포기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에요. 나만 스승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강도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물 흘러가는 것도 스승이에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일체 만물만생 모두,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삼심 삼세, 그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산란해서 진짜 공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거기다 맡기시고 지켜보는 그런 참 선자(禪者)가 되세요.

질문자8(남) 그래도 이해가 안돼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선원에서 스님께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문제에 부딪칠 때는 자기에게 이익 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마음자리에 두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스님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사람이 안 온다 온다 이런 문제들, 뭐 잇속을 찾는다, 이(利)가 부진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가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내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아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생각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묘한 법은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해야 아실 겁니다.

질문자8(남) 그럼 스님! 나한테 병이 있다든가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겪고, 이 마음자리가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끄달리지 않는다면 올바르겠습니까?

스님 그거야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 하고 놔야 되죠. 그리고 또 제 몸을 제가 끌고 가는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죽으면 네 집합소가 없어지는데, 네 집합소가 없어지면 너도 죽잖아?'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입니다, 지금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야,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또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남과 같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다 놓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걸어오실 때에 그냥 서서 걸어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오긴 했는데 발자취를 하나도 짊어지고 온 게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돈벌이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아래에서 걸어오실 때에 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대중 박수) 걸어오긴 틀림없이 걸어왔는데 걸어온 사이가 없다. 내가 짊어지고 온 게 아니니까. 벌이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걸어온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자기가 했단 말 하지 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공용으로 했다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공용으로 한 것이지 자기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왔는데,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어온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위 공장 하나만 그냥 파워가 일어나도 다리도 떼어 놓지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한 거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그게 참 묘하죠.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하하하….

> 진짜로 믿는다면
>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 근본에다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위 법문은 1993년 9월 19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
입 종 안 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종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종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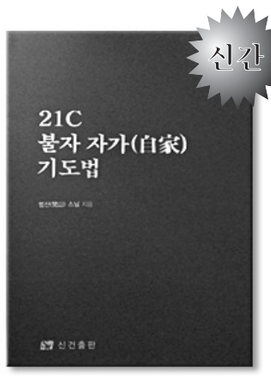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국제 결혼 안내

본 종단에서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몇년 전부터 결혼을 못한 초·재혼 불자들을 중국(한족,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 02)2242-1049. 011-9090-1049

(재)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공직윤리와 쌀 직불금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과 국가, 사회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 정답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가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개인이익 앞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공익을 뒷순위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또 행정학에서 '파킨슨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의 양(量)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부하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을 자꾸 확대시키고자하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의 일이다. 영국이 식민지국가 53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담당공무원이 262명이었다. 그런데 그 후 식민지가 22개 국가로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무려 1800여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파킨슨 법칙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일반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처럼 공무원은 국민에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동안 국가의 형태구축, 사회질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에 국가의 틀을 세웠고, 10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임용된 공무원들의 추진력은 우리나라를 세계 12대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나라의 최우수인력이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엘리트 계층 공무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수행한 일 중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해진 일들도 많았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위장전입, 아파트 전매, 가짜 농지증명 등이다. 이러한 행정 관행은 법적 문제는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것들을 오늘날의 도덕적, 법적 기준에 맞추다 보니 문제가 된 경우를 청문회 등에서 많이 보아왔다. 시대가 바뀌면서 도덕적 불감증이 도덕적 감증으로 바뀐 것이라고나 할까.

이번 쌀 직불금 수령 문제도 그냥 지나갈 뻔했으나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례가 툭 튀어 나오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쌀 직불금 수령 문제는 몇 개의 구조체계가 뒤엉켜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쌀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나 쌀 직불금을 못 받는 농민, 부재지주면서 쌀직불금을 타먹는 공무원,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 문제를 덮어두었는가의 여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당, 야당 등이 뒤범벅이 되면서 시중의 화제거리로 등장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쌀직불금을 받은 부재지주 공무원이 농민인 경우, 유산으로 상속받은 경우, 진짜 부재지주이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의 해결방법은 쌀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는 반환해야하고, 정도가 심한 고위 공무원은 문책해야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쌀직불금 몇 푼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쌀 직불금 수령 문제는 엉뚱하게 그동안 잠잠했던 소작농과 부재지주의 분쟁가능성, 논농사 포기로 인한 쌀 부족현상 문제, 지방 농지 값의 폭락가능성 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공무원들이여,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私益)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위해 일 해왔던 선배, 동료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

정치인들이여, 같은 사안(쌀직불금수령)을 높고 너는 잘못했고, 나만 잘했다는 치졸한 술수로 국민의 이목을 끌려는 낮은 계략을 멈추라. 우리 국민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태가 올지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불가(佛家)의 팔정도 가르침의 하나라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뜻한 부처님 자비 가족에게"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7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해요

경제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부인과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기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더욱 외로워지기도 한다. 대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하고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라고 답한 학생이 여러 명 돼다. 반가웠다. 그 중 감동적인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고졸 아버지의 노력과 사랑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 와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려고 하니 각종 취직 시험에는 대학 졸업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졸응시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주식회사 00기업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입사했다. 고졸, 그것도 공고 졸업이라는 악조건과 대졸자들과의 학력 차이를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한 것이다. 그걸 보면 아마 아버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못할 것이 없었을 것 같다. 고시에도 쉽게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게 일하고 생활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다.

아직도 가끔 아버지는 "대학에 못 간 것이 평생 한이 된다. 지금이라도 대학에 들어가 공부좀 해 보고 싶구나"라고 하신다.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진다. 학력위주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대졸자들 틈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 있는 것 같다. 가난해서 못 배운 한, 그러나 나는 아버지 덕에 편히 공부하고 있다. 현재 나는 대학생이지만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자신이 부끄럽다. 아버지만큼 성실히 공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버지께 죄송하다. 고졸인 나의 아버지는 어느 일류 대학 나온 아버지보다 나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이다. 아니, 어떤 석사, 박사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분이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좋은 직장을 다니다 당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나와 작은 공장을 운영하게 됐다. 시작은 순조로워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사는 편이었다. 그러다 큰 부도를 두 번이나 맞고 거의 파산 직전에까지 몰리게 됐다. 한 동안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그 때 엄마와 난 돈이 없어서 몇 달을 거의 라면만 먹고 살았다.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이었다. 난 그래서 지금도 라면이 싫다. 친구들이 같이 먹자면 곤란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 때 지방에서 혼자 계셔야 했던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 먹고 지내셨을까 생각해보게 됐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아버지는 수년간 성실하게 뛰셔서 다시 일어나셨다. 거의 기적적으로 파산직전의 공장을 다시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 아버지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된 것이다. 심하게 절단이 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봉합 수술은 하겠지만 그 손가락을 다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가락 운동을 몇 년간 꾸준히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손가락은 온전한 다른 손가락보다 반 마디가 짧다.

가끔 아버지의 손을 보면 그 짧은 다친 손가락이 보인다. 그 손가락은 우리 가족을 살리는 아버지의 진실한 땀방울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들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하고 말해주는 것 같다. 나도 얼마 있으면 졸업하고 언젠가는 가정을 가질 것이다. 나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버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결코 외롭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가족의 사랑은 형편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한다. 혹시 나의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기울여보자.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면 더욱 따뜻한 부처님의 사랑을 보내야 할 때이다. 당신의 작은 마음과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놓을지도 모른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대구 범불교도 결의대회의 의미

9월 27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 이어 11월 1일에는 대구에서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범불교도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구대회는 서울에서 열린 범불교도 대회의 지방확산이다. 그러나 그 명칭이 시사하듯 내용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서울 대회의 명칭은 대정부 규탄의 성격이 강했지만 대구대회의 명칭은 매우 전향적이다. 규탄 기조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불교도의 역할 모색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사실 종교편향과 관련한 불교계의 정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강력한 반발 심리에 기초한 대응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성을 통한 재발방지의 주문이다. 이 두 논리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사안을 매우 역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강력한 대응 속에 자성과 자정을 통한 변화의 기틀 갖추기를 모색하자는 의지가 결집되고 있는 추세다. 대구 대회의 명칭에 '사회갈등 해소' '결의대회' 등의 단어가 들어간 것이 이를 증명한다.

세상 모든 것이 공부재료다. 지금의 종교편향 사건들이 불교계에는 더 없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구대회는 자성과 자정을 통해 전법과 인재불사,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만들기의 출발선이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 정책의 효율성 재고해야

문화재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 최근 6년간의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38.4%에 머물러 있다. 국가기관으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외곽지대에 방치된 유물도 35만점이나 된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업무활용도는 50% 선이다. 10년간 100억 원을 투입한 순천 선암사 보수공사의 경우 한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18대 국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한심한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문화재청의 업무에 대한 질타 수준을 넘어 문화재관리에 대한 국가적 개념을 새롭게 짜야 할 정도다.

최근에 열린 문화재 수리보수 기능인 선발에는 1700여 명이 응시를 했다. 문화재청의 정책과 업무관리는 정신을 놓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현장을 지킬 기능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다.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사랑과 수리보존의 전문직에 대한 관심도는 상승하는데 비해 당국의 업무 시스템과 효율성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는 우리민족의 과거이자 미래다. 과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민족에게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화재 정책은 근시안적인어서도 보고서용이어서도 성과만족형이어서도 안 된다. 혼을 담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출된 허점들을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문화재청에 대한 관심을 '국정감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불사
- 법 명 : 수산(문복수)
- 주 소 :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8-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불교조계종삼화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지암
- 법 명 : 청안(김형근)
- 주 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7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대한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지암
- 법 명 : 도일(김형근)
- 주 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74
- 사찰명 : 성도사
- 법 명 : 지관(이주훈)
- 주 소 : 경북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14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공 고

교헌사(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 주지 위술환)에서 2008. 7. 29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득한 납골당의 모든 소유권 및 분양권은 교헌사 자체에 있으며, 교헌사는 2008. 10. 29일 현재까지 분양을 시작한 바가 없으며, 분양권 역시 외부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일 본 건과 관련하여 분양권자나 소유권자를 사칭하여 분양권 매매, 매도, 공사 관련계약 등의 행사를 하는 자를 발견하여 신고하시면 사법처리 시,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연락처 : 교헌사 종무소 031-712-4488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남성용 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세상사는동안 근심과 고통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부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많다. 세상중생중에는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갖가지 고통을 당하며 사는 미련한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금강의 지혜를 얻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큰 공덕을 쌓기를 바라고 계신다.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오만과 의심으로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을 중요시한다. 또한 물연법도 중요하다. 환자에게 약도 맞는약이 있듯이 물건하나도 연이 되는 물건이 있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신묘장구 大다라니 지갑에는 대비신력의 부처님법구인 신통한 종자가 들어 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 대복을 받으며 물질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소멸하게 만든 영험의 지갑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한지 5년간 숫한 영험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신묘장구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하는 비방의 법구가 지갑 내부 상단에 들어 있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내부에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하는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또는 선물 받는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간 축원불공을 올려드린다. 전화로 신청하면 지갑은 택배로 받아 사용하고 축원불공은 신청다음날 새벽부터 올려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문의(02)741-4488 (사찰스님 신청시 20% 할인)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 분할가)**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승진을 기원하는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 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가격 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 할인)**
전화 (02)741-4488 **(신용카드 분할가)**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 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생,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 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또는 합장주 택1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장주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 할인)**
전화 (02)741-4488 **(신용카드 분할가)**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을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을 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형통되게 비방의 "옴"자와 백연화를 넣고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도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사찰스님 신청시 20% 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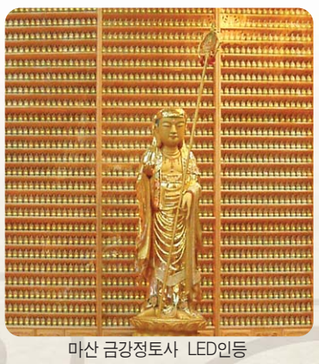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만월등(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